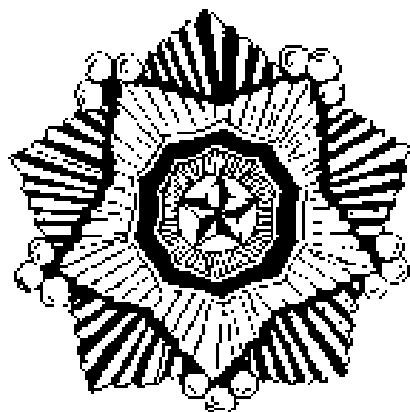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8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8호

(루계 제 622 호)

◆◆◆◆◆◆◆◆◆◆ 차 례 ◆◆◆◆◆◆◆◆◆◆

개선의 광장	4
신기한 수첩	5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7
개선의 밤 (외1편).....	8
기상나팔소리 울릴 때	8
개선문앞에서	9
들국화.....	10
뜻밖에 받아안은 생일상	11
명언해설	12
눈비오는 어려운 때일수록.....	12
삶의 시작도 끝도	13
유쾌한 뉘시군	14
백두의 서정	25

감자이야기	27
대 답	28
강원땅이 웃는다오	31
감격의 이날에 (외1편).....	32
사랑의령마루	33
고질적인 침묵은 건강에 해롭다.....	42
큰 기쁨	42
로숙한 형상	43
적기가는 조선의 행진곡 (외1편).....	45
사람의 견딜성	45
고향과 나	46
어서 만납시다	47
술을 끊은 리생(리생계주).....	48
조국통일형제의 노래	52
건설자의 통일생각 (외1편).....	52
뜨거운 말 (외1편).....	53
노여움을 어떻게 다룰것인가.....	54
기계다리	55
고전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에 대하여	61
고향의 노래	63
채만식의 풍자작품과 사회비판의 예리성	73
목숨과 바꾼 시	77
미국에 부치노라	79

개선의 광장

신문경

짚신들 맨발들
기쁨에 울고웃던 그 자옥이
반세기도 넘고넘어
오늘도 발밑이 뜨거운곳

해별 따사론 개선광장에
엄마손 잡고 걸음떼는 아이야
너 아직은 모르리
오늘이 어떤 날인지
오늘이 어떻게 명절이 되였는지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난것이
누구나 받아안는 행복이 아닌줄을
아이야 너는 모르리
너의 그 웃음앞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
이 광장에서 내 웨치고픈 말이 있다

렬강의 포탄 한발에
통치배들 바퀴처럼 흩어져 달아날 때
인민은 창과 칼을 들고
군함과 대포와 맞서 싸웠다
가난의 멍에에 지지리 눌러살아도
제 땅의 자유가 그리도 소중한

투박한 그 손과 손
짚신신은 발들엔 사슬이 채워져도
통치배는 더러운 자유를 찾았다
침략자의 칼밑에서도 행복한체했다

민족수난의 피눈물속에
한가정을 지키기도 어려웠던 그 세월
3천만의 운명을 피로써 구원한
아 민족의 영웅 **김일성**동지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은 그날처럼
조국의 귀중함이 사무친적 있으랴
3천리에 뜨겁던 **김일성**장군 만세소리가
하늘의 태양을 무색케 한 이 광장
여기서 조국이

재생의 첫자옥 떴었다.
걸음걸음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제국주의마수를 차단지며
억세게 억세게 오늘에로 왔다

찾기도 어려웠건만
지켜내기는 험했던가
악랄한 봉쇄와 총칼을 휘두르며
제국주의가 미쳐 날뛰는 이 세계

인민의 운명을 떠멘 오늘의 **김정일**장군
제국주의포위환을 쳐갈기는 이 땅
풀뿌리를 씹어도 다시는 잃을수 없는
이 땅은 자유로운 우리의 땅

충효로 존엄을 지키고
로동으로 행복을 지키며
내 나라 내 조국을 가꿔가는 생활
이보다 소중한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의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꿈도 그속에 있고
무궁한 미래도 그속에 있어
공장의 주인들은 고난속에도
기대를 무기처럼 안아지켰고
땅의 주인들은 총탄을 만들듯이
알알이 곡식을 가꿔가나니

걸으라 귀여운 아이야
해마다 찾아오는 해방절마다
더 넓어진 보폭으로 이 광장을 확보하라
남해끝에서도 자유의 노래 울릴
그날을 향해 큰걸음을 떼여라

오, 광장엔 기슭이 있어도
민족의 존엄 사랑하는
세대들의 마음엔 기슭이 없어
이 광장은 해마다 날마다
인민의 가슴속에 펼쳐져가리라
자유는 노래는 3천리를 덮으리라

신기한 수첩

수령님께서 애용하시던 여러가지 소박한 필수품들 가운데는 자그마한 밤색수첩도 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던 필수품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그 수첩 역시 수수하고 평범한것으로 우리나라 어느 학용품상점에 가나 볼수 있는 그런 수첩이다.

그러나 수령님의 그 수첩이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신기한 수첩》으로 알려져 여러가지 전설을 낳고있다.

그 밤색뚜껑의 자그마한 수첩에는 세상만사가 다 적혀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와 관련한 자료가 들어있는것은 물론 여러가지 통계수자료들과 력사와 지리, 생물학을 비롯하여 어느 농장의 농사작황과 그 경험도 적혀있고 산골마을에 사는 개별적학생의 취미와 소질, 지어는 신발문수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문제들이 죄다 적혀있다는것이다.

손안에 드는 자그마한 수첩에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다 들어있을수 있을가. 그러나 그것은 죄다 사실이여서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의 인사들에게서까지 《신기한 수첩》이라고 불리우고있는것이다.

외국의 인사들은 그 수첩을 《혁명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며 지어는 최근에 연구개발된 전자정보체계인 인터넷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백과사전이요 인터넷이라 하여도 이 수첩에는 대비도 되지 않으니 최근에 마이크로기술의 개발로 한평방센치메터안에 수백만페이지씩 입력시킨다는 《전자도서》에 비기면 어떨지? 그러나 그것 역시 적절한 대비라고 할수 없다. 이 수첩에는 현재 벌어지고있는 세상만사가 죄다 적혀있을뿐아니라 앞으로 있을수 있는 일들까지 다 들어있고 혁명과 건설을 가장 빨리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지름길까지 환희 밝혀져 있다고 하니말이다. 더욱 신기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수첩을 보시며 가르치심을 주시면 어느것 하나 실현되지 않는것이 없고 언제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만능수첩》이라고도 하였다.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석단에 오르는 영광을 지냈던 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그이께서 가지고계시는 수첩이 신기한 수첩이 분명하다고 확인하여 마지 않았다.

그는 주석단의 두번째줄 가운데 앉았는데 바로

수령님께서 앉으신 뒤자리여서 대회가 진행되는 전 기간 줄곧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만 지켜보았다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자그마한 밤색수첩을 책상우에 꺼내놓으시었는데 그이께서는 그 수첩을 보시며 두시간반동안 그해 농사문제에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명언이고 금언이여서 대회참가자들은 며칠 안되는 기간이지만 하나의 농업대학을 나온것처럼 농사물계가 환해지고 못해낼 일이 없을것같은 자신심이 온몸에 차고넘쳤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민들속에서만 알려진것이 아니였으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외국을 방문하였던 한 일군이 들려준 밤색수첩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나의 그런 실례이다.

어느 해인가 외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나라 공산당총비서와 회담을 하시게 되였다.

회담장에 들어선 두나라 대표단은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외국 공산당총비서앞에는 이삼백페이지가 실히 되어보이는 두툼한 발언문건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복주머니에서 길이가 15센치메터 정도밖에 안되어보이는 얇팍한 밤색수첩을 꺼내여 책상우에 놓으시였다.

외국 공산당총비서는 몇번이나 출입문쪽에 눈길을 주더니 수령님께 뜻밖에도 회담을 시작하기전에 여담삼아 시 한수를 읊겠다고 하였다.

판례에 없는 일이었다.

대표단성원들은 모두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를 감상하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외국 공산당총비서는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대표단성원들은 그 나라 총비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였다.

시를 읊고난 총비서는 또다시 출입문쪽을 바라보고나서도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마침내 《그러면 회담을... 시작할가요?》하고 말하였다.

총비서는 발언원고의 첫장을 번져놓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놓으신 자그마한 수첩에 얼핏 눈길을 보내였다.

그제야 수행일군은 그 총비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와 같은 두툼한 발언원고를 내놓지 않으시

여 회담준비가 되지 않은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수령님께서는 유연한 자세로 회담일정대로 먼저 발언하시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수첩 첫장을 펼치신채 다음장을 번지지 않으시고 거기에 가끔 눈길을 주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거침없이 무려 3시간이나 말씀하시였다.

회담은 오후에도 계속되었다.

오후에는 그 나라 총비서가 발언하였다.

그는 매번 발언원고를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회담에서는 두나라의 관계문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호상관심사로 되는 심각한 문제들과 경제문화교류에 관한 문제, 군사문제, 실로 다방면적이고 심중한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회담과정을 통하여 두나라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탁월한 예지, 뛰어난 웅변술에 끝없이 감탄하였다.

흔히 장시간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고 력사와 풍속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있게 통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문제분석의 심오성과 투철성, 비범성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 회담이 마지막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불현듯 그 나라 당총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량손으로 책상을 짚고 위대한 수령님의 수첩을 건너다보았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다.

그 나라 총비서가 일어서자 모두의 놀란 눈길들이 일시에 그에게로 쏠리였다.

얼마나 뜻밖이었던지 수령님곁에 앉았던 수행일군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총비서가 놀라와 건너다보는 그 수첩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그 수첩에는 삼각표시를 몇개 하고 거기에 간단한 글줄들이 얼마간 적혀있을뿐이었다.

이 사람이 무엇때문에 이러는가?

영문을 알수 없었던 일군들은 의문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상대측 성원들 역시 의아한 눈길로 자기네 당수를 바라보았다.

《**김일성**동지, 실례이지만 그것은 무슨 수첩입니까? 그 자그마한 수첩속에 무엇이 있기에 발언요지도 없이 그 수첩만 놓고 각 방면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도 명철하게 말씀하십니까?》

그제야 원인을 알게 된 회담참가자들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수첩을

들여 그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시였다.

《이것말입니까? 그저 간단한 자료수첩이라고 할가, 하여간 필요한것들을 기록해두는 보통수첩입니다.》

그날 저녁때였다.

상대측의 한 수행원은 우리 일군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전에 오늘 회담의 발언록음을 풀어 복사를 끝냈습니다. **김일성**동지는 과연 비범한분이십니다.

우리 총비서는 발언원고를 보면서도 여러번 막히고 같은 말을 반복하곤하였는데 **김일성**동지께서 원고없이 한 발언은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철학적 깊이가 있는지 곧 위대한 논문이고 저서였습니다.》

그후 《신기한 수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나라에 퍼져갔다고 한다.

한해인가 두해인가 지난 어느해 봄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이 급히 우리 나라를 찾아왔다고 한다.

미제의 사측을 받은 국내반동들의 책동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정세를 바로잡을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그는 웬일인지 그냥 안정을 못하고 불안해하였으며 줄곧 무엇을 찾는듯 초조한 기색으로 수령님의 면담탁을 살펴보기만 하였다.

왜 그러는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밤색 수첩을 꺼내놓으시였다.

그러자 그 국가수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불안과 초조의 빛도 가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밤색수첩에 때때로 눈길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후 그 국가수반은 우리 나라의 해당 일군을 만났을 때

《미안하지만 비밀이 아니라면 한가지만 말해줄수 없겠습니까? **김일성**주석님의 밤색수첩은 어떤 수첩입니까?

무엇이 적혀있는지 보신적이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우리 일군이 그 수첩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몇줄씩 적혀있으며 우리 나라 어느 상점에 가나 볼수 있는 보통수첩이라고 대답해주자 그는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그 수첩에 몇줄의 글만 적혀있다면 어떻게 **김일성**주석님께서 그 수첩을 보시며 몇시간씩 그토록 논리정연하고 앞길이 환해지게 하는 현명한 말씀을 하실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수 없습

니다.》라고 확실성있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주석님의 그 《신기한 수첩》에 세계의 복잡한 정치, 경제, 군사 문제에 대한 유일무이한 해결책들이 밝혀져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왔다고 하면서 주석님께서 그 수첩을 꺼내시기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였는데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절망도 가셔졌다고 하였다.

그는 그후 수령님께서 그 수첩을 보시며 가르쳐 주신대로 하여 즉시 국난을 타개하고 나라를 안정 시키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도 그런 《신기한 수첩》이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하였다고 한다.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 수령님께서 쓰

시는 수첩은 《신기한 수첩》, 《보물수첩》이라고 불리웠고 수령님께서 그 수첩을 보시며 주신 가르치심대로 하면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둔다고 하여 《만능수첩》이라고도 불리웠다고 한다.

농업대회때 주석단에 앉았던 그 관리위원장도 수령님께서 그 수첩을 보시며 하신 말씀대로 하여 그해 류레없는 풍작을 이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쓰시던 그 수첩은 틀림없이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보통 수수한 수첩이었다.

김우경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에리엔 고에미데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자랑하라 용감한 조선인민이여
그대는 태양따라 자기의 힘과 피로써
자유와 영광을 찾았거니...

아 태양 솟아올라
영원한 혁명의 태양
희망과 진보에로 이끄는 태양
밤과 낮을 영원히 밝히는 태양

아 태양
불을 뿜는 활화산과 같은 심장으로 하여
수천리 굳센 조선인민의 손은
해방투쟁의 기치와 해불을 들었어라

그대가 낳은 영광스러운 아들
가장 위대한분
찬란한 앞날을 펼쳐주셨거니
투쟁만이 조선인민을 해방시킨다
한사람같이 조선은 위대한 그이를 따랐네

그이는 빛나는 예지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노예의 철쇄와 가난을 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께 영원한 영광을 드리거니
그대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그대가 거둔 승리의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니
그대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그대가 거둔 승리의 기치는
나뭇기리라 영원히 영원히

또 한분의 위대한 손
그렇듯 거룩한 손길로
승리의 불길과 기치
언제나 높이 추켜들고있거니
그것은 짧은 지도자의 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손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그대의
영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영원한 영광을

(필자는 중앙아프리카 시인 및 작가협회
부위원장임)

개선의 밤 외 1편

김정곤

일제의 칼탕질에
장장 반세기
잠을 설쳤던
이 강산이

불빛 하나
삼라만상에
유독
한점

개선의 이밤엔
백두의 팔에 머리를 놓고
삼천리강토가 네활개 쪽- 펴고
잠을 자네

수령님 드신 방
창호지 문에
고요한 그림자...

마식령이 숲바람 불며
드렁드렁 코를 골고
동해가 파도이불 폭 덮고
새근새근 꿀잠에 빠지고

아아 만시름 풀어놓은
조국의 머리말에
새 시름 또 무거우신
아버이 한분

초목은 서서 자고
바위는 앉아 자고
하늘땅이
다 자는 밤

한분
건국의 좌표 짚으시며
잠을
잇으셨네

량만

해방된 그해 첫 추석날
산산이 하얗게
햇쌀밥 이고지고 성묘 찾아오르고
버들방천 그네터엔
분바른 새각시들 구름같이 모여든다
솔숲을 흔드는 씨름판의 함성소리
떠가던 둥근 해도 술머리에 내려앉고
그늘밑엔 순배순배 술사발이 돌아간다
해방연의 추석은 허리끈 풀어놓고

배를 땡땡 두드리는데
해방을 메고온 사람들
이날에 어디 있었는가
백두의 풀물든 배낭에
주먹밥 한덩이씩 싸넣고
북행렬차 나무결상에 앉아
차창에 흘러가는 산밭을 쳐다보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새 조선 건국의 파견지로 떠났소

기상나팔소리 울릴 때

김상조

이른새벽
기상나팔소리 울리는 그대여
문차고 달려나오는 돌격대원 없다고
놀라지 말라

때아닌 노래소리 귀담아 들으시라

우등불 지퍼놓고 밤을 밝히던 전우들
아직 숙영지에 돌아오지 않았거니
저 멀리 작업장에서 화답하는

련대신 호나팔수여
부디 신호곡을 바꾸라
한밤을 지새운 돌격대원들에게
어서 휴식의 신호나팔을 불어주라!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개신문앞에서

8월이 왔다.

한껏 무성해진 진록색나무잎들이 해월에 반짝이며 설레이는 활력의 계절, 열정의 계절.

8월, 일년사계절 그 어느 달도 그러하지만 8월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추억으로 더욱 가슴뜨거운 날이다.

모란봉의 울창한 송림에서 풍기는 싱그러운 솔향기가 그윽히 감도는 이 아침, 우리는 숭엄한 마음을 안고 개신문앞에 서있다.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고 영영 사라져가던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 재생의 환희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전하며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거연히 서있는 력사의 기념비-개신문.

개신문에 새겨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한자한자 되새기며 개신문을 지나 만수대언덕으로 뻗어오른 길을 바라보느라니 항일전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 헤치신 풍상고초가 가슴뜨겁게 어려와 우리의 가슴 솟구치는 걱정으로 후덥게 달아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80성상에 이르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갈피갈피가 전설적인 이야기로 엮여지고있으며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고귀한 빛을 뿌릴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나라찾을 굳은 결심 품으시고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시던 그날로부터 장장 스무해, 오로지 백척간두에 놓인 조국과 민족, 겨레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이 겹쌓인 길을 헤쳐 오신 우리 수령님.

그 길에는 아버님이 넘겨주신 유산을 가슴에 새겨안으시고 걸으시던 화전의 언덕길도 있었고 병환으로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시던 남만원정의 길도 있었으며 어머니의 묘소앞에서 눈물흘리는 동생들과 작별하시던 가슴아픈 길도 있었다. 또 동지 한명을 얻기 위해 걸으시던 수백리 밤길도 있었고 사랑하시는 전사를 잃은 뼈를 짚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누르시며 반일부대를 찾아가시던 길도 있었으며 굶주림과 싸우고 살을 에이는 혹한을 이겨내며 키를 넘는 장설을 자욱자욱 피로써 헤쳐야만 했던 눈보라 사나운 고난의 행군길도 그 길우에 있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 조국해방을 위한 그 길에서 겪으신 고생, 바치신 로고 우리 어이 다 말할수 있

으랴.

몇알의 통강냉이, 한홉의 미시가루와 한장의 모포로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시고 정신마저 흐려드는 고열속에서도 노래를 지어 부르시며 대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던 우리 수령님.

우등불가에서 조국진군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찬이슬 내리는 밀림의 긴긴밤을 지새우시고 수십수백배의 대군의 포위속에 든 엄혹한 정황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난국을 타개해나가신 우리 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장백의 험산준령을 넘고 헤치시며 백두산 줄기줄기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고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혈전의 자욱을 남기시며 겪으신 간난신고, 그 길에 깃든 가슴아픈 사연을 만주별 눈바람인들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며 밀림의 긴긴밤인들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걸음걸음 피로써 헤쳐오신 혈전만리,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길이였거늘.

그 길에 깃든 사연을 오늘도 전하며 솟아있는 개신문.

세상에는 력사에 남긴 위인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들이 많지만 여기 개신문처럼 수많은 사연을 안고 서있는 기념비가 또 어디 있으랴.

우려해보면 개선의 단상에 높이 서시여 조국인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던 만고의 위인, 전설적 영웅, 백두산청년장군의 릉름하신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고 귀기울이면 력사의 그날 조국강산에 메아리치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 귀전에 들려오는듯하다.

아 개신문, 력사의 기념비여...

개신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이 땅에 조국해방의 새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사적을 길이 전하러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개신문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위치선정과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다.

창작가들이 개신문의 위치를 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을 때에는 개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신문건설을 하신 모란봉경기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앞에 세워야 한다고 일깨워주시고 무려 50여차에 걸쳐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개신문을 세상에서 제일 높고 크면서도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려 웅장하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개선편의 기본주제로 정해주시고 모든 형상요소들이 이 기본주제에 잘 복종되도록 형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편을 길이 전하려는 개선편의 주제사상을 명백히 밝힐수 있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참으로 저 개선편의 규모와 형식, 기본주제 지어 자그마한 돌조각 하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가 미치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는것이다.

모란봉우에 솟아오른 아침해빛으로 금빛노을속에 싸여 우뚝하니 떠오르는듯하여 더더욱 웅장해보이는 개선편.

개선편의 아치문으로 바라보이는 만수대언덕.

어버이수령님 내 나라, 내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가리키시는 만수대언덕.

그 언덕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더욱 뜨거워진

다.

개선편을 지나 끝없이 뻗어간 길.

이 길은 우리 수령님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 세월의 풍상고초를 달게 여기시며 한평생 걸어오신 그 길이며 오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쉬임없이 걷고계시는 그 길이다.

어버이수령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길, 경애하는 장군님 진두에 서시여 이끄시는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일편단심 변함없이 가고갈것이다.

그 어떤 시련의 광풍이 불어온대도 영원히 변함없이...

본사기자

들국화

리광규

세상에 고운 꽃 많고 많아도
그 많은 꽃들중에
수령님동상앞에
오늘은 한뫼음의 들국화를 안고왔습니다

수령님 잘 아시는 꽃입니다
늘 들길우에서 새벽을 맞으시고
들길우에서 저녁달 맞으시던
수령님 한생에 인연깊은 꽃입니다

논머리에 계시는 수령님 모습도
제먼저 뵈웠다고
다락발을 오르시던 수령님 모습도
제 선참 뵈웠다고
소담소담 피여 웃던 꽃입니다

한생 농사짓는 우리도 스쳐보낸
그 한대의 돌피도 다 가려보시며
수령님 그러도 밝으시던 눈
그 눈에 안경을 끼시고
이삭의 벼알들을 세여가실 때

꽃잎에 맺히던 그것은
방울방울
인민의 아릿한 그 마음에 맺히는
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까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한생을 인민위해 걸으신
수령님의 그 길우에
언제나 피여 웃던
들국화

이 나라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들이
이름없는 산기슭에, 들가에
소문없이 피여난 들국화에 비껴
수령님 걸으신 그 자욱우에
오늘도 피고피는 꽃입니다

아, 들국화를 안고왔습니다
송이송이 곱게 피는 그 모습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신
수령님 걸어오신 그 길
그 자욱을 그려보시라고
그 자욱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욱도 그려보시라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분으로 받들고 피고 피여나는
우리 인민의 그 마음도
함께 보시라고
아 만수대 높은 언덕우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앞에
우리 마음 들국화를 정히 놓습니다



뜻밖에 받아안은 생일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주체83(1994)년, 어버이수령님과의 영결식이 비통한 슬픔속에 거행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이 떠나려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받고 그길로 대양과 대륙을 건너 조국을 찾아왔던 그였다.

1920년대 길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드린 손정도목사의 막내아들인 손원태선생은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받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전에 헤어졌던 그를 자주 조국에 불러주시고 오랜 시간 회포를 나누곤하시였고 멀지 않아 그가 생일 80돛을 맞게 된다는것을 아시고는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겠으니 생일 80돛을 조국에 와서 쇠라고 뜨겁게 말씀도 하시였었다.

이제 며칠 안있으면 손원태선생의 생일 80돛이 되는 날이 될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손원태선생을 극진히 사랑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떠오르시여 눈물이 앞서는것을 어찌지 못하시였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차마 손원태선생을 그냥 돌아가게 할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한지 며칠밖에 안되였지만 손원태선생의 80돛 생일을 차려주는것은 자신께서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리라고 생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손원태선생을 조국에 며칠간 더 머물게 하였다가 생일날인 8월 11일에 80돛 생일상을 크게 차려주자고, 미국에 있는 아들딸들과 다른 나라에 널려있는 친지들도 초청해 오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래야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시며 생일상을 잘 차려주자고 거듭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손원태선생은 은정어린 80돛 생일상과 함께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선물을 가슴 가득 받아안았다.

엄청난 국상을 당한 가슴터지는 슬픔속에서 생일상을 차린다는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연고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의리심은 자신이 당하신 크나큰 상실의 아픔은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시고 멀리 타향에서 찾아온 한 해외교포의 생일까지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을 낳았다.

명언해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

김정일

민족대단결을 대하는 태도에서 애국자와 매국노가 갈라지게 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민족대단결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이며 조국통일과정은 민족의 대단결이 이룩되는 과정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그 어디서 살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가 저애하는가 하는것은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조선민족으로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며 분렬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다.

눈비오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진명

눈비오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더 자주 찾아오르자
천리수해 물결쳐 설레이는
백두산
붉은기의 고향

속영지의 모닥불가
투사들결에 마음의 잡자리 정하고
밀영의 한밤을 지새우노라면
다시 보게 되리라
불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오늘을 그려보며 웃던 그 밝은 얼굴을

잠시 개울가의 작식터에
걸음 멈추면
다시 듣게 되리라
끓는 가마에 넣을것은
산나물뿐이여도

녀대원들이 활기차게 울리던
그날의 칼도마소리
간고했던 30년대의 노래

걸음도 심장의 고통도
투사들과 같이하느라면
두고온 집
두고온 일터에서
너무도 가볍게 울리군하던
그 고난이란 말을 두고
스스로 얼굴 붉어지나니

동무여 우리 그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살자
그러면 혁명의 1세들을 우리 돌우어보듯
바로 그렇게 후대들도
우리를 백두산 후손들이라고
존대해 부르게 되리라!

삶의 시작도 끝도

최인덕

남아 키워준

애틀한 그 인정미가 그리워

때없이 찾는 걸음이라면

벌써 화강석묘비는

눈물에 젖어 이끼 덮였으리

살아온 나이보다

살 나이 더 많은 앞날을 두고 떠난

그 삶이 애달파 찾는다면

안고온 싱싱한 꽃들은

빛을 잃고 향기를 거두었으리

부모이기전에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형제이기전에 혁명동지의 의리로 산

애국렬사들의 혈육들만이 여기 왔다더냐

아니여라

혁명에 끝없이 충신했던 그들이기에

량심이 가르치고 의리가 떠밀어주는 여기로

찾아오는 발걸음 끝없나니

불러보는 이름들에

시대가 비껴있고

새겨보는 얼굴마다

사랑과 믿음의 력사가 안겨와

붓으로 그리면 눈비에 씻길세라

천연돌에 새겨준 영생의 모습이어

추억깊은 이름이다

참된 삶의 광명을 찾아

곡절많은 인생길 수억만리 에돌아온 사람들

애국지사... 민주인사... 종교인...

단두대우에서도 조국통일 만세를 부르며 간

남조선혁명가... 해외동포...

활기넘친 모습으로 여기 있고

충성의 별무리마냥

세월의 하늘가에 빛나는 이름들이다

결사옹위의 심장으로 불타던 모습들이다

주체혁명위업 완성위해 한몸바친

충신의 당일군... 군사지휘관...

혁명시인... 순직한 인민배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 운명

이 하나의 진리로 살아왔기에

삶의 시작과 끝은 서로 달라도

애국렬사릉 여기서 영생의 첫자욱 내딛나니

바라보면 불수록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그대들의 모습은

우리 장군님 손수 놓아주신

강성대국의 천년초석인듯

강성대국의 억년기둥인듯!

열정넘친 모습...

신념으로 넓어진 어깨...

탐구와 예지로 빛나는 눈빛...

새 전투임무 받고저

대오를 정돈한 충신의 대오여

이제라도 경애하는 장군님 명령 내리시면

어제날처럼 대오를 이끌고

물속천리 불속만리라도 웃으며 달려갈

그들의 모습앞에서

빛나게 살 우리 맹세 다지나니

애국렬사릉!

여기엔 묘비아래 안식하는 영혼도 없다

여기, 오직 여기엔 애민 애족 애국의

신념넘친 발걸음 불같은 맹세

삶을 빛내일 굳센 각오와

폭풍같은 혁명의 숨결뿐!

오! 혁명선배에 대한 존대가

도덕과 의리가 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전통이 된

경애하는 장군님 품속에선

태어난 날처럼 소중한

영생이 시작되는 날만이 있어라

유쾌한 낚시군

전흥식

접선장소에는 벌써 사람이 와있었다. 떼몰이군의 차림새를 한 어깨가 실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물우에 낚시대를 드리운채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낚시줄을 받아문 수면은 기름을 바른것처럼 번들거렸다. 그우에서 한여름의 햇빛이 소리없이 뛰놀고있었다. 주위는 조용하다. 워낙 장진강하구의 이 물굽이는 인적이란 별로 미치지 않는 호젓한 곳이기도 하였다.

순임은 다시 한번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늘씬한 키에 흰저고리를 감장치마와 조화롭게 맞춰입고 신식류행을 따라 시원하게 중발머리를 한 그의 눈길은 사뭇 예리했다. 여전히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

그는 조심조심 버들숲을 헤집으며 낚시군을 향해 걸어갔다. 저 낚시군이 자기의 접선상대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접선자가 아닌 딴 사람이 바로 이 시각 이 장소에 저렇게 나타날리는 만무하다. 그는 여기서 접선자와 만난 다음 함께 지하조직으로부터 받은 특별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순임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낚시군이 젊은 사람이라는데 생각이 미친 까닭이다. 이쪽을 등지고있어 모색은 가려볼수 없었으나 아주 젊은 사람이라는데를 알수 있었다. 예견했던바와는 너무 달랐다. 그가 상상해온 접선자는 높은 지성과 로숙한 경험을 가진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번의 특별과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할것이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과업이었다.

지금 신갈과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은 간삼봉전투의 승리소식을 접한 크나큰 환희를 안고 대규모적인 원군활동을 준비하고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원군활동으로만 그치는 일도 아니였다. 지하조직성원들은 원군물자를 마련하여 비밀리에 강건너집결장소까지 운반해놓은 다음 곧장 간삼봉으로 가게 된다. 반나절이면 가닿을수 있는 간삼봉으로 가서 전대미문의 대섬멸전이 벌어졌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전설적인 김일성장군님의 신출귀몰한 지략을 더욱 깊이 알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희한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을 밀고나가자면 반드시 시끄러운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다. 장애물이란 다름아닌 신갈과경찰서의 고등계형사 다나까놈이었다. 그놈이 지하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무슨 낚새를 했는지 요즘 집요하게 뒤를 파고들었다. 그래서 일부 하부조

직들에서는 활동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는 형편이었다. 바로 이 다나까놈을 처리하는것이 순임이 네가 받은 특별과업이었다. 그것은 매우 까다롭고도 어려운 공작이었다. 다나까는 손쉽게 처단해버릴수도 없는놈이었다. 놈들을 놀래울수 있기때문이었다. 그놈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면서 단단히 거머쥐는 재주를 부려야 했다. 말하자면 그놈을 눈쁜 소경으로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과연 저 사람이 다나까를 눈쁜 소경으로 만들만한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있을까? 순임은 접선상대의 젊은 나이뿐아니라 떼몰이군의 옷주제도 마음에 안들었다. 다나까와 대적하자면 어느모로 보나 그놈은 누를만한 인격부터 갖춰져있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공작의 주역을 저런 사람이 맡게 된다니 어떤지 미타한 생각만 자꾸 들었다.

문득 어제저녁에 파업을 주던 조직책임자의 말이 생각났다.

《동무와 손잡게 될 사람은 특수회원이요. 우린 앞으로 그와의 련계를 오직 동무를 통해서만 가지자구 하오. 그래서 이번 공작에두 동무를 인입시켰으니 잘 합심해서 일을 성사시켜주오.》

어쨌든 만나보자고 순임은 용단을 내려 다시 발걸음을 떼었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될것이다. 한 번보고 사람을 속단하는것은 옳은 행실이 못된다. 공작을 마친 뒤에도 자주 손잡고 일하게 될 저 사람이 혹시 옛이야기에 나오는 정체를 숨긴 왕자같은 사람일지 어떻게 알랴.

낚시군이 발자국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었다.

《누굴 찻소?》

《어마나!》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 친 순간 순임은 놀랐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마냥 꼼짝 못하고 굳어진 채 낚시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감때 사나운 눈길, 우악스런 코마루, 한쪽 볼편에 아물지 못한 허물자리... 첫눈에도 매우 험상궂은 인상만 던져주는 낚시군은 접선자가 아니라 이 고장에서 으뜸가는 술망나니로 이름날리는 불량배였다. 낚시질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어쩌나 마구잡이인지 못사람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지어는 경찰놈들까지도 먼저 피한다고 했다.

며칠전 순임이도 이 사람한테서 큰 봉변을 당했었다. 접선장소에서 이런 인물과 맞닥들고보니 순

임은 마치 심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것 같았다.

《아, 난 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줄 알았더니 아가씨로구만요.》 그 사람은 벌쭉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 마디부터 비꼬아대는 꼴이 분명 심심풀이를 할 놀이감을 발견한 불량배의 교악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놓은듯 하였다.

《어떻게 왔소? 물고기를 주문하려고?...》

《...》

《참 이번엔 미안하게 됐소. 내가 취한김에 사람을 헛갈려서 큰 실수를 했더구만. 사실은 그래서 아가씨를 찾아가 사죄한다는게 그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순임의 입에서는 총알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그도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해졌다.

《난 어떠한 사죄도 바라지 않아요.》

《대단히 노했군.》

그는 픽 웃었다.

《그렇지만 잘못을 비는 사람한테 너무하지 않소? 하여튼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구 용서해주오. 난...》

《흥!》

순임은 찬바람을 일쿠며 핵 돌아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도고하게 쳐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용서라고? 그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가 아니라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싶었다.

《그대로는 못가요.》

그가 어느새 앞을 막으며 떡 버티고섰다.

《용서해주겠다는 대답을 받기전엔 놔주지 않겠소.》

로골적인 생억지였다.

순임은 더럭 겁이 났다. 앞을 막아선 그가 큰 산줄기로 느껴졌다. 이런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짓이든 가리지 않는 법이다. 사죄요 용서요 하는 따위의 말들은 조금도 받을만한것이 못된다.

하지만 순임이도 담차게 맞섰다.

《난 그런말을 할줄 몰라요.》

순임은 그한테 겁내는 기색을 내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워낙 고려의사의 외동딸로서 흠잡을데 없는 미모와 녀고의 졸업생이라는 만만치 않은 학력까지 겸비하고있는 순임이어서 자존심도 여간 아니었다.

그는 남한테 빌붙거나 굽신거리는것을 가장 큰 수처로 여겼던것이다.

《어서 비켜달라요.》

《배짱이 마음에 드는군.》

그의 입에서도 탄성이 울려나왔다.

《용서는 안해주겠다-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의 얼굴에도 불만이 그려졌으나 순순히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었다.

《좋소, 길을 내주지. 대신 한가지 부탁만은 들어

줘야겠소.》

순임은 초조와 긴장감을 누를길 없었다.

산삼 아니면 이편에서 도리어 생트집을 걸면서 놈들과 맞서볼가? 순임의 생각은 출로를 찾아 맹렬히 줄달음쳤다.

이때였다. 웬 사람이 우악스런 손으로 순임의 어깨를 와락 거머잡았다. 지독한 술냄새를 풍기었다.

《야, 너 강건너루 도망치자구?- 안돼! 나하구 같이 살기루 언약한 이상 넌 절대루...》

《이걸 봐요!》

순임은 취해서 분명 사람을 헛갈린 주정뱅이를 콧 밀쳐버렸다.

《누구한테 주정질이예요?》

《뭐어? ... 주정질? 야하 요것봐라.》

주정뱅이는 비칠거리면서도 우스워 죽겠다는듯 손가락으로 찌를듯이 순임이의 눈을 겨누더니 불이 번쩍나게 뺨을 후려갈겼다. 어찌나 손탁이 썰던지 순임은 하마트면 불성없이 나동그라질뻔했다.

주정뱅이가 그를 향해 호통질을 했다.

《내 버릇을 떼줄테다. 제 서방님 될 사람을 보구 뭐가 어찌구 어찌?...》

《이 술망나니같은...》

순임은 얼얼한 뺨을 싸친채 주정뱅이를 쏘아보았다. 분노가 온몸에 불달린 화약처럼 타번지였다. 아직 누구도 이렇게 그를 모욕해본적이 없었다. 그는 역대우같은 주정뱅이의 큰 주먹에 또 얻어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마주 다가섰다.

《어디 또 때려봐라!》

《히야, 요게 참...》

주정뱅이는 실눈을 지으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훌쩍 집어삼켜도 비린내조차 나지 않을것이 딱딱 맞선다는 야료였다.

경찰놈 하나가 그들한테로 다가왔다.

《무슨짓인가, 술을 마시구서...》

《영?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난 전내비새끼야.》

주정뱅이는 번개같이 이마뺨으로 경찰놈을 받아넘겼다. 경찰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경찰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고함소리, 치고받는소리, 비명소리... 나루터는 금시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얼마후 모두매를 맞아 만신창이 된 주정뱅이는 피를 흘리며 경찰놈들한테 질질 끌려갔다. 이 소란통에 맥이 진해버렸는지 놈들도 검색을 대강대강 굶뻐버렸다. 무사히 나무배를 탄 순임은 자기가 봉변을 당한 일조차 다행으로 여기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의 주정뱅이가 지금 접선암호의 한 끄트머리를 내비치고있는것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접선암호를 알수 없다. 만약

이 사람이 접선암호를 알고있다면 그것은 벌써 비상사고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따져물었다.

《사겠소? 안사겠소?》

《싫어요. 다섯뿌리쯤 된다면 또 몰라두 그까짓 세뿌린...》

순임은 저도 모르게 접선암호의 다음 구절을 말해버렸다. 그리고는 잘끈 혀를 깨물었다. 함부로 그렇게는 말할것이 아니였기때문이다.

《다섯뿌리라...》

상대방이 제격 받아물었다.

《욕심두 대단하군! 하지만 그것두 열뿌리의 절반밖에 안되니까 별루 대단한것두 못되지.》

《아니?!...》

순임은 뻥해졌다. 상대방의 말은 접선암호의 다음 대답이었다. 다섯뿌리! 열뿌리! 결국 접선암호는 정확히 교환된셈이다. 이 사람이 접선자라는것을 부인할수 없었다. 하지만 순임은 도저히 그것을 믿을수 없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지하조직과 결부시켜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흥,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게로군.》

접선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 너무 코대를 높이치 마오. 혁명은 뭐 아가씨 같은 사람만 하는것인줄 아시오? 아무튼 같이 의논해봅시다. 다나까한테 어떤 미끼를 던져줘야 하겠는지...》

그를 더 의심할 건덕지는 없었다. 접선암호뿐아니라 다나까와 공작하게 된 사실까지 죄다 알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실망이 먹구름처럼 순임을 휩싸버렸다. 하늘처럼 밋었던 접선자가 이런 사람이고 보니 이야기를 나눌 의욕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아가씨 아마 나하구 손잡게 된걸 몹시 꺼리는것 같은데...》

접선자는 그의 속내를 환히 들여다본듯 빈정거렸다.

《글쎄 이 낚시군 김창하가 술을 좋아하는것만은 사실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구 또 요전날 아가씨를 노엽히기두 했구... 하지만 어찌겠소? 싫어두 이젠 별수 없이 합심을 해서 다나까의 덫미를 잡는수밖에...》

그 말만은 옳았다. 아무리 상대하기 불쾌하다해도 이 사람을 뿌리칠 리유는 서지 않는다. 억지로나마 함께 일을 성사시키는것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다.

《내가 무얼 해야 돼요?》

《뭐 좋은 수를 생각해낸건 없소?》

《없어요. 난 그저...》

《그건 참 유감이군. 난 그래두 아가씨라면 뽕죽한 궁리를 다섯가지쯤은 가지구 왔을줄 알았는

데...》

《거기선 뽕죽한 궁리를 몇가지나 가지구 왔어요?》

순임은 되려 눈총을 쏘았다. 말끝마다 빈정대는 상대의 언행에 더는 참을수 없었다.

《나말이요? 이크, 몰렸군!》

김창하라 부르는 낚시군은 얼른 놓아두었던 낚시대를 잡아 올리채였다. 물속에서 하얀 물고기가 반공을 그리며 떠오르더니 순임이의 발치에 철썩 떨어졌다. 팔뚝만큼 크고 실한 물고기였다. 물고기가 이 고장의 명산물로 이름난 은빛 사루기였다.

낚시군은 푸들쩍거리는 물고기를 움켜잡고 낚시를 빼내더니 흡족한 얼굴로 물속에다 담그어두었던그물망태를 꺼내었다. 그물망태안에는 어느새 잡아넣었는지 물고기들이 옥실거리고있었다. 그는 물고기를 그물망태안에다 던져넣고는 다시 새 미끼를 낚시에 꿰기 시작했다.

《난 말이요, 이결루 해보자는 생각이요.》

그는 미끼를 켜 낚시를 순임에게 쳐들어보이며 빙긋 웃었다.

《이 김창하한테서야 낚시질밖에 뭐가 또 볼게 있겠소? 이거면 뭐든지 다 할수 있소. 사루기두 낚아내구 다나까두 낚아내구... 또 알겠소? 하늘의 선녀두 낚아낼지...》

뻥뻥스럼기란! 순임은 마지막말이 도대체 누구를 빗대두고 하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난 그런 말이나 듣자구 온게 아니예요. 필요없다면 난 돌아가겠어요.》

《원, 무슨 말을 그렇게... 아가씨가 돌아가면 일은 다 망칠텐데...》

《난 아가씨가 아니예요. 그러구 우린 말장난을 하기보다 시간을 아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웁은 충고요. 순임동무.》

낚시군은 배포유하게 낚시를 물우에 던지였다.

그는 이미 순임이의 이름까지 다 알고있었다.

《서둘러봅시다. 우리 일이야 빠를수록 좋은건데... 먼저 아가씨 아니 순임동문 집에 좀 다녀와야겠소. 어죽두 쭈구 생선회랑 치자면 아무래두 순임동무가 그 준비를 좀 해줘야겠소. 술은 두어되가량이면 될거구...》

《여기다 술상을 차려놓자는거예요?》

순임은 그의 잡도리가 수상쩍기 그지없었다. 어죽이요, 술이요 하면서 무얼 어찌자는 속심인가. 순임의 눈앞으로는 술을 퍼마시고는 분별없이 마구 날뛰던 그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안돼요. 술놀이만은 절대로...》

《흠, 첫발자국부터 의견불일치로군. 재미가 적은데...》

그는 또 쓴웃음을 지었다.

《안됐소만 술은 꼭 있어야 하오.》

다나까와의 공작은 좋건싫건 그놈한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술은 없어서는 안될 교제 수단이다. 더우기 그는 벌써 다나까님을 천렵놀이 에 초청까지 했다는것이다.

《벌써 초청까지 했단말이에요요?》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소?》

《이런 일이야 서로 의논해보구 결심하는것이 옳지 않아요?》

순임은 사전에 아무 의논도 없이 엄청난 일을 펴놓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이였다. 다나까는 바늘로 찌를 틈도 없는놈이다. 그놈이 과연 천렵놀이라는 보잘것없는 미끼를 쉽사리 받아물겠는가.

《저 너무 섭섭해하진 마오.》

그는 천렵놀이라면 순임이도 대뜸 찬성할줄 알았노라며 능청을 부렸다. 그리고 인제는 이미 엽질러놓은 물이니만큼 합심해서 한번 내밀어보자고 구슬려댔다. 속이 엉클한 능구렁이였다.

《난 몰라요. 저 혼자서 시작한 일이니 혼자서 다해보라요.》

순임은 꽤 쏘아붙이고나서 성급한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하지만 울분으로 속이 앙양해진 그는 정작집으로 돌아가서는 낚시군의 당부대로 천렵놀이 준비를 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무리 마음싸지 않는 일이라 해도 자존심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놓쳐버릴수는 없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술이며 여러가지 그릇파위와 조미료들 그리고 술방구리까지 다 꾸려들고 다시 강변으로 찾아갔다.

《아, 수골했소다.》

김창하는 순임이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 이거 굉장하구만!》

그는 보자기에 싸들고 온 소랭이안을 들여다보고 또다시 환성을 올렸다. 다나까의 미끼감으로는 너무 과남하다는 칭찬이였다.

《그럼 시작해볼가?》

강기슭에는 벌써 돌가마를 걸 자리도 마련되고 마른 삭정이들도 무뚝히 쌓여있었다.

김창하는 천렵놀이판을 만드느라 분주랑을 피우며 돌아쳤다. 물고기뱃을 따고 돌가마에 불을 지피고 생선회를 치고... 어디서 배운 재간인지 작식 솜씨도 이만저만 아니였다. 그는 쉼새없이 익살을 부리다못해 코노래를 흥얼거렸다.

순임은 곁에서 일을 거들어주었으나 표정만은 내내 쌀쌀한 그대로였다. 김창하와 같은 사람과 문문하게 놀다가는 어느새 손아귀에 걸려들어 꼭두각시놀음을 할지 모르기때문이였다. 그는 오직 이 천렵놀음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몰라 내내 속을 태웠을뿐이였다.

다나까는 맞춤형 때에 나타났다. 사복을 한 몸

집은 체소하고 갱뽕하게 여윈 얼굴에다 안경을 낀 마흔살 남짓한놈이였다.

《아 경치가 좋구만!》

조선말도 토배기처럼 류창했다. 그놈은 순임이를 보고서도 제법 알은체를 했다.

《최의원의 따님을 여기서 보게 되니 더 반갑소.》

《형사님이 저를 어떻게...》

《허 나두 인젠 이고장 토배기나 같은데 왜 아가씨를 모르겠소?》

다나까는 안경알속에서 삶의 웃음을 지었다.

《단지 창하군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줄은 몰랐구만.》

《아, 형사님, 그것만은 모르는척 하십시오.》

김창하가 끼어들며 너스레를 피웠다.

《실은 어렸을 때 부친님들 사이에 우리 두사람을 두고 범상치 않은 약조가 있었는데... 정작 오늘 와선 내가 빈털털이 외토리라구 그러는지 저집에서 어찌나 타발이 심한지...》

순임에게는 그야말로 생벼락이였다. 그는 얼굴만이 아닌 온몸에 불길을 뒤집어쓰는것만 같았다. 김창하가 이렇듯 지기를 궁지에 몰아넣을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창하는 천연스럽게 제잡담그냥 엮어댔다.

《하지만 난 실망하진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학교공부를 좀 못했지만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배운걸 밀천삼아 중학교의 자습독본을 떼구 또 형사님의 도움으로 순사시험까지 치르면...》

《아, 알만하오. 사실대로 말한다면야 아들두 없는 최의원한테 창하군과 같은 사위감이 제격이지.》

《그러게말입니다. 자, 어서 가십시오.》

김창하는 실실이 드리운 아름답리 버드나무밑으로 다나까를 이끌어갔다. 거기에 음식그릇이 주련이 챙겨져있었다.

이어 버들그늘밑에서는 어느새 주연이 벌어졌다. 먹고 마실것들은 풍족했다. 술도 독한것이였고 김창하가 어떻게 조화를 부렸는지 어죽이나 생선회도 별맛이라 할수 있었다.

순임은 수치감으로 온몸을 불태우면서도 어쩔수없이 다나까에게 술까지 부어주는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기의 인격에 마구 흠타를 한 김창하와는 따로 결산할 작정이였다.

《아, 참 좋구만. 아가씨의 음식솜씨가 놀랍거든.》

다나까는 연신 침발린 소리를 되풀이하며 굶주렸던 이리처럼 술과 안주에 달라붙었다. 공짜를 먹어대는데 이끌이 난 놈이여서 아무 꺼리낌없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곁에서 김창

하가 그 짚 돌아가는 허바닥으로 놈의 거드름에 기를 쳐주며 성수를 냈다.

《저, 형사님, 오늘은 좀 시원한 대답을 주십시오. 순사시험말입니다. 이 순임이두 그래서 데리구 왔는데...》

《순사시험말이지?》

《예. 이거 경관복을 빨리 입구 칼을 차야 코대높은 장인령감앞에 척 나서보겠는데...》

《괜찮아!》

다나카는 김창하의 어깨를 철썩 때렸다.

《좋아, 창하군같은 사람이면 내 발벗구나서주지.》

《인차 되겠습지요?》

《걱정말래두. 대신 값은 단단히 물어야 돼.》

다나카는 호기있게 장담했다. 아마 순사시험이라는 울가미로 이 만만치 않은 젊은이를 엮어매놓고 제놈의 심복자로 만들자는 속심인지도 몰랐다.

김창하도 세상의 소원이나 성취한 사람모양 희색이 만면하여 놈에게 연신 술잔을 안기었다.

《형사님이 절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자리가 별루 뜻이 있어보이구... 그래서 전 형사님을 진짜배기 천렵놀이에 한번 더 모셨으면 합니다.》

《진짜배기 천렵?...》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가면 가마소란 큰 물굽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만큼 큰 자치란놈이 웅크리고있지요.》

김창하는 정장이라고도 부르는 자치란 물고기는 생김새도 날씬해서 보기에다 좋지만 고기맛이 유별하다고 떠들어댔다. 사투기도 이고장의 명물이지만자치에 비기면 발치에도 못간다고 했다.

《형사님, 우리 그걸 한번 건져보질 않겠습니까?》

《자치라- 말은 더러 듣긴 했어두 아직 구경해본 적은 없소.》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저 남포심지 두어방만 짱 하면 됩니다.》

김창하는 다나카더러 남포심지나 두어개 구해달라고 은근히 청했다.

다나카도 자못 호기심이 동하는 모양이었다.

《남포심지야 구할수 있지.》

《됐습니다. 그때 가선... 앗!》

별안간 김창하는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두눈을 홑떴다. 그는 머리우를 손짓하며 사레들린 사람처럼 외마디소리만을 내질렀다.

《저 저기... 저...》

《악!...》

무심히 그의 손길을 쫓아 고개를 쳐들던 순임이도 까무라칠것처럼 놀라서 뒤로 물러앉았다. 그들의 머리우에는 실실이 드리운 버드나무가지를 타고

내려온 뱀 한마리가 매달려있었다. 커다란 독사였다. 몸뚱이로 버들가지들을 칭칭 휘감은채 한뼘이나 되는 독사는 상체를 뻗뻗이 뻗쳐들고 술판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뱀도 술을 좋아한다더니 나무우로 기여올랐던 독사가 독한 소주냄새에 끌리어 찾아온 것 같았다.

김창하가 뛰쳐일어나 뭉둥이를 찾았다.

《가만!》

다나카가 그를 제지시켰다. 뱀을 보고도 태연히 앉아있는것은 그놈뿐이었다.

《덤비질 마오.》

다나카는 가볍게 일어나 뱀한테로 다가갔다. 잠시동안 뱀과 다나카가 서로 마주 노려보는것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순임에게는 문득 다나카와 뱀이 신통히 쌍둥이같은 모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나카가 소리없이 팔을 내밀더니 뱀의 목줄기를꼬집어 틀어잡았다. 뱀의 몸뚱이가 어느새 나무가지에서 풀리어 다나카의 팔을 휘감으며 꿈틀거렸다. 다나카의 입가에서는 싸늘한 웃음이 떠올랐다.

역시 저놈은 독종이구나! 뱀보다 더한 독종이다!순임은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것만 같은 자신을 지탱하며 다나카를 지켜보았다.

다나카는 어렵지 않게 손톱으로 뱀의 목줄기를 끊어버리고는 껍질을 쭉 벗기었다. 뱀의 내장이 모조리 껍질에 붙어나오고 허연 살고기만 남았다. 다나카는 내장이 달린 껍질과 대가리를 멀찍이 내던지고 살고기만을 손에 들었다. 살고기는 여전히 꿈틀거리며 다나카의 손목을 휘감고있었다.

《독뱀치구 이렇게 큰놈은 흔치 않소.》

다나카는 만족스런 웃음을 지었다.

《오늘의 천렵은 이것으로 극치를 이룬셈이요.》

그놈은 초간장을 찾았다. 초간장에 꿈틀거리는 뱀고기를 꺾 찍어내서는 와작와작 깨물어먹기 시작했다.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야인의 모습이였다.

《창하군도 맛보겠소?》

《아니, 아니 난...》

김창하가 두손을 내저으며 몸서리를 쳤다.

다나카는 통쾌하게 웃으며 더욱 신바람나게 뱀고기를 깨물어댔다.

순임은 진저리를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야수이다. 잔인한 야수!

다나카는 술 두어잔에 뱀 한마리를 다 먹어치우고나서 손을 털며 일어났다.

《오늘 천렵은 아주 인상적이요.》

《아니, 왜 벌써...》

《난 갈 때가 됐소. 당신들이나 마음껏 즐기요. 창하군은 다섯잔밖에 안들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때에 일어서는것두 하나의례절이지. 아가씨두 대단히 고맙소.》

다나카는 손을 쳐들어보이고나서는 곳곳한 걸

음으로 걸어갔다. 술도 량껏 마시고 어죽과 생선회도 사양없이 먹어버린데다가 뱀까지 한마리 다 없애버린 다나까였지만 취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술로도 무엇으로도 절구어낼수 없는 놈이었다. 결국 일은 망쳐진것이나 다름없었다.

《허참, 그놈이 제법인데!》

한동안 다나까가 사라진쪽을 바라보던 김창하가 감탄하듯 고개를 저었다.

《형사로서 만점짜리요. 내가 다섯잔밖에 들지 않은것두 놓치지 않았거든. 내가 만약 천황폐하라면 저런놈은 업고다니겠소.》

《그래두 웃음이 나와요?》

순임은 발각 성을 냈다. 일을 다 망가쳐놓고도 그렇게 웃을 체면이 서는가 하는 편잔이었다.

김창하는 껄껄 웃었다. 일이 망쳐진것이 아니라 돌과구가 열렸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었다.

《그놈한테 더 바싹 다가붙을 건덕지가 생기지 않았소? 순사시험두 그렇구 또 차치두...》

《듣기 싫어요. 인젠 그런 소리가 막...》

《그럼 울상을 하구 한숨이나 지어보우. 그런걸 뭐 약한자의 구슬픈 노래라 하던가...》

김창하는 움쭉 일어나 나무그늘밑에 벌려놓았던 그릇들을 소랭이에다 담아들고 물가로 가더니 요란스레 씻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흥타령이 흘러나왔다.

흥, 흥, 다나까 이놈아 흥
오늘은 미끼를 삼켰으니 흥
래일은 내 손에 잡히리라 흥

정말 별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근심걱정이 존재한다는것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같았다. 오늘같은 경우 사람이란 의례히 심각히 반성도 해보고 교훈도 찾을줄 알아야 하겠으나 김창하는 그런데로 생각을 깊이 하고싶지 않는 모양이었다.

《제발 그러지 마오. 다나까가 뭐길래 그리두 속을 태우느냐말이요?》

《그 배심만은 참 부러워요. 하지만 일은 성사 못했는데 내 처지라는것두 한심하게 흠탕칠만 하게 됐으니 인젠...》

《아, 흠탕!...》

김창하는 벌쭉 웃었다.

《걱정마오. 이번 일을 끝내면 내 그 흠탕을 말끔히 지워버릴테니...》

순임은 혀를 깨물며 후회하였다.

《됐어요. 인제는...》

순임은 이제 곧 조직책임자를 찾아가 만날 의향을 내비쳤다. 다나까와의 공작이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결정적인 대책

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하의 두눈에는 장난기가 어려있다.

《굉장한 발견이긴 한데 동문 못같지요.》

《그건 왜요?》

《동무야 독이 오른 고추처럼 자존심이 시퍼런 사람인데 파업을 받은지 하루도 못가서 조직에 찾아가 우는 소릴 한다는건 너무도 낮이 깎이는 일이니까.》

그는 순임이가 조직책임자를 찾아가는 경우에도 다나까와의 공작을 자신만만하게 해제길 자기의 결심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고 오금을 박았다. 그때면 순임이의 면목이 서지 않을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고 했다. 심술궂은 빈정거림이었다. 순임이가 제일 아파하는데를 면바로 찌르는 말이었던 것이다.

순임은 무작정 반발해나섰다.

《어쨌든 가겠어요.》

《어서 가보우. 그럴만한 용기만 있다면야...》

김창하는 약을 올리듯 두눈을 껌쩍해보이며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하지요. 중요한건 마음을 폭 놓구 잠을 잘 자는지요. 혹시 멧진 꿈을 꿀지 알겠소?》

그는 래일아침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니 낚시대를 집어들고는 히히 걸어갔다. 간다는 인사조차 없이... 휘파람으로 불어대는 흥타령소리가 그와 함께 멀어져갔다.

순임은 한동안 망연히 서있었다. 그는 이 하루 동안 무슨 낮도깨비같은 사람의 희롱질에 말려들어 터무니없이 놀아댄것만 같이 느껴졌다. 일은 한발자국도 진척시키지 못하면서 자기가 김창하의 《약혼녀》처럼 된데다 다나까놈한테 술까지 부어준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다! 이대로는 가만있을수 없다. 조직책임자를 만나야 한다. 비록 낮이 깎이우는 일이라 해도 그런것을 따져볼 정황도 없지 않는가.

하지만 순임은 끝내 조직책임자를 찾아가지 못했다. 체면때문이 아니었다. 자기와 김창하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이 발목을 꼭 붙잡았던것이다. 순임은 지금 형편에서는 다나까와의 공작을 거의나 불가능한것으로 인정하고있었다. 다나까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로회한놈이었다. 그에 비해 자기는 물론 김창하의 능력이란 도무지 믿을만한것이 못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는 일처럼 회뻔게 으시대고있으니 야단이였다.

좀더 생각해보자. 좀더 ... 순임은 온밤 뜬눈으로 보내며 이번 공작의 열쇠를 찾느라 모대기였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애를 써봐야 열쇠는 찾아낼수 없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막막해졌다.

이튿날 순임은 분연히 집을 나섰다. 다시한번 김창하를 만나보고 확실한 방도가 나지 않는다면

단호한 결단을 내릴 잡도리였다.

《아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소?》

그를 만나자 김창하의 두눈이 떠곤해졌다.

《몹시 수척해졌구만.》

《...일은 어떻게 됐어요?》

순임은 쌀쌀히 물었다.

《공작을 내밀만한 실머리를 찾았는가말예요?》

《찾아내지 않구.》

김창하는 제격 말을 받았다.

《난 통꿈을 꾸었소. 낚시로 굉장한 통을 낚아냈는데 그게 바로 다나까더란 말이요.》

《또 통담만 할 작정이예요?》

《통담이라니?... 내 말을 들어보소. 난 다나까와는 숨박꼭질이나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소. 역시 간단치 않은놈이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히려 함정에 빠질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난 그놈을 경찰의 직무에서 해임시켜 섬나라의 제정으로 쫓아버리자는거요. 이게 통꿈이 아니고 뭐겠소?》

《그놈을 쫓아버린대구요?》

순임은 귀가 열리는것 같았다. 다나까를 해임시켜 쫓아버린다! 그야말로 기묘한 묘술이라 할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루...》

《어제 약속한대루 천렵놀이 다시 하기로.》

《뭐라구요?》

이 뻔뻔스러운 싱검둥이는 아직도 통담을 계속하고있는것이다. 자치를 잡아낸다는 천렵놀이에 다나까를 끌어들인들 무슨 신통한 수가 생기겠는가. 천렵놀이란 허망하기도 했지만 김창하가 여전히 중요한 공작을 아이들의 장난처럼 대하는것을 더는 참을수 없었다.

《동문 이번 공작에서 손을 떼는게 어때요?》

순임은 한껏 격해진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조직에는 내가 잘 이야기하겠어요.》

《거참, 고마운 소리군. 흠! ...》

김창하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인차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오. 큰 일거리를 앞에 놓구 서로 뿔을 세울내기를 해야 되겠소? 난 장난으로 천렵놀이 하자는게 아니요.》

그러고보면 김창하는 사나이다운 아량도 가진 사람같았다.

순임이가 모욕적인 말로 사정없이 면박을 주어도 내쳐 반죽종게 웃으며 다 받아들였다.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순임이도 더는 찬바람을 일कु을 없었다.

그는 한숨을 지으며 사정하듯 말했다.

《글쎄 자꾸 천렵놀이 다시 하자구 하는데 나로선 성공할 기대가 보이지 않아 찬성하지 못하겠어

요.》

《다나까는 이미 내 손안에서 놀고있소. 그놈은 새 천렵놀이에두 꼭 끼여들겠다는거요.》

순임은 말없이 한숨을 지었다. 가슴이 답답해났다.

한동안 눈웃음속에 순임을 지켜보던 김창하가 나직이 물었다.

《내 순임동무한테 꼭 해주고싶은 말이 있는데 일없을가?》

《무슨 말이에요?》

《에라. 말해주지. 죽기보다 더 입밖에 내비치긴 싫소만-》

김창하는 물가의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그는 물우에 시선을 던지었다. 눈가에 떠돌던 웃음대신 서글픈 그늘이 비끼었다. 그한테서 처음 보게 되는 낯빛이었다.

《13년전에 난 집과 온 식구를 몽땅 왜놈들한테 잃었소.》

그는 물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뜨적뜨적 말하였다.

《그래서 열한살밖에 안되던 나는 동냥질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소. 하루 한끼를 얻어먹으면 다행이구 때로는 며칠씩 꼬박 굶기두 했소. 그때 나한테 있는거란 눈물과 한숨뿐이였소. 아마 나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은 없을거요. 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흘리구 한숨을 지어봐야 내겐 변한 날이 없었소. 산다는게 그대루 고통이었다구 할가. 그걸 잠시나마 잊어버리려구 술을 퍼마시지 않으면 싸움판에 뛰어들기도 했소만 다 소용없었소. 눈물이나 한숨이란 사람을 나약하구 무뎡한 머저리로 만드는 법이요. 그 종착점은 절망이구... 나도 그걸 피할수 없었소. 허, 글쎄 이 체통이 커다란놈이 제 앞길을 열어볼 생각은 못하구 절망끝에 강물속으로 몸을 내던지구말았으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절구어진 김창하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장을 보았던거요.》

《아니, 그런 곡절이 있은줄은...》

순임은 놀라움과 련민을 금치 못하며 김창하를 바라보았다. 매사를 웃음과 통담으로만 대하던 김창하가 그토록 기구한 인생길을 밟아왔다는 사실을 선뜻 믿을수 없었다. 웃음으로 지내는 지금의 김창하와 얼마나 판이하게 대조되는 과거사인가. 김창하가 아닌 딴 사람이 나타난듯만싶었다.

《그담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긴...》

어둡게 흐려졌던 김창하의 두눈에서 다시 광채가일었다. 눈물많고 한숨많은 김창하는 그렇게 영영 사라지고 대신 웃음으로 사는 김창하가 다시 태어났다는것이다. 자기를 물속에서 건져준 귀인의 도움으로 밝은 빛을 보며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귀인이란 혁명조직이나 조직책임자라는것

은 짐작되고도 남았다.

《내가 말하자는건 순임동무두 제발 울상을 하거나 한숨 짓는 습관을 버려달라는거요. 그건 모든 일을 망쳐먹는 백해무익한 일이니까.》

순임은 말없이 눈길을 떨구었다. 김창하의 당부가 가슴에 맺히었다. 김창하의 기구했던 지난날의 뼈아픈 체험이 일깨워준 말이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문득 순임은 그토록 모진 수난을 헤쳐오다가 혁명의 품에 안긴 김창하가 어쩌서 나루터에서 본 것처럼 한심하기 그지없는 주정뱅이짓을 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이 박힌 술군의 타성이 가져다준 실수였을까? 속뜻이 깊은 충고를 주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는 사실은 잘 납득되지 않았다.

《그 말을 참고로 삼겠어요. 그런데 천렵놀이는 요?》

《해야지. 배심있게 웃으면서말이요.》

김창하는 이번 천렵놀이로 다나까와의 공작을 매듭짓자고 하였다. 기어코 천렵놀이를 하고야말겠다는 완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었다. 무엇인가 큰것을 노리고있음이 분명했다. 단순한 고집이나 끈덕진 성미만으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을 세울수는 없었다. 순임은 어떤 말로도 그의 결심을 돌려세우지 못하리라는것을 푹푹히 깨달았다.

《좋아요. 그럼 한번만 더 양보해보자요.》

《찬성이란 말이지? 아이쿠! 숨이 나가는구만. 난다나까를 돌려메치는것보다 순임동무한테 맞추기가 몇갑절 더 힘들어서...》

능청스러운 김창하의 앞에서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그의 익살과 통담이 새 천렵놀이에 대한 기대와 신심까지 가질수 있게 하였다.

사흘뒤 가마소의 기슭은 천렵놀이장으로 변해버렸다. 판을 크게 펼쳐놓은 천렵놀이였다. 사람들도 많았다. 김창하는 천렵이라면 쪽을 못쓰는 패거리들을 여럿이나 꼬드겨왔는데 거의나 친일의 경향을 가진 건달군들이었다.

돌가마를 걸어놓은 강기슭에는 떡과 국수 그리 고소고기와 같은것들을 가득 담은 소랭이들이 주련이 놓여있었다.

천렵군들은 아침부터 낚시질을 하거나 그물을 손질하며 다나까가 오기를 기다렸다. 다나까가 와야 남포질도 하며 본격적인 물고기잡이를 시작할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다나까는 약속된 시간이 퍼그나 지나도록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것은 순임이 몹시 초조케 하였다. 그놈이 종시 오지 않으면 어쩌랴싶었다.

《안심하오. 그놈이 괜히 몸값을 올려보느라 그러는거지 안오구는 못배길거요.》

김창하는 눈을 찡긍거리며 순임을 안심시켰다. 다나까가 이미 낚시를 덥석 받아물었으니 빠져나가

지는 못한다고 했다. 무엇이 그런 배심을 부리게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김창하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중낮이 지나자 강변의 숲사이로 얼찢거리는 다나까의 모습이 보이었다. 혼자도 아니고 경찰놈들을 두엇이나 꿈꾸니에 달고 왔다.

어느새 김창하가 달려가 놈들을 맞이했다.

《아이구, 형사님. 이거 사람을 좀 살피주십시오. 당장 숨이 질것 같은데...》

《숨이 지다니... 누가?》

다나까는 놀라서 다그쳐물으며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김창하가 능청을 뿌리며 떠들어댔다.

《누군 누구겠습니까? 이 김창하지요. 글썽 큰 자치를 잡는다고 술한 사람들을 데리구 왔는데 형사님이 오시지 않아 애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 그런가?》

다나까도 그제야 동료들을 돌아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랑해하라구. 우리야 늘 국사에 바쁜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두 창하군과 약속한 일이길래 겨우 짬을 냈단 말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남포심지는...》

《그걸 잊을리가 있소?》

다나까는 바지주머니에서 남포심지를 꺼내보이었다.

《세개면 되겠지?》

《예예? 세개씩이나...》

김창하는 입이 함박만큼 벌어지더니 두팔을 흔들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돌아갔다. 백년 묵은 자치를 건져내게 됐다며 곡마단의 인기배우를 찔쩍먹게잘도 놀아댔다. 가마소의 기슭은 온통 웃음판으로 변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나까가 순임이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긴한 비밀이나 대주듯 말했다.

《창하군이 팬찮소. 마음에 들거든.》

《네에?...》

《지금까진 좀 까리까리해서 종잡을수 없는 사람 같더니... 아, 달리 생각진 마오. 나야 직업이 형사가 아니요? 하지만 인젠...》

인제는 믿을만하다는것이다. 모름지기 다나까는 김창하의 두리에서 땀돌아치는 건달군들을 띄여 보고 굳이 믿을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는지 모른다.

순임이도 태연스레 말했다.

《그저 형사님이 잘 인도해주십시오. 자기두 형사님만 언덕같이 여기는 눈치이던데...》

《넘려마오. 창하군의 일은 내가 다 봐주겠소. 서장과 순사시험을 치르는 문제두 합의를 보았소.》

《고맙습니다.》

이제와서 순임은 김창하의 《약혼녀》처럼 된

것을 피할수 없었다. 하기에 다나까뿐아니라 이곳에 모여든 여러 건달군들의 의혹에 찬 눈길도 태연히 받아들일수 있었다.

이윽고 다나까와 경찰놈들까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섰다.

《형사님, 저겁니다. 저기에…》

김창하는 옷물이 소리없이 빙빙 돌아가는 가마소의 중심부를 가리키며 남포심지를 던지라고 설명했다.

《불을 달고 넷까지 센 다음…》

《다섯까지 세두 일없소.》

다나까는 자기가 더 잘 안다는듯 의기양양해서 성냥을 그어 남포심지에 불을 달았다. 폭약만은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터뜨릴 잡도리였다. 그놈은 침착하게 속셈을 하는듯하더니 폭약을 소용돌이치는 물속에다 던지였다.

요란한 폭음과 힘겨 물기둥이 높이 일떠섰다가 철썩 내려앉았다. 가마소의 근처는 매캐한 화약가스냄새로 가득찼다.

모두들 긴장해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떠내려간다!》

누구인가 급한 소리를 지르며 물속을 손짓했다. 《여기도 있다.》

《큰 고기다.》

여기저기서 물고기가 떠내려간다고 소리를 치며 헤엄쳐들었다. 폭발의 진동에 얼을 친 가마소의 크고작은 물고기들이 허연 배때기를 드러내놓고 떠내려가다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거나 그물에 걸렸다.

《자치가 걸렸다.》

어느새 그물을 친곳에 가있던 김창하가 환성을 올렸다. 그는 어른의 팔뚝만한 물고기를 가슴에 부들켜안고 다나까한테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형사님, 자치입니다.》

《아, 이게 자치인가?》

다나까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얼른 물고기를 받아들었다.

《땃기로는 되겠군, 잘 생겼는데… 아주 마음에 드오.》

《마음에 드신다구요? 그럼 이놈은 따로 건사했다가 댁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야…》

다나까는 사양하는척했으나 내심의 기쁨을 다 감추지는 못하였다.

물고기가 꿈틀거리며 다나까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다나까는 물속에 떨어지는 안경을 집으려다가 침병 나자빠지며 물고기를 놓아버렸다. 자유를 찾은 물고기는 또 한번 꼬리로 물을 철썩 때리더니 비틀비틀 헤엄쳐갔다.

《아 저놈을…》

김창하가 뒤쫓아가다가 온몸을 물속에 내던지며 물고기를 던지였다. 그러나 물고기는 요동을 치며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물고기는 깊은 가마소안으로 사라지고말았다. 김창하는 분해서 막 죽는 시늉을 했다.

《앵이, 저걸 놓치다니… 앵이!》

《그놈이 끝내 달아났구만.》

다나까도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탐욕에 너무 옴한 나머지 손안의 진귀한 물고기를 놓쳐버렸으니 그럴만도 했다.

김창하가 그를 위로하였다.

《까짓거 또 붙잡아냅시다. 아직 두방이나 있는데…》

《음, 또 붙잡아내자구.》

《형사님, 이번에 두방을 한꺼번에 터뜨립시다. 깊은 소의 큰놈은 한방으로는 꿈쩍도 안하는데…》

《정말 큰놈이 있을까?》

《있구말구요. 이제 내 키만한 놈이 꼭 걸려들겁니다.》

두방을 한꺼번에 터치기로 하였다. 다나까도 사람들만한 물고기를 잡아볼 욕심이 굴뚝같이 생겨났던 모양이었다. 김창하는 폭발을 준비하는 다나까를 거들어주며 뭐라고 발라맞추고있었다.

물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순임은 왜서인지 까닭모를 불안을 느끼였다. 무엇을 바라는지 도무지 가슴이 가지 않았다. 김창하는 순임이가 바라는 가장 요긴한 대답을 굳이 피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눈여겨보아야 류다른 기미란 전혀 감촉할수 없는것이 더 안타까웠다.

김창하는 그물을 잡거나 몽둥이를 든 사람들에게 곧 폭약을 터치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물가의 순임이한테도 뜻있는 눈길을 번개같이 던지고나서 다나까를 향해 손을 쳐들었다.

다나까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포심지에 다시 불을달았다.

순임이도 폭발을 기다리며 속셈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셋…

순간 김창하가 다급히 소리쳤다.

《가만! 형사님, 저기 큰놈이 얼을 치구…》

그는 다나까가 겨냥하는 소용돌이를 가리키더니

무작정 그속으로 몸을 날리며 뛰어들었다. 얼을 친 큰놈을 던치자고 무작정 뛰어들었다. 뒤미처 그는 피이한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가마소의 세찬 소용돌이속에 빠져버린것이다. 모두들 아연해서 그를 바라보는데 가마소를 들었다놓는 폭음이 일어났다. 다나까의 손에서 던질 기회를 놓쳐버린 폭약이 폭발했기때문이다.

대소동이 일어났다. 시커먼 초연이 거품처럼 부

풀어지는 물속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우성을 쳤다. 순임이도 어쩔바를 몰라하며 김창하를 향해 발만 동동 굴러댔다. 김창하는 소리도 못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는 불쑥 솟아 오르곤했다. 몇차례를 거듭하고나서야 그는 사람들이 내밀어준 몽둥이를 붙잡고 겨우 끌려나올수 있었다. 물가로 끌려나와서는 끝없이 물을 토하더니 그만 실신해버렸다. 두눈을 꼭 감은 얼굴에 피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숨조차 아주 못어버린듯싶었다. 그만해도 천행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지체되었어도 건져내지 못했단했다는것이다.

안도의 숨을 짓던 그때에야 순임은 또 한켠에서 떠들어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었다. 거기서도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서 부산스레 돌아치고있었다. 김창하를 거들어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달려갔다.

순임이도 그쪽으로 걸어갔다. 무언가 마음에 짝이는데가 있었다.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던 그는 가슴이 섬쩍해났다. 여러 사람의 손에 붙잡힌 웬 몸통이가 강변의 잔디풀우로 마구 덩굴어대며 연방 숨넘어가는 비명을 질러대고있었다. 다나까였다. 주위는 온통 피의 천지였다. 다음순간 순임은 저도 모르게 《악!》소리를 지르더니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르며 태질을 하는 다나까에게는 팔목이 하나 멍청 없어졌던것이다. 잘못 보지 않았는가싶이 눈심지를 돈구었으나 분명 팔목은 없었다. 폭약이 터지면서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낸 모양이었다.

큰일났구나! 순임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계획했던 일은 또 실패를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들었으니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한 생각만 들었다.

얼마후 다나까를 실은 들것이 황황히 자리를 떴다. 경찰들과 함께 천렵놀이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들것을 따라갔다. 강변에 실신한채 누워있는 김창하한테는 누구도 원눈조차 돌리지 않았다. 하나같이 친일의 족속들이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가마소의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지러운 소동의 돌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라고 믿어지지 않을만큼 조용하였다.

순임은 갑자기 피로를 느꼈다. 자신을 지탱할 힘조차 죄다 새어버린듯했다. 너무나 컸던 기대와 어긋나는 실망, 지나친 신경전으로 인한 피로, 거듭되는 실패에 따르는 좌절감... 이 모든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그를 극도로 지쳐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김창하가 걱정되었으나 까딱 몸을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물가의 바위돌우에 매없이 앉았다. 그리고는 소리없이 굶니는 가마소의 소용돌이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왜 그러구있소?》

어느새 김창하가 앞에 와 벗어섰다. 저절로 의식을 차리고 일어난것 같았다. 얼굴은 백지장같았으나 그래도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뵈, 먹을걸 좀 주오. 배가 고프구만.》

순임은 꿈을 꾸는듯한 눈길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김창하는 비칠거리며 돌아가마결으로 다가가서는 먼저 술병부터 찾아들었다. 술잔에다 술을 가득 채웠다. 술잔을 눈앞에 쳐들고는 순임이를 건너보았다.

《오늘같은 날엔 축배를 들어야지.》

《...》

《순임동물 다신 못보는가 했더니... 허 글썽여라대왕이 부른다기에 찾아가니까 대문안에 들어 놔줘야지. 내가 혁명가인줄을 모르구 잘못 불렀다나. 그래 대문을 사이에 두구 옥신각신하다가 되돌아오구말았소.》

그는 술잔을 입에 가져다대더니 천천히 끝까지 다 마시었다. 술이 아니라 마치 단꿀이나 마시는것 같았다.

《그래 어떻게? 이 김창하의 낚시질숨씨말이요.》

그는 빈 잔을 든채 순임에게 뜻있는 눈웃음을 보내었다.

《이제 다나까는 병원침대에서 좀 고생을 하다가 경찰체복을 벗게 될거요. 팔목이 없는 병신이 됐으니까. 그담에야 그놈이 여기서 뭘하겠소. 아쉽긴 해두 제놈의 섬나라루 돌아가는수밖에 ... 그만하면 우리의 공작은 땀시있게 결속지은셈이지.》

《아니. 그럼?!》

순임의 뇌리에서는 불이 확 켜지는듯하였다. 그는 대뜸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오늘의 폭발사고는 우연한 불상사가 아니었다. 김창하가 빈틈없이 맞물려놓고 진척시킨 공작의 결속이었다. 누구도 책임을 따질수 없는 함정에 빠진 악질형사 다나까는 어쩔수 없이 팔목을 잃고 경찰의 관직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천렵놀이에서 김창하가 노린 목표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을 마다않고 서슴없이 가마소의 무서운 소용돌이속으로 뛰어들기까지 했었다. 순임이한테 진속을 감춘것도 위험을 동반한 일이였기때문이라. 결국 공작은 성공했다. 실로 단발명중이었다.

《아, 그런걸 난...》

순임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눈물이 마구 솟구쳐올랐다. 왜 그렇게 눈물이 솟아나는지 알수 없었다.

김창하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울기는 왜?...》

《아니예요, 그저 좀...너무 기뻐서...》

《아, 기뻐서 우는거야 좋은 일이지.》

역시 김창하는 웃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순임이도 얼굴에서 손을 뗐다.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김창하를 향해 눈을 흘기었다.

《심술쟁이!》

《뭘, 심술쟁이?》

《그렇지 않구요, 심술쟁이!》

그는 새삼스레 김창하를 바라보았다. 열정으로 빛나는 커다란 두눈, 사내답게 우뚝 솟은 코마루, 완강한 의지의 상징같은 얼굴의 허물자리... 세상에 이보다 더 툼툼하고 멋진 젊은이가 어데 있으랴. 온넛을 그대로 떠맡기고 의지하고싶으리만치 믿음이가는 사람이었다.

《잔을 주세요. 내 한잔 부어드릴테니...》

순임은 술병을 들어 김창하가 내민 잔에 술을 부어주었다.

김창하는 찰찰 넘치는 술잔에서 눈을 못뗐다. 마치 진귀한 보석이라도 새겨보는듯한 눈길이었다.

《흥, 이렇게 값있는 술잔을 받아보긴 처음인데...》

《납시질을 잘한 값이에요. 물고기두 잘 잡구 또 다나까두 낚아내구...》

《아직 한가지가 남아있지.》

김창하는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는 빙긋 웃었다.

《하늘의 선녀말ियो.》

《그건 오산이예요.》

순임은 자기의 내심을 감추며 말했다.

《선녀는 절대로 납시에 걸리지 않을거예요.》

《천만에!》

김창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난 내 힘을 믿소.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천만 대적이 덤벼든대두 끄떡않는 법이요. 단매에 처눌힐 배짱과 슬기와 지혜가 온몸에 차고넘치니까.》

이번 공작두 그랬소. 사실 내젠 이번 공작만큼 힘든 일은 없었소. 다나까는 바로 우리 집과 부모형제들을 똥땅 불속에 집어넣은놈이었소.》

《그래요?》

《그렇소. 그런놈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거나 엉너리를 친다는게 얼마나 진땀이 나던지... 하지만 다 해냈소. 내 힘을 믿었기때문이요. 눈물과 한숨에 절었을 땐 엄두도 못내던 일을 웃으면서 해제켰단말ियो... 그러니 하늘의 선녀는 꼭 낚아내게 될거

요.》

사람이 자기 힘을 믿으면 저렇게 당당해지는 법이다. 그런 사람앞에는 무서울것이란 없다. 어떤 역경에 부닥쳐도 겁내지 않고 배심있게 헤쳐나가는것이다. 반대로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일앞에서도 굴복하기마련이다. 이번 공작의 교훈이 그렇지 않은가. 자기 힘을 믿지 못했을때 순임은 다나까와의 공작을 두고 지내 겁을 먹었다. 그래서 늘 울상이였고 한숨만 짓지 않았던가.

만약 김창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이번 공작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됐을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김창하! 멋쟁이총각!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그전날 나루터에서 주정을 부린것두 일부러 꾸며낸 연극이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오?》

《다 아는 방법이 있지요.》

그제야 순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의 일도 역시 귀중한 비밀문건을 간직하고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특수회원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한것이 다시없이 기쁘기만 했다. 그리고 김창하가 그날 일에 대하여 굳게 입을 다물고있는데 더 탄복했다. 속대없는 사람같으면 제자랑을 하지 못해 몸살을 했을것이다. 참으로 함께 지낼수록 언덕같이 믿음만 더해지는 사람이었다.

《인젠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이라니? 나야 납시군이니 납시질이나 계속해야지.》

김창하는 다나까와의 공작도 끝난것이 아니라 했다. 이제부터는 다나까의 병문안을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다나까의 보증으로 순사시험도 치르고 또 다나까가 깊숙이 감춰둔 비밀의 알속도 죄다 뽑아낼 결심이었다.

《그 알속들은 순임동무를 거쳐 조직에 전달될거요.》

《아무튼 동문 참, 멋쟁이납시군이예요.》

《유쾌한 납시군이이지.》

김창하는 뜻있는 눈웃음을 지었다.

《자 그럼 우리도 다나까를 따라 병원으로 가지요.》

두사람은 길차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기쁘고 유쾌하게...

시초

백두의 서정

김영길

귀틀집 한채

항일의 력사속을 걸어가듯
가도가도 인적없는 태고의 숲속
곰산밀영길 견노라면
신비로운 전설속에서 솟아난듯
이 땅이 끝나는 마지막기슭에
작은 귀틀집 한채 마주 솟아온다

집뒤로는 국경을 누비는 물살빠른 흐름이
좁아져 여울치고
귀틀목 사이에는
작은 피창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집

스쳐지난 세월의 비바람에
동기와 고삭고
통나무벽 감싸덮은 이끼는 색바래도
세기를 떠이고 솟아있는
옛집이여

그 뉘들이 여기에 살았는가
집을 비워놓고 주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마음속에 그리며 찾아도
그 이름
그 생사
고요속에 묻고 대답없는 집

우수수-
숲이 부르며 웨치며 요동친다
좌-아...
세찬 물 감돌며 섰도는 소리속에

못생명들이 살아 설레인다

오오-
이집
세상을 숨어살던
포수들의 산전막이 아닌 이집
섬나라 오랑캐들을
개떼처럼 몰아 사냥하던
백두호랑이들의 삶과 투쟁의 보금자리여

흘러간 항일의 력사속에 서있는듯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넘나드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 어려있고
이 나라 항일투사들의 뉘과 숨결이
뜨겁게 살아 숨쉬는
백두의 작은 귀틀집이여

먼 북변한끝
강토의 첫 기슭에
소박한 옛모습 그대로 서있어도
키낮은 추녀넘어
락원의 이 땅 끝까지
행복의 천만추녀들을 높이 교여올린 집

천고의 숲속에 묻혀
말없이 서있어도
조국을 떠받든 주춧돌로 생을 묻은
열혈투사들의 영생의 숨결
찾아오는 천만의 심장마다 뜨겁게 이어주며
집은 고요히 빛나고있어라

조국의 의미

강이라 함이
여기선 작은 시내와 다름없고나
넉넉 내짚으면
한결음에도 뛰어넘어 디딜수 있는
물건너 저기-

이리도 가까운 이역의 저 산천에서
우리 수령님
긴긴 스무해를 오지 못하셨고나
고귀한 청춘의 해와 해들을
광야의 설한풍속에 다 흘려보내셨고나

집도 아닌 혈로에서
 풀뿌리 끼니삼고
 마을도 아닌 첩첩 산중에서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려
 한몸에 다 겪으신 인생고초
 속속들이 배어있는
 아 물건너 저기-

피어린 그 사연 가슴젖어
 대지가 세월넘어 내뿜는
 뜨거움의 분출인듯

강물은 쉬임없이 솟으며 격류하며
 투쟁속에 피로 증명한 조국의 의미를
 목메여 읊조리노나

조국을 잃으면
 눈앞에 보이는 그 산천도
 정과 숨결이 끊어진 아득한 타향
 그 품만 있으면
 세상끝에 가있어도
 하나의 피줄로 운명이 이어져
 한달음에 안기는 삶의 요람이여라

하얀 봇나무숲

참으로 숙연토다
 울울창창한 천고의 밀림속
 백두의 길녘에
 까닥않고 줄지어 서있는
 하얗 봇나무숲

그리도 정갈하고 순결한 그 자태
 하늘땅을 메우는 서리발은
 네 어이 뿔었더나

휘여휘여 아지가 꺾이도록

불어불어 뿌리조차 들리도록
 살기찬 압제의 광풍 밀림에 태질해도
 꺾이지도 뽑히지도 않고
 항거의 눈보라 하늘끝까지 휘뿌려
 깨끗이도 씻은 절개

오호-
 숭엄함에 눈시울 젖어 바라보노라
 굴하지 않은 조선의 넋
 때묻지 않은 이 강산의 정기
 백두의 하얀 봇나무숲

불어라 백두의 바람이여

쉬익-
 바람이 터졌다
 밀림속에 바람이 터졌다
 숲머리를 휘여감으며 포효하는
 백두의 바람

어느 골에서 터져나와
 어느 령마루에로 출달음치느냐
 우지끈 툅 툅!-
 아름답드리거목을 꺾으며
 뿌리들어 하늘가에 꺼꾸로 세우는
 백두의 바람

오호-
 무심치 않다
 광대한 대자연의 천리수해
 잎새 하나 건드리지 않고
 고요히 잠자다가도
 네 어이 때없이 일어 하늘끝을 휩쓰느냐

동서로 남북으로 째없이 내달느냐
 그 뉘를 찾아서이나
 정든 네 품을
 고향집뜨락처럼 즈려밟고 싸우다
 그 자드락마다에 생을 묻고
 세월을 앞서간 이들
 락원의 이 강산에 다 불러오려 함이나

눈속에서 굶으며 피흘리며
 항일하던 그 세월
 그 나날 잃은 그 모든것
 하늘끝에서라도 다 찾아오려는듯
 끝마다 령마다 내달는것이나

백두의 바람은
 자연이 일으키는 기류의 파동이 아니여라
 강도왜적을 삼대베듯 쓸어놓히시며
 항일의 천만산악
 주름잡아 내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옷자락에서 일어난
혁명의 바람

백두광야에 조국해방의 폭풍을 부르시며
수령님 추켜드신 붉은기
온 누리를 그 한빛으로 물들이던
그 기발의 퍼덕임으로
오늘도 잠들줄 모르는
투쟁의 폭풍이여

광야에 사나운 눈보라를 휘몰아
산야에 뒤덮인 왜적의 무리들을
선자리에 꽂꽂
돌처럼 얼궤굳히며 서리차던
증오의 칼바람

밀림의 깊은 장설을 헤치고
돌아올 대원들을 기다려
밤깊도록 난로우에 끓는 사랑 갖지 않던

사령부천막의 들창너머
백두의 추위를 다 녹이며 흘러가던
태양의 열풍

오 불어 불어라
바람 백두의 바람이여
세월에서 세월로
혁명의 붉은 넋을 실어오는
거세찬 백두의 숨결이여!
태동하는 혁명의 폭풍이여!

쉬익-
바람이 터졌다
백두의 바람이 터졌다
끝나지 않은 주체위업의 길우에
붉은기의 퍼덕임으로 일어난지는 바람
다가오는 세 세기
강성대국에로의 총진군길우에
혁명의 폭풍이 인다 폭풍이 인다

감자이야기

박해련

소곤소곤 대흥단처녀들이
감자이야기
두런두런 제대군인 총각들이
감자이야기

아침에 나누는 첫인사도
-아이 꽃망울이 텃어요
저녁에 헤어지며 하는 그 말도
-래일은 감자꽃이 필게요

대흥단처녀들 감자밖에 모르는듯
대흥단총각들 감자밖에 모르는듯

때를 놓칠라
결눈질도 좀 해라
사랑이야기도 좀 해라
반장아바이 일러도 주었건만

말을 해도 감자이야기
노래불러도 감자노래
꿈을 꾸어도 감자꿈꾸는

대흥단청춘들
-감자풍년이 든 그날
장군님께서 또 오실거야
영광의 그날을 그려볼수록
해종일 이어지는 감자이야기
한생을 이어갈 감자이야기

달밝은 흥단수 물가에 앉아
사랑을 속삭이던 그밤에도
속깊이 묻어둔 언약의 전부인듯
밤을 세워 이어지던 감자이야기

장군님 뜻으로 청춘을 꽃피우는
행복넘친 위훈의 하루하루
일을 해도 길을 걸어도
사랑을 언약해도

소곤소곤 대흥단처녀들
감자이야기
두런두런 제대군인총각들
감자이야기

대 답

권강일

책임기사 리금석은 새벽녘에 병원을 나셨다. 트랙을 지나 큰길에 나서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쓰러지려는 몸을 가늠하며 애써 정신을 차리느라니 푸릿한 하늘에 직장장의 얼굴이 떠오른다. 방금전에 숨을 거둔, 조용히 눈을 감은 그 얼굴이다.

금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직장장이 죽다니. 내가 못된 꿈을 꾸는거야. 그렇게도 의지가 강하고 성실하고 고지식한 우리 직장장이,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하여 소문이 난 우리 박승현직장장이 하루아침에 영영 갔다는건 거짓이야.

금석은 발걸음 되는데로 직장에 나와 사무실 한가운데 망연히 섰다가 창문걸로 다가갔다. 구내 산너머 멀리 용광로가 새벽빛속에 룡광을 드러내며 다가선다.

밝아오는 새날처럼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금석에게는 직장이 말아안고 최후돌격전을 벌이고있는 중량레루후처리장공사에 생각이 미치였다. 어제 건설장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숨막힌 긴장속에 삼삼히 떠오른다.

...팽팽하게 켜기는 쇠바줄, 용을 쓰는 천정기중기와 권양기의 동음소리, 드디어 움쩍 자리를 뜨는 육중한 들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길속에서 천천히 올라가던 쇠보짱이 휘친 흔들리더니 허공중에서 벗어났다.

웬일인가. 너무도 큰 집의 무게를 기계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가. 기름땀이 흐르는 저 쇠바줄이 튕겨나기 시작했는가.

직장장이 날파람있게 몸을 날려 높이 매달린 기중기 운전실에 올라가보고 아득한 공간들에 버티고 선 연공들과 무슨 말인가 나누고나서 다시 내려와 팡장같이 넓은 후처리장 한복판에 나셨다.

그는 잡아쥐었던 푸른 기발을 높이 쳐들며 웨쳤다.

《올려라!》

기발의 펄럭임과 함께 그 목소리가 무쇠란간들에 쩌렁 메아리쳤다.

다시금 살아나는 기계의 동음소리, 다시금 떠오르는 들보.

무슨 일이든 등탈이 없이 용의주도하게 타산하고 믿음성있게 내미는 직장장이 방금이라도 와당탕 떨어져내릴수도 있는 30톤도 나마되는 철골물아래

떡 버티고 서서 구령을 치니 운전공들과 연공들의 심장도 확신을 안은것이다.

한치한치 떠오른 들보를 드디어 연공들이 받아 제자리에 앉혔다. 무게에 짓눌리운 공간들이 삐그덕거리다가 푹 버티고섰다. 모두였던 숨이 나가고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지켜섰던 학생들이 꽃뭉음을 흔들고 악대가 환영곡을 요란하게 울렸다.

일은 이때에 벌어졌다. 모두들 방금 올려놓은 쇠 들보를 쳐다보느라 미처 알지 못했다. 머리를 싸쥐고 공간에 상반신을 의지한채 쓰러진 직장장을 발견하고 달려가 예워쥘때 그는 이미 정신이 없었다. 소생차에 실려 병원에 갔으나 때는 늦었었다. 심한 뇌출혈이었다.

이런 일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늘 숨가쁘게 느끼고있는 사람은 제철소병원에서 현장치료대에 나와있는 윤정애의사였다. 위험수치를 넘어서선 직장장의 혈압에 놀라서 휴식을 강권하였지만 그때마다 《내가 끝이 아픈건 일을 다 못해서 그런것이니 공사를 끝내고 봅시다.》라고 혼연히 그자리를 피하곤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금석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전화기를 드니 8시부터 전화회의가 있다고 생산과에서 포치하는것이였다.

금석은 금시 어깨가 무거워졌다. 흰히 밝아오는 오늘 일로 마음이 급해짐을 느끼며 직장장방으로 갔다. 하루일을 앞두고 늘쌍 마주앉던 타성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직장장방에 들어가면 일더미가 석연하게 떠오를듯한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했다.

창문턱에 주련이 놓인 화분들에는 노랑고 빨간 만수국, 앵초꽃들이 연연히 피어있었다. 그것을 보니 이 방의 주인이 영영 갔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금석은 유리밀에 깔아놓은 주간일정표를 일별하고 조심히 책상서랍을 당겼다. 직장장의 사업수첩이라도 보고싶은 마음에서였다.

알뜰하게 정리해놓은 서랍에 몇장의 진단서가 포개져있었다. 아마도 로동자들것인가보다 흘러 버리려는데 《박승현》이란 이름이 눈에 띄였다. 직장장이 진단을 떼고 선적은 없지 않는가. 그것도 녀장이나... 병명은 모두 고혈압이였다. 옆에서 미리 알고 도와야 할 내가 너무도 모르고있었구나. 자책감과 함께 오히려 그에게 부담이 된 자기자신의 지난일이 가슴아프게 돌이켜왔다.

...중량레루후처리장을 한달내에 새로 꾸리라는

과제가 건설제관에 맡겨졌다. 너무도 아름다운 과제였고 긴박한 날자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산이 서지 않았다. 방도는 찾지 못했는데 독촉은 불갈았다.

《우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봅시다.》

금석은 직장장에게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박승현은 의아한 눈길로 금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별수 있습니까. 이제도 보았지요. 건설부지배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호되게 추궁을 하지 않나요.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불판이지요.》

《그건 무슨 소리요? 9.9절까지 하라는건 그때까지 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꼭 하라는거지 거짓말을 하라는건 아니잖소.》

《글쎄 그거야 물론이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별도리가 없는데 공연히 욕을 먹게 있습니까.》

직장장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금석을 바라보다가 좁혀서는 피우지 않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러니까 책임기사동무는 한달내에 할수 없는걸 뻔히 알면서 욕이나 면하자고 그러자는거요?》

《9.9절까지 우리가 공사를 끝내야 첫 중량레루를 뽑게 되니 무조건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바루 그래서 대답하기가 힘든거지 쉽게 대답이나 해놓고 실지로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죄요. 이게 어디 우리 직장 하나에 속한거요. 무책임하게 대답이나 하고 신심도 없이 계획이나 세워 올려뜨우고서는 수행하면 좋고 못하면 할수 없다는식으로 일하면 뭇이 되겠소!》

《정말 답답합니다. 직장장동문 너무 고지식한게 탈이에요. 우리가 하는것 애쓰다가 못하면 공장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하게 될건데.》

직장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화를 냈다.

《답답한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방도를 찾지 못해서 당의 요구에 대답을 못하는거요. 지금 형편으로는 한달이 아니라 두달 가지고도 공사가 힘들다는걸 동무도 알지 않는가.》

《그럼 어찌자는겁니까. 날자를 늦춰달라고요?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안되겠으니 다른 직장을 더 붙여달라고요?》

금석이 어성을 높이자 직장장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정 할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렇지만 책임기사동무, 우린 아직 연구를 적게 했고 애써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소. 해결방도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한번 대답하면 실지로 해내는 대답, 몸이 열두조각이 나도 맹세를 지킬수 있는 진짜 대답을 하자는거요.》

직장장은 노동자들속에 들어가 집체적인 토론도 하고 련계된 기업소에 찾아가 의논도 하면서 술한예비를 찾았다. 낡은 건물에서 트라스를 해체하여 천정기중기밀보제작에 필요한 강재를 보충할 방도

도 찾았고 품이 많이 드는 위험한 고도작업을 될수록 덜기 위하여 쇠파장을 지상확대식조립으로 제작할 합리안도 생각해냈다. 부족되는 산소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로 만든 수소발생기를 공사현장에 가져다놓을 발기도 나왔고 고급용접공을 육성양성할 가능성도 찾았다.

확신이 생겼다. 한달내에 할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고 공정이 짜졌다. 공장참모부에서는 직장에서 제출한 그대로를 전투일정으로 늘렸고 긴장하게 하루하루 집행되어왔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2일을 앞두었다. 뜻밖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공사는 계획대로 끝나고 하루이틀 점검을 거쳐 9.9절에는 중량레루를 원만히 처리하게 될것이였다.

금석은 어깨가 무거웠다. 직장장이 선두에서 밀고나가던 일을 그대로 해낼수 있을가. 우리의 대답을 드림없이 그대로 지킬수 있을가.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공사는 며칠 늦어지는수밖에... 장례까지 치르자면 정말 짜고들어야 한다. 서두르자.

금석은 한시간이 되기 바쁘게 작업반장이상 초급일군들을 모아놓고 마주앉았다. 반장들과 시공지도원들한테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이며 결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료해하며 방금 모임을 시작하는데 자기 대신 전화회의에 참가하라고 내보냈던 공정기사가 들어서며 말했다.

《책임기사동무가 전화회의에 참가하합니다.》

《우리 실정을 말했소?》

《예.》

금석은 할수없이 아침모임을 잠시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직장장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령전화대에서 지배인의 목소리가 확성되어 울려나왔다.

《건설제관 책임기사동무 왔소?》

《동무 지금 뭘 하더했소?》

《초급일군들을 모아놓고...》

금석이 전화회의에 참가할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지배인이 말허리를 끊었다.

《그럼 동무네 그 모임을 이 회의에 합치오. 다 데려다가 전화대앞에 앉히시오.》

《지배인동지, 우린 시간이 급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라는거지. 빨리 불러오시오.》

금석은 할수없이 그들을 데리러 갔다. 가면서도 리해가 안되였다. 시간이 급하니 참가하랴? 그것도 모든 사람을 다 참가시키라. 이것 참 오늘일이 별스럽게 되는군.

금석은 전화회의를 더없이 편리하게 생각해왔다. 제정된 시간에 지령전화대앞에 앉으면 되니 회의장으로 가고 오는 시간이 따로 없이 좋고 용광로직장이나 강철직장 같은 기본단위는 물론 먼 한끝 철길대며 내화물, 전자제산기실까지 크고작은 모든 단

위가 빠짐없이 참가하니 마치고 넓은 구내가 회의장인듯싶어 가슴이 넓어지고 현대과학의 토대에 올라선 자동화공장의 실감으로 자부심 비슷한 감정도 들군하였다. 그러나 이 아침은 초조감을 더해줄뿐이다.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면 작업포치를 끝내고 벌써 현장에 붙을것이 아닌가.

지배인은 제관직장이 다 왔는가를 재삼 확인하고 《시작합니다.》라는 늘 하던 말로 격식없이 회의를 선포했다.

긴 의자에 조여앉은 초급일꾼들은 어째서 이 바쁜 때 자기들을 전화회의에 참가시켰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대를 바라보았다.

지배인의 귀익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늘아침 갑자기 예견치 않았던 전화회의를 소집한것은 중랑레루후처리공사를 남은 이틀안으로 끝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어제 건설제관 박승현직장장이 공장참모부에 요청한 회의입니다. 그가 이 전화회의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다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 남은 이틀동안에 공사를 끝낼 결심이었다는것만은 명백합니다.

동무들도 이미 알고있겠지만 그는 어제 오후 건설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순직하였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 전화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왔다. 드넓은 제철구내의 뜨거운 숨결이었다.

건설제관사람들은 저 앞 직장장자리가 비어있는것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가까이 느끼며 눈시울이 젖어왔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다시금 소음을 누르며 울렸다.

《박승현직장장동무가 이 대상을 말아안고 일어나 애써왔는가는 다 알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9.9절까지는 끝낼 맹세를 안고 일해왔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당에 드린 그의 맹세를 지켜줍시다. 이젠 박승현동무와 오래동안 함께 일한 혁명동지로서의 초보적인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갈리었다. 우람한 몸집처럼 틀이 크고 웬만해서는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그가 격해지는것을 그 음성을 통해서 느끼며 제관직장사람들은 가슴이 더워졌다.

언제나 일에 몸을 잠그고 살던 박승현직장장을 지배인은 늘 미덥게 대했다. 이것을 알기에 제관사람들은 지배인의 말이 더 깊이 새겨졌다.

잠시후 전화대에서 다시 실무적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건설제관동무들, 먼저 말해보시오.

책임기사동무, 2일간에 끝내자면 무엇이 걸렸는지 제기하십시오.》

금석은 수그렸던 머리를 번쩍 들었지만 미리 준

비도 하지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어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잠시 지나서야 직장장 사업수첩에 생각이 미쳐 그것을 펼치며 입을 열었다.

《직장장동무 사업일지에 이렇게 써여있습니다. 〈권양기 한대 더 설치하여 기증기능력 보강할것.〉》

《가만 천천히 말하십시오.》

지배인이 금석의 말을 중단시켰다. 별척이는 종이상소리로 보아 그것을 받아쓰는 모양이었다.

《그다음 또.》

《쇠바줄과 카바이드를 자재과, 기관차수리대와 미리 연계하여 지장없이!》

《...》

《〈쓸모없는 공간들을 처내는 일 동시에 밀고나가자.〉》

금석이 직장장의 사업일지에 급히 써놓은 비스듬한 글을 또박또박 읽는동안 전화대에서는 기침소리 하나 없었다. 금석이 자신도 직장장의 목소리를 듣는듯싶어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외에도 몇가지 더 있는 결린 문제들과 일정을 다 말하고 금석이 입을 다물자 전화대는 잠잠한채 한동안 직장장의 모습과 목소리를 새겨주었다.

얼마후 전화대는 발은 기침소리, 숨소리로 누군가 바투 나앉는 기척을 전하더니 침묵을 깨쳤다.

《말하겠습니다. 자재과장입니다.

며칠전에 박승현동무가 우리 자재과에 와서 권양기를 한대 내라고 하는것을 못주었습니다. 그사이 예비를 찾은것이 한대 있는데 내렸습니다. 쇠바줄도 좀 있습니다.》

지배인이 그의 말을 받았다.

《좋소. 건설제관 책임기사동무, 가져다 설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몇시간 걸리겠소?》

《오전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늦소. 아직 쇠보장을 세개 더 올려야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오. 세시간내에 끝내시오.》

《알겠습니다.》

지배인이 바짝 끈을 당기자 금석에도 힘이 나고 긴장되었다.

《카바이드를 공사장에 보내겠습니다.》

《누구요?》

문득 튀어드는 목소리를 가능하지 못해 지배인이 물었다.

《기관차수리대 대장입니다. 어제아침 박승현직장장이 우리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절약해서 쓰고 나오는 예비를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꾸린 카바이드로에서도 보충해 주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카바이드생산기지를 꾸려
놓은 탄광직장장이 제격 대답했다.

《지배인동지, 우리가 경간 처내는 일은 담당하겠
습니다.》

《어데요.》

지배인이 물었다.

《차광수돌격대입니다.》

금석은 가슴이 뜨거워오르는 가운데도 그 좁은
건설장에 돌격대가 더 붙으면 작업에 지장이 있으
리라는 생각에 당았다. 그래서 전화대에 다가갔으
며 말했다.

《지배인동지, 그건 우리가 짜고들어 하겠습니다.
낮에 하면 지장이 있으니 밤작업으로 우리가 래일
까지 끝내겠습니다.》

《중소. 힘들겠지만 그걸 건설제관동무들이 하는
것이 옳소.》

지배인이 의미있게 지지했다.

전화회의는 점차 열이 올랐다.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까지 련달아 나왔다.

빈 산소병을 빨리 되돌려보내야 공사장에 산소를
줄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라는 공무수리산소작업반
장의 말.

용접봉을 전량 오늘 오전중에 현장에 날라다주겠
다는 새로 꾸린 용접봉공장의 발기.

펼쳐놓은 직장장의 사업수첩에 제기되는 문제들
을 빠짐없이 적어나가는 금석의 마음은 뜨거웠다.
맹세한 날자에 끝내는것은 이미 눈앞에 보이는 현
실이다.

그렇다. 직장장의 대답은 정말 목숨까지도 내대
면서 끝까지 그 맹세를 지켜내는 충신의 대답이었
다.

이윽고 지배인이 지령전화대를 차지했다.

《충돌격합시다. 후처리공사를 래일까지 끝내고
9.9절에는 중량레루를 생산합시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한 우리 황철로동계급의
충성의 보고를 위대한 장군님께 올립시다.》

지배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가슴을 세차게 울
려주었다.

끝났는가싶었던 회의가 다시금 지배인의 목소리
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이 공사를 지휘한 사람은 박승현직장
장동무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도 그리고 이 공사를
끝까지 지휘하는 사람도 박승현직장장입니다.》

《...》

《자동차직장장동무?》

《예.》

《자동차를 한대 준비하시오.

뜻밖에 물동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날라다주어야
겠소... 이만합시다.》

전화회의를 끝내고 나서는 리금석의 가슴은 제철
소 넓은 국내처럼 확 열리는듯하였다. 박승현직장
장이 바라던대로 모든 일은 빈틈없이 물렸으니 그
의 대답은 벌써 현실로 된셈이다. 리금석은 직장장
의 온정을 가슴 후덥게 느끼며 급히 현장으로 걸음
을 옮기었다.

가사

강원땅이 웃는다오

김명철

꿈에서도 열두번 벌방만 찾던고장
어허절싸 내 고향에 넓은 벌이 펼쳐졌소
다락밭은 어델 가고 빼기논은 어데 갔나
굽은 허리 좁은 이마 시원스레 모두 뻗소
어허 대를 두고 퍼지 못한 주름살을 활짝 펴고
어허 강원땅이 젊어졌소

청산벌의 두루미 여기도 날아들어
어허절싸 내 고향에 보금자리 정하였소
포전마다 넘쳐나는 기계화의 노래소리

동해벌방 벼바다도 흥에 겨워 춤을 추오
어허 대를 두고 퍼지 못한 주름살을 모두 펴고
어허 강원땅이 춤을 추오

사람들도 자연도 겨울을 이긴고장
어허절싸 내 고향이 청춘기를 맞이했소
온 세상이 부러워할 천복만복 가꿔가며
은혜로운 해님덕에 큰 웃음을 먼저 웃소
어허 대를 두고 퍼지 못한 주름살을 모두 펴고
어허 강원땅이 웃는다오

감격의 이날에 외 1편

김정영

황홀하구나

터져나오는 주홍빛쇠물

출선구에 다가서는 이 마음 달아오르노니

풍기는 열풍이 뜨거워서만이다냐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여

우리 탄 우리 원료로 끓여낸 이 쇠물

끝끝내 산소열법용광로의 성공을 보는

이 기쁨 이 감격만도 가슴이 벅찬데

내 이름까지 크게 불러

조업식의 이날에 내세워주니

송구하구나

내 정녕 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 쇠물에 보탠것이 무엇이이라고

이러히도 분에 넘친 영광을 안겨주는가

우리 수령님 유훈을 꽃피우자고

우리 장군님께 하루빨리 기쁨을 드리자고

밤과 지혜를 바치고 지원을 하였건만

다만 마음뿐 그것은 티끌같은데

송구하구나

생각할수록 목이 메이누나

언제인가는 《숨은 영웅》으로 내세우고

가슴이 무겁도록 혼장을 달아주고

경사의 이날에는 또다시 불러주는것인가

멀리에서도 이 쇠물을 함께 끓여온

총련 상공인형님에게

전할 말을 고르며 새기며

나도 모르게 쇠물길에 다가서노니

두볼에 흐르는것 땀인가 눈물인가

고마워라

은혜를 갚으려 땀을 흘리고 량심을 바치면

바치는것보다 더 큰것을 안겨주는것이

어머니 나의 조국이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이구나

정녕 무엇을 바치면

조국앞에 빛을 지지 않은 아들로 살라

마주오는 해와 달 나의 앞날은

받아안은 은혜를 갚고갚으며

경애하는 장군님 받들어

의리를 다해가는 나날이노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송구한 마음도 다 잊고

온 철의 도시 철의 구내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기다립니다

넓은 길가에

떠들썩 방송차소리만 울려도

집집의 창문들이 거리를 향해 열리고

가슴 울렁여 평양으로 뻗은 길 바라봅니다

일을 잘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날에는

자책으로 가슴아팠던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어버이께선 한마디

우리들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이 많고

그래서 더 분발한 우리들입니다

믿음만을 안겨주시는 그 사랑이 뜨거워

가슴속에 쇠물이 끓어오른 우리들입니다

아뢰입니다 장군님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오늘도 쇠물이 폭포쳐내립니다

남비마다 가득가득 우리의 가슴에도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

온 구내가 우러러 아뢰입니다

장군님 우리 쇠물이 쏟아져내립니다

용해장에 오시면 와락 품에 안기며

어려운 날엔 한번도 아니 흘린 눈물

행복한 날에 터치고싶은 우리들입니다

기다립니다

가실곳 많으시고

찾아보실곳 많으신줄 우리 알아도

마음은 자꾸만 달려갑니다 우리들입니다

아, 이 마음이 끓고끓어

쇠물이 사뭇치는 황철

붉고붉은 쇠물이

심장속에 끓어넘치는 황철입니다

사랑의 링마루

로정법

아들을 사랑한 녀인

그애는 한지훈부부가 늦어서야 본 아들이었다.
딸이 많고 아들이 하나뿐인 집에서 그렇듯이 그애는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사랑만을 받고 자란 아들이 군대로 갈 때 한지훈은 은근히 걱정하였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다. 아들한테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되었노라는 소식이 오고 얼마간 지나서 이번에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의학대학에 추천받았다는 편지가 왔다.

그러던 아들이 뜻밖에 눈먼 영예군인이 되어 나타났다. 해상분계선을 침범한 적들의 함선과 전투를 벌리던중 포탄파편에 눈과 허리, 가슴을 상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몸으로 돌아와 죄송합니다.》

아들은 집안에 들어서기를 무척 미안해하였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아들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자랑할 일이 어디 있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인차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왔다.

일생의 길동무가 되어주겠노라며 먼곳의 처녀가 기차를 타고 찾아온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때론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아들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 알고있었던 것 같았다.

1년이 지나 아들은 상처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과 친척들, 병원에서 애를 썼으나 워낙 상처가 심한지라 어찌는 수가 없었다.

그가 죽은후에 아들의 일기장갑피에서 한 처녀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다. 제대후 료양가서 찍은 것인데 처녀가 그렇게도 예뻐다.

이름은 최연희, 아들의 일기장은 그에 대한 것으로 꼭 차있었다.

한지훈은 아픈 마음으로 사진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처녀에게서 아들한테로 갑자기 편지가 날아왔다.

지금은 병세가 좀 어쩐지 인차 휴가를 받고 한번 찾아오겠노라는 편지였다.

기겁한 안해가 오지 말라고 전보를 쳤다.

그 전보를 미처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전보의 내용을 자기대로 해석했는지 처녀가 왔다.

수술이 제기되어 밤늦어 돌아오니 울어서 눈이

통통 부은 안해가 저녁상을 안고 들어오며 처녀가 왔다가 돌아갔노라고 하였다.

한지훈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던 가슴속 괴로움의 앙금을 뿌연게 휘저어놓고 간 처녀를 원망하였다.

늙은이 내외가 적적하게 사는 집으로 12살짜리 평양의손녀가 전학증을 떼가지고 왔다.

그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대번에 기쁘게 해놓을줄 아는 재간둥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노래를 부르는 귀여운 《새》였다.

이마적에 와서는 더구나 늘 병원에 나가살다싶이 하던 한지훈이 저녁마다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귀여운 《새》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다. 어디 출장갔다가도 반드시 무엇인가 사들고 들어와야 하는 생활의 소소한 재미도 생겼다.

생활이란 역시 강하고 즐기찬것이어서 한지훈은 인차 용융한 생활의 흐름속에 몸을 잠그어버렸다.

바쁜 아침출근, 출근후의 회진과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들의 즐거운 담화, 대학에서의 강의, 품을 들여 집필하고있는 저서의 세계...

한지훈은 의학계가 공인하는 뼈수술전문가-뇌신경외과계통의 실력자였다.

수술 1만 2천여건.

그중 척수 및 척추 수술 3천여건.

50이 되어오는 수술실간호장은 얼마전 지훈에게 이제 한사람만 더 수술하면 그 사람은 과장선생한테서 수술을 받은 1만번째 환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물론 소소한 수술은 다 빼놓고도.

그러면서 지훈에게 1만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가슴이 가는가, 《평양체육관》의 좌석수가 1만여 얼마인데 그안에 가득찬 사람을 상상하면 된다고 자랑스럽게 일깨워주었다.

장령인 한지훈의 친구는 1만명의 병사가 한줄로 서서 행군을 하면 100리에 늘어선다고 하였다.

그 100리길을 오는데 40년이 걸렸다.

처음 수술칼을 잡고서 떨리는 손으로 아름다운 한 처녀무용수의 발바닥중저를 짚 당시에는 20대의 새파란 총각이었는데 척수나 뇌 수술을 말아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박사선생으로 불리우는 머리 허연 늙은이였다.

병원측에서와 의학계의 동료들, 제자들, 그한테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 그를 소개하였거나 그의 문들을 편집해온 기자들과 편집원들은 이제 지훈이

가 하게 될 1만번째 환자의 수술에 의의를 부여해 주려고 은근히 원심들을 썼다.

선수생활을 마치는 이름난 축구선수를 위해 《은퇴경기》를 마련해주고 무대를 내리는 늙은 가수의 《독창회》를 열어주듯이 인간의 생명을 지켜 한생을 바쳐온 늙은 의학자로 하여금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해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훈이가 국제콩쿨수상자의 발바닥종치를 짚는것으로 의사생활을 시작한것처럼(겉에 질리고 미타해하는 눈길로 마치 못해 수술을 받던 지방예술단의 신인배우가 그처럼 유명해지리라 고야 상상이나 했으랴.) 이제 만번째로 하게 될 수술환자도 그런 사람으로서 수술칼을 지평이로 삼고 늙은 사람이 지금 한생의 총화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서의 마감장에 력점이 뚜렷하게 찍히우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텔레비존에 잔치상을 받고있는 한쌍의 젊은이가 나타났다.

고마우신 장군님께서 영예군인청년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한 처녀에게 은정어린 잔치상을 보내주신 것이었다.

《원, 세상에...》

안해가 연방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지금 상을 받고있는 저 새색시가 바로 집에 왔던 최연희라고 일깨워주었다. 그제서야 지훈은 사진으로 한번 본 처녀를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기보다 일이 그렇게 되었음을 알았을뿐이었다.

그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하랴.

그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인지 안해가 다 시금 진정제를 먹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아침저녁으로 노래를 부르던 귀여운 새도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바빠도 지훈은 매일저녁 집으로 들어왔다. 하루라도 못들으면 왜 그런지 막 몸살이 나는 귀여운 새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상치않게 번져가고있는 안해의 병때문이었다.

밤중에 원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원장은 지훈에게 부인의 병이 어떠한가 조심히 묻고나서 썩 미안해하며 승용차를 보내겠으니 곧 수술준비를 해가지고 회령으로 가주었으면 하였다.

이런 일은 드문하였다.

어떤 때는 다른 도나 중앙병원에서까지 지훈의 방조를 요구하여왔다. 천여리 떨어진 어느 병원의 수술현장에서 밤중에 전화상방조를 청해온적도 있었다.

늘 이런 일에 습관된 안해가 자기 걱정은 말고 어서 가보라고 지훈의 길차비를 해주었다.

회령에는 새벽에 도착하였다.

때는 3월중순, 한 로인이 큰 길옆에 앉아서 온실

에서 가꾼 꽃송이들을 나누어주고있었다.

한지훈은 로인이 손수 골라주는 꽃송이를 들고 백살구나무에 봄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오산덕에 올라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에 인사를 하고나서 시인민병원으로 향하였다.

환자는 누워서 눈으로만 지훈을 맞아주었다.

이름 김정서, 28살, 훈련중 지휘관을 구원하고 부상, 제12흉추골절탈구, 하반신마비로 인한 성 및 직장, 방광 기능 장애, 다친 부위의 염증으로 오는 동통, 계속, 몸무게...

체온은 38℃였다.

오랜 기간을 병상에서 보낸 환자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현재로서는 수술칼을 댈 여지가 없었다.

《환자의 부인이 선생님의 진찰을 한번 꼭 받아보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소원하기에 수고로이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시병원 기술부원장이 미안해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옆에 서있는 젊은 여인을 소개하였다.

간호원인줄 알았더니 환자의 부인이었다.

그때까지도 지훈은 이 젊은 여성이 최연희인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환자외의 사람들에 대한 직업적인 무관심성과 나 이틀며 더해지는 심한 건망증이 얼마전 텔레비존에서 본 여성도 몰라보게 한 것이었다.

《기특한 소행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은...》 하는 소개를 받고서야 알아본 것이었다.

사진에서 보던바 그대로 빠진 구석이 없는 미모의 여인이었다.

눈먼 자기의 아들을 사랑해준 처녀, 그가 죽은줄 모르고 찾아왔다가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아들과 같은 영예군인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여성...

이런 고마운 여인한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는데서 오는 아픈 가슴으로 지훈은 서둘러 그들과 작별하였다.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장사이로 별이 보였다고 말하는 흐릿한 밤이었다.

마주오는 바람이 어찌나 세찬지 외투자락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선생님두... 아침에 승용차가 온다던데 굳이 이런 밤에...》

지훈의 가방을 들고 따라오며 최연희가 헉헉 느끼는 소리를 하였다.

《아니, 난 기차로 가겠소.》

역에 나와보니 아직 차가 오자면 썩 오래 기다려야 하였다.

기다림칸의 벽시계를 보고난 최연희가 텅텅 고집을 부리는 지훈이한테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그의 옆에 와서 단정히 앉았다.

이 여인이 만일 자기가 눈먼 해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웃지 못했을거라고 지훈은 생각하였다.

《어서 들어가보시오. 난 혼자 좀 졸다가 차가 오면 타겠소.》

피로운 밤이었다.

하긴 지긋껏 살아오며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한 인간의 그리고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수술칼을 들고 40년간을 인간감정의 극에서 극으로 오가며 살아온 지훈이었다.

슬퍼하는 일앞에서도 습관이 되었고 기뻐하는 일앞에서도 습관이 되었다.

자기의 감정을 좀처럼 곁으로 드러내지 않는 파목한 인간, 외과의사생활 40년은 그렇게 다감하던 청년 한지훈을 그런 로인으로 변모시켰다.

《선생님, 너무 걱정마십시오. 제 남편은 아직 젊었으니까 곁에서 잘 보양해주면 인차 좋아질겁니다.》

《그래 그래, 보양을 하면 되지...》

그리고는 자는것처럼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시간을 앉아있었는데도 녀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녀인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으리란것이 명백해지자 지훈은 할수 없이 앉음새를 고쳤다.

묻지도 않았는데 최연희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말동무라도 해주어 기다리기 지루해하는 지훈을 위해주려는것 같았다.

그밤에 들은 이야기

연희의 나이는 스물여섯이었다.

어디 한군데 쏘프려진데가 없이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실하고 환한 연희를 보고 늙은이들은 처녀가 참 소담하고 복스럽게 생겼다고 하였다.

그의 눈은 컸다. 그윽하고 부드러운 눈이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달밝은 밤에 남실거리는 샘을 볼 때처럼 마음이 절로 즐거워진다고들 하였다.

젊음이 한껏 부풀어오른 싱싱하고 건강한 육체, 처녀의 손목이 얼마나 토실토실 살이 찌고 희고 고운지 누구나가 한번 잡아보고싶어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서둘러 그 손을 잡아볼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가시돋친 장미갈아...

처녀한테는 자기의 그 희고 고운 손을 어느때나 마음놓고 잡을수 있도록 내맡겨두는 한 청년이 있었다.

두눈을 다친 영예군인이었다.

8월의 바다가.

청년은 해병출신이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늘 그리워하였다.

가슴이 열리는 바다의 전경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장쾌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발바닥을 따갑게 간지럽히는 흰 모래불을 실컷 걸어도 보고

싶어 어제날 해병이 바다가료양소로 찾아온것이였다.

첫날은 료양소 간호원처녀가 해병을 데리고 바다로 나왔다.

인차 회령에서 온 연희가 대신하여 나섰다.

그들은 매일 바다로 나왔다.

새벽이면 물가바투 모래불에 나가앉아 해돋이를 구경하였다. 흐리고 바람부는 날에는 술발속을 거닐며 더 장쾌해진 파도소리를 들었다.

처녀의 보호속에 청년은 가끔 몸에 맞게 해수욕도 하였다.

물속에 들어가면 청년은 숨이 차서 물을 푸푸 내뿜으며 그렇게도 좋아하였다. 모래불에 앉은 처녀가 그를 인도하였다.

《왼쪽으로요.》

그러면 해병은 무조건 왼쪽으로 헤어나갔다.

《돌아와요.》

간혹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너무 멀리로 헤어나가 처녀를 울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었다. 처녀가 울상이 될무렵이면 해병은 돌아서서 《연희동무, 어데 있소?》 하고 즐겁게 소리치는것이였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가 가까이 헤여오면 처녀는 매번 침뱉거리며 마주 나가 그를 부축하였다.

《등대, 예쁜 등대...》

《아니, 난 교통안전원의 호르래기예요. 귀청따깝게 뻑뻑거리는...》

그리고는 즐겁게 웃었다.

해병이 처녀를 울린 날이면 처녀는 껌뻑하게 《분풀이》를 하였다.

잡고 가던 손을 살며시 놓고 해당화덤불속에 숨어버리면 해병은 찾다찾다 안타까와 《동문 나를 조롱하누만.》 하고 성이 나서 씹씹거렸다. 그럴 때면 처녀는 소담하고 향기그윽한 해당화 한송이를 그의 코앞에 가져다대며 웃어주었다.

《연희, 동문 어떻게 생겼소? 내가 쉽게 그러볼수 있도록 영화배우들과 비교해 말해보우.》

해병은 너배우들을 몇명 꼽았다.

《애개개, 몽땅 미인들과만 견주네.》

처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아니, 동문 미인이요. 마음속에도 눈이 있다오. 동무의 눈은 크오. 달빛이 부서지고 흐트러지는 밤 바다처럼 그 눈빛은 무시로 변하오. 동무의 그 눈엔 눈물이 많소. 불행하고 슬픈 운명보다 선하고 강하고 아름다운것앞에서 더욱 눈물이 헤프오. 책을 많이 읽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소.》

눈을 다치니 책을 읽지 못하는것이 제일 안타깝구만.

불면중에 시달리는 긴긴 밤이면 늙으신 어머님이 침대머리에 앉아 책을 읽어주오. 어려서는 어머니

가 나의 담임선생이었소.

어머니가 읽어주는 글소리, 그건 나에게 잠을 불러주는 자장가가 아니요. 광명이요. 힘이요. 쓰러지지 말고 기어코 일어나라 부르는 혁명의 목소리요.》

퇴소날이 왔다.

처녀는 그림던 작업반 동무들과 만날 기쁜 생각보다 해병과 헤어지는것이 더 서운하였다.

처녀는 해병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였다. 늘 해병한테 자기의 손을 맡기고있던 처녀가 오늘은 해병의 손을 꼭 부여잡고 놓칠가 겁을 내고있었다.

처녀는 울고있었고 손목을 잡히운 해병은 허허 웃고있었다.

《동문 역시 눈물이 헤프구만.》

해병은 작별을 서둘렀다. 하지만 처녀가 좀처럼 손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처녀를 태워갈 배스가 멀지 않은곳에서 조용히 부르렁거리며 작별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있었다.

거기서는 연한 풀색바탕에 해당화문양의 원피스를 입은 처녀와 눈처럼 흰 해군복에다 까만모직바지를 입은 키 큰 해병의 자태가 바다가에 핀 한 떨기 꽃처럼 선명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였다.

당자들보다 배스에 탄 손님들이 더 그들의 작별을 아쉬워하였다.

운전사는 그들이 놀라서 잡은 손을 얼른 놓아버릴가 겁나는지 아예 발동을 꺼버리었고 손님들은 처녀와 같이 눈굽을 씻거나 해병과 같이 허허 웃고들있었다.

헤여지기를 그렇게도 아쉬워하는 처녀에게 해병은 가장 다정한 말을 골라 위로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처녀를 안정시킬수 없었다. 처녀는 동정이 아니라 눈먼 해병을 사랑하기 시작한 자기의 마음을 알고있었고 또 해병이 자기의 사랑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리라는것도 알고있었다. 그것이 처녀를 더 울렸다.

헤여질 때 해병은 자기를 그렇게도 살뜰하게 대해준 처녀의 얼굴을 한번 볼수가 없는것이 안타까운지 동공이 흐릿한 회색눈이 이상스레 움직이었다.

그 눈길이 집에 돌아와서도 오래동안 연회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밤일을 나갈 때면 더욱 그러하였다.

《등대, 예쁜 등대...》하던 해병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늘 귀가에 따라다녔다.

그때 헤여지고는 서로 소식을 모르고있었다.

해병이 절대로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오지 않으리란것은 알고있었지만 연회 역시 그한테 편지쓰기를 두려워하였다. 공연히 그를 괴롭히기만 할것같아서였다.

연회는 어서빨리 그를 잊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럴수 없는 일들이 연회의 눈앞에 연방 펼쳐졌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에 대한 보도...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1기둥으로 삼으시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속에서 나날이 높아지고있는 원군정신...

나는 무엇으로 장군님의 군대를 받들것인가.

이럴 때면 불쑥 눈먼 해병이 생각나며 그를 괴롭혔다.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자기처럼 사랑을 미적지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깨우쳐주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기때문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제일 가까이 지내던 공장청년동맹비서 리순임, 최윤숙, 오화련 세 처녀가 다가오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영예군인들과 결혼을 한다고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날밤 연회는 너무 심란해서 혼자 오래도록 밤거리를 걸었다.

발길이 어데로 가는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채 걸고 또 걸다 문득 서보니 오산덕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이었다.

부드러운 조명속에 서계시는 어머님께서 밤늦게 찾아온 연회를 인자한 눈길로 내려다보시였다.

10월도 다 간 저문 가을밤이었다.

어데서 불러왔는지 대돌알과 동상두리에 빨강재락엽진 단풍잎들이 점점이 눈에 띄었다....

그밤으로 연회는 청진시의 어느 경로동직장에서 일한다는 해병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찾아 떠났다.

어머니한테는 며칠 휴가를 받고 이모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좀더 서둘러야 했을 걸음이었다.

해병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늙은 어머니가 연회를 맞아주었다.

어머니가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사진속에 연회 자기도 있었다.

해병은 노를 잡고 자기는 선수에 앉아 마주보며 웃는 사진인데 집에 와서 다시 확대한것 같았다.

크게 만들면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연회는 그 사진을 자꾸자꾸 쓰다듬으며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려 애타했을 해병의 눈동자가 보이는것만 알아 얼른 일어났다.

로인은 서운해하면서도 불들지는 않았다.

그저 연회가 차칸에 가다 먹을 밥이라도 한끼 제손으로 꾸려주고싶으니 그것마저 거절해서 이 늙은이를 울려놓지 말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을뿐이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어디론가 나가더니 살찐 암닭 한마리를 불들어쥐고 들어왔다.

로인은 주고싶었던 사람에게 주는거라면서 장안에서 하르르한 보자기에 싰 치마저고리감도 꺼내놓았다.

갈 때는 이모네 집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와서는 어머니한테 다 말해버렸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목을 부둥켜안고 실컷 울었다....

길은 몹시도 질적거렸다.

눈우에 비가 내리면서 설렁탕처럼 되어버린 길이였다.

발을 내짚을 때면 물쩍물쩍 물러나며 신발자리에 싣누른 물이 고여들었다. 그런데도 재빛하늘에서는 진눈까비를 계속 내려부었다.

눈이 오더니, 비가 오더니, 이제는 눈과 비가 합쳐진 모양이었다.

연희는 지금 대덕리에 산다는 영예군인 김정서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나이는 스물일곱, 해병출신, 군사임무수행중 허리를 다쳤는데 몇년째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였다.

회령에서 대덕리는 한 역전사이지만 걸어서는 40리, 내시간 길이였다.

밤일을 하고 나오니 기차는 떠난뒤였다.

그래서 걸었다.

어머니가 따라나섰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된다고 펄쩍 뛰던 어머니였다.

어느 하루 어머니는 연희를 앞세우고 30여년간을 운신 못하는 영예군인남편을 섬기고있는 녀성한테로 갔다. 거기에 갔다와서는 모녀가 서로 피하고 말도 안하는 피로운 나날이 퍼그나 오래 계속되었다.

연희는 어제밤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밤교대에 나가자고 일어나니 아래방에서 어머니가 가만가만 흐느끼는 소리와 아버지의 무거운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은듯 오늘은 제편에서 먼저 연희를 앞세우고 나선것이었다.

철길푹을 따라 걸다나니 나란히 서지 못하고 어머니는 앞에서 연희는 뒤에서 걸었다. 그 사이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앞선 어머니의 자태가 훑날리는 눈발속에 보일락말락하였다.

어머니는 서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차라리 그게 더 좋았다.

서로가 말을 꺼낼가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을 더 하랴.

비웃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지의 무릎아래도리를 적시고 신발도 적서놓았다. 하지만 연희는 바지가 젖는다는것도 습신이 점점 무거워진다는것도 길이 멀다는것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저 김정서를 어떻게 만나랴 하는 걱정뿐이었다. 바깥출입도 못하고 몇년째 누워있다는데 어느정도인지, 그를 보면 필경 해병과 대비하게 되겠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안색이 달라지지 않겠는지 그게 걱정이었다. 하지만 김정서도 해병출신이라는 생각이 그 모든 걱정거리의 무게를 얼마간 가볍게 해주었

다.

벽에 걸려있는 그의 해군복만 보아도 당장 그를 사랑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대덕리는 광산마을이였다.

대덕리 50반 김정서

어머니는 먼저 인민반장네 집으로 찾아들어갔다. 반장어머니가 허둥지둥 정서네 집에 알려러간 사이에 어머니는 딸의 젖은 옷을 벗기고 정히 싸가지고 온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는 연희를 앞에 앉히고 손수 화장을 시켰다.

검정치마에 흰눈갈은 저고리를 입고 연하게 화장을 하고 나서니 그 선명한 자태가 한송이 백합이였다.

처음 보듯 눈바투 세워놓고 딸의 자태를 주의깊게 지켜보던 어머니가 《내 딸이 분명 곱긴 곱다.》 하고는 눈굽에 맺히는 물기를 얼른 씻어버렸다.

김정서의 어머니가 허둥지둥 신발을 끌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방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앉으며 절을 하려 하였다.

《이러지 마시우. 집의 아들이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 싸우다 이렇게 되었는데 인사가 되자면 고맙다는 절은 내가 해야지요.》

김정서의 방에는 소독수냄새가 서려있었다. 그런 방에 상국한 분내를 퍼뜨려놓으며 선녀같은 처녀가 들어서자 정서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황공해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김정서를 거울앞에 기대여앉혀놓고 넥타이를 매여주느라 덤벼치고있던 청년이 얼굴이 벌겋게 되어 일어나며 꾸벅 절을 하였다.

정서의 동생 정필이였다.

한옆에 미처 내가지 못한 세수대야가 있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온것 같구만.》

인민반장이 웃으며 세수물그릇을 내갔다.

《동생은 자주 넥타이를 매주겠대, 형은 싫대, 바깥구경이라곤 못해보구 몇년을 누워있는 사람한테 새 와이샤쓰를 입히구 넥타이나 매준다고 달라질게 있겠소만 제 형을 보자고 처녀가 왔다니까 너무 좋아서 〈형님, 일어나서 맞아주지는 못해도 옷차림이야 왜 제대로 못하고있겠소, 처녀가 선보려 다니는걸 봤어요? 인사가 되자면 형님쪽에서 가야지요? 하도 고마운 세월이니까 좋은줄도 모르구...〉 이러질 않겠나요.》

정서의 어머니가 눈굽을 찌으며 어쭙게 웃었다.

큰 병원은 다 찾다다니며 수술도 여러차례 받았지만 크게 효과를 못보고 지금도 가끔 심한 동통에 시달리우고있었다.

돌만 남기고 자리를 피해주자 김정서는 웃으며 《몸이 아픈데 장가가 다 뭘니까? 고맙소만 다시는 이런 일로 오지 말아주시요.》 하였다.

그는 연희가 뭐라고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방에서 내보내고는 다시 들여놓지 않았다.

정필이 역에 따라나와 차를 태워주었다.

말 한마디 안하고 차표를 사다주더니 차에까지 따라올라와 자리잡은것을 보아주고 허리가 꺾어지게 연희모녀한테 절을 하고는 달리기 시작한 차에서 뛰어내렸다.

청년의 그 행동이 연희의 가슴을 찼다.

찾아갔을 때는 너무 기뻐 어찌할바를 모르더니 달리는 차를 따라오며 손을 저어주는 그의 얼굴에는 《우리 형님한테 다시 오지 않겠지요?》하는 서글픔이 비껴있었다.

키끌이 쑥 빠지고 목이 성큼한것이 흠할데 없이 잘난 청년이었다.

나이는 스무살정도, 김정서도 다치기전에는 동생처럼 저렇게 림름했을거라고 연희는 가슴을 울렁이며 아쉽게 생각하였다.

다시 밤교대가 돌아왔을 때 연희는 두번째로 김정서를 찾아 떠났다.

《또 걸어가려느냐?》

어머니가 걱정하였다.

《걷는것이 좋아요.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

《어머니, 안해로가 싫다면 간호원이 되겠어요. 동지로 되고저 합니다.》

《오냐, 오냐.》

어머니는 격해나는지 더 다른 말을 못하였다.

《어머니, 내 노래 하나 부를게요.》

연희는 밝게 웃어보이고나서 기타를 내왔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라면

나는야 한마음 진달래로 피리라

저 하늘의 노을처럼 이 강산을 물들이며

우리 당을 우리러 우리 당을 우리러

붉게만 피리라

2절을 부를 때는 어머니가 따라불렀다.

노래를 부르면서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가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혼자서 걸어가야 하였다.

밤일을 하고 나오면 차시간이 내내 맞지 않았다.

마침 정필이가 집에 있었다. 그도 밤일이라고 하였다. 형을 혼자 들수가 없어 직장에서 될수록 어머니와 교대를 그렇게 짜준다고 하였다.

다시 오리라고 생각지 못했던것 같았다.

《형님, 누님이 또 오셨수.》

그는 서슴없이 누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부엌에 내려가 연희의 점심을 짓느라 덤벼쳤다.

이번에도 정서는 연희를 자기 방에 들여놓지 않았다.

연희는 들고갔던 과일구력만 놓아주고 돌아섰다.

정필이가 또 따라나와 차를 태워주었다.

전번처럼 차에 따라올라와 연희가 자리를 잡는것

을 보고서야 꾸벅 인사를 하고 달리기 시작한 차에서 뛰어내렸다.

가방에 그가 몰래 넣어준 저녁밥꼭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인차 교대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연희를 생각한것이였다.

그래서 다녔다. 정필이가 자기의 교대를 따져가며 기다릴것만 같고 가지 않으면 왜 그런지 정서가 아니라 그한테 죄를 짓는것만 같아 밤일때가 오면 한번씩 찾아 떠나곤하였다.

머지 않아 정필은 군대로 간다고 하였다.

형님의 간호때문에 못갔는데 진짜로 형님을 위한 길은 형님이 섰던 초소에서 총으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것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누님이 더욱 그것을 깨우쳐주었노라고...

그러면서도 형과 헤어질 일을 은근히 걱정하였다.

그런 청년을 서운하게 할것 같아 연희는 정서와는 한마디 말도 못해보면서 열흘에 한번, 어떤 때에는 두번씩 40리길을 줄창 걸어다녔다.

그렇게 갔는데도 하루는 정서가 병색이 짙은 얼굴에 찬기운을 풍기며 공연히 아픈 사람을 더 괴롭히지 말고 이제부터 발길을 말아달라고 하였다.

그 랭랭한 시선에 놀라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는 연희를 정필이가 황황히 옆으로 끌어갔다.

그래도 다시 갔다.

머지 않아 군대로 가게 되는 정필을 서운하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때문이었다.

군대로 떠나기 전날 정필은 하루종일 형의 방에서 푹딱거렸다.

자기가 없어도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손가까운 자리로 책장도 옮겨놓아주고 답답할 땐 창문이라도 열어놓으라면서 누워서도 줄만 당기면 창문이 쉽게 여닫길수 있게 하도록 하여주었다.

혼자 있으려면 시계소리도 동무가 된다면서 소리 없는 전자시계열에다 목종시계를 걸어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언제 한번 타본적이 없는 삼륜차를 분해하여 하나하나 걸레로 닦고 기름을 쳤다.

연희는 래일아침 형제간의 작별이 꼭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필이도 그것을 걱정했었다.

하지만 걱정하던것과는 달리 작별은 사내들답게 간단하고 짙막했다.

《형님, 난 가겠어요. 꼭 일어나야 해요.》

《응, 난 안나가겠다. 이 형이 하지 못한 몫까지 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충직한 전사가 되여라.》

그들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긴 보일 사이를 두지 않았다.

형은 그 한마디를 하자마자 창문을 닫아버렸고 동생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밖에 나와서야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갔다.

정필은 연희와도 그렇게 헤어지려 하였다.

역까지는 같이 나왔지만 나와서는 제 동무들속에 휩쓸렸다가 기차가 들어설 때에야 연희앞에 나타났다.

《정필동무가 가면 이제 내가 와도 차태워줄 사람이 없구만요.》

연희는 손수 만든 당원증주머니를 그에게 쥐여주며 쓸쓸하게 웃었다. 정말이지 그가 가면 누굴 믿고 다시 여기에 다니랴.

《그러게 이제부터 괜히 고생스레 다니느라 하지 마십시오. 누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형님이 그러십니다. 지금까지만도 너무 고마웠어요.》

정필은 흔연히 웃었다.

《누님한테 무엇이나 다 바치고싶었는데 돌아갈 때 차표나 사드리구 그러다가 이렇게 누님과 헤어지는구만요. 누님에 대해 생각한다는것이 고작...》

하지만 이 정필의 마음은 누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으로 꼭 차있습니다.》

출발을 재촉하는 기적이 울고 학생취주악대가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라는 곡을 불기 시작하였다.

《떠날 시각이 된가봅니다. 내내 누님이 차타는걸 보고야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제먼저 갑니다. 누님, 안녕히 계십시오.》

정필은 예전처럼 연희한테 꾸벅 절을 하더니 차에 올랐다.

승강대에 올라선 정필의 손을 다급히 잡아쥐며 연희는 《떠나면서 나에게 부탁하고싶은것이 없어요?》하고 잡은 손을 흔들었다.

《말하랴요, 정필이 부탁이라면 무엇이나 들어줄게. 어서요.》

연희의 눈에 가랑가랑 눈물방울이 맺혀들기 시작했다.

《누님, 우리 형님을 너무 노엽게 생각마십시오. 누님앞에서는 그래도 막상 누님을 보내놓구서는 나와 누님말만 하곤했어요. 내가 누님을 바래드리고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갔니?〉, 〈갔어요〉, 〈차표는 사드렸니?〉, 〈예〉, 〈차칸이 복잡하지 않던?〉, 〈좀 복잡합니다〉, 〈네가 자리를 좀 잡아드릴걸 그랬구나.〉, 〈걱정말아요. 잡아드렸어요.〉, 〈그럼 됐구나. 기차가 지금쯤 다 갔을가?〉 이러면서...》

정필은 다시 싱긋 웃어보였다. 눈물을 참느라 애써 짓는 웃음이었다.

《누님, 잘 있어요.》

《정필이!》

연희는 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떠나기 시작한 차를 따라 달리며 애원하듯 소리쳤다.

《나한테 하고싶은 말이 그게 다예요? 정말? 왜 형수라고 못해요. 누님이 아니라 형수라 불려요. 어서 그러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을테야.》

연희는 끝내 그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정필이 눈물이 그렇게서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기적이 운것이였다.

목이 멘 청년을 보다 못해 기차가 자기의 우렁찬 소리로 대답을 대신해준것일가. 굵은돌이를 돌아가며 기차는 다시한번 길게 기적을 울렸다.

온 세상이 다 들으라는듯...

사랑의 령마루

지훈은 울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도 좀처럼 눈물이 나오지 않는것이였다.

청년시절엔 꽤 다감했는데 외과의 40년에 그렇게 령정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령정해진것이 아니라 심장이 그만큼 강철같아진때문이었다.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간혹 노동자가 기계소리에 익숙되듯이 의사도 어느 정도 환자의 신음소리에 익숙될수 있지 않는가고 하였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신음소리에 어떻게 순간인들 무감각해질수가 있으랴.

들을 때마다 심장을 쿵쿵 찌르지마는 내색하지 않을뿐이었다.

한지훈은 자기의 심장을 자기가 권 칼끝에다 옮겨놓고 사는 사람이였다. 그러기에 그 뜨거움은 찬기운을 내뿜는 예리한 칼날에서, 비계충을 허영게 가르고 드러내놓은 상처입은 뼈마디를 더듬는 그이 손가락끝에서 표현되였다.

그는 말로 환자를 위로할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정 고통스러워하면 《좀 참아봅시다. 이제 나아질거요.》, 구원을 청하는 가족들한테는 《치료해봅시다. 무슨 방도가 있겠지요.》 하는것이 그한테서 들어볼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이런 그였기에 지훈은 최연희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다 할 내색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무겁게 입을 꼭 다물고 자는듯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울자니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자니 그런 말은 지훈이 자신이 질색이었다.

위로란 무능한자가 제손으로 고칠수 없는 환자앞에서 하는 자기변명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었다.

기차시간이 되어오는지 녀인은 시계를 보고나서 이야기를 마감에로 끌어갔다.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두고 《숭고한 동지애의 발현》이라고들 하였다.

신문들도 그렇게 썼다.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뜻이 짙게 깔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결혼식상을 받고 앉은 그 시각까지도 연희는 죄스럽게도 신랑자에 대한 이렇다 할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저 자기가 반드시 사랑해주어야 한다는 동지적 감정뿐이었다.

어차피 해야만 할 결혼이니 결혼부터 해놓고 그한테 정을 주노라면 자기가 점차로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연희는 생각하였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자기들사이에도 결혼 후에 연애가 시작될지 어이 알겠는가.

이제는 그가 내 사람이라는 의식, 그는 처음부터 자기를 사랑하는것이고 이제 자신의 심장만 불태우면 되었는데 그런 불티는 인차 날아왔다.

정필이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그는 편지에 소원대로 자기가 형이 복무하던 함대에 왔으며 온 함대가 형수와 형을 알고있다고 썼다.

그들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텔레비존과 당보, 군보, 청년보를 통해 소개될 당시에 함대는 대부대기 동훈련중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군관, 병사들 모두가 기세충천하여 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사령관과 함대정치위원의 명의로 보내온 편지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정필은 영웅이 되지 않고서는 형수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는것과 그날 역두에서 헤어지면서 그렇게 부르고싶어도 부르지 못했던 《형수》라는 말을 오늘은 존경과 고마움과 자랑의 대명사로 전우들앞에서 자주 부르게 된다면서 이제 자기가 산발이 메아리치게 《형-수-우-!》하고 부를테니 들리면 《오-》하고 대답하라고 눈물겹게 편지를 맺었다.

그 편지를 두번째번씩 돌려돌려 보면서 연희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정서도 울었다.

그날저녁 연희가 출근하자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을 간호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정서당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여 정필이 있을때처럼 시어머니와 간호교대를 짜고 출근하였다.) 정서가 싱글싱글 웃으며 종이에 정히 쓴것을 가방에 넣어주면서 역에 나가 차시간을 기다릴 때 꺼내보라고 하였다.

《아니 난 여기서 보겠어요.》하고 썼던것을 펼치니 초록색모실로 뜯은 덧양말인데 앞코에 생화처럼 수놓은 하얀 목란꽃이랑... 연희는 그렇게 가볍고 곱고 탐탐하게 뜯은 덧양말은 처음 보았다.

그가 늘 먼길을 걸어 출근한다고 정서가 제손으로 뜯것이었다.

남자의 손이 어찌면 이렇게도 섬세할수 있을가.

《(이런 예술작품은 절대로 발에 켤수가 없습니다. 당장 밟게 고쳐주세요.)》

우습지요, 선생님? 안해가 남편이 뜯은 덧양말을 선물로 받다니... 우린 그날 덧양말을 하나씩 갈라쥐고 배가 아파날 때까지 그냥 웃었어요.

《침대생활 4년이 나한테 배워준 재간이요. 난 시계수리도 할수 있고 도장도 새길수 있소. 가느다란 강철철사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천정

에 붙은 파리를 세놈이나 쏘아잡았소. 1시간 20분 동안에... 옛날 어느 장수가 그랬던지... 그도 아마 제대군인 김정서의 사격술보다 썩 높지는 못할거요. 난 바느질도 잘할줄 아오. 어머니의 양말은 늘쌍 내가 기워드리오. 부실한 이 아들때문에 늘 울면서 다니시던 어머니, 당신도 양말이 해지면 벗어놓곤하오. 새것으로 만들어줄테니, 진정이요. 머리칼을 잘라 신을 삼아준다는 말이 있지. 당신은 고마우신 장군님께서 나한테로 보내주신 귀중한 동지요. 장군님의 사랑이 한떨기 꽃이 되어 우리 집 안뜨락에 피여난거요. 그래서 그 덧양말에 어머니의 머리칼이 섞였다는것을 당신이 안다면... 용서하오, 어머니가 자주 소원하시는데 난들 어찌겠소.)

선생님, 인간의 정이란 이렇더군요.

건군절에 즈음하여 시동생의 부대에서 우리 부부를 초청한다면 차를 보냈기에 우린 우리대로 성의껏 위문품을 마련해가지고 갔더니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동무들이 왔다면서 수백의 장병들이 와 달려나와 정문에서부터 우리를 목마에 태워 맞아들이는데... 돌아올 때는 부대장동지가 직접 내 앉은 좌석에 방석을 깔아주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꽃방석인데 집에 와서보니 금실로 이런 글이 새겨져있었습니다.

《그대 중상당한 병사 하나 남편으로 맞아들여 사랑해주시 1만의 병사가 힘을 내도다. 그대의 사랑 1만의 병사를 대신하는 폭탄이여라.》

선생님, 이제는 제가 김정서동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으시지요? 그한테 나날이 정이 쏠려갈수록 그저 이따금 료양소에서 해병과 작별하던때가 떠오르면서 그가 나를 원망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가 원망할가요?》

지훈은 격한 생각에 숨이 꺾 막혀왔다.

《원망하지 않소.》

지훈의 목소리는 마디마디에 연딩이를 매달아놓은것처럼 무게있게 울려나왔다.

《동무가 남편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그 해병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고맙게 받아들일거요. 왜냐하면 동무의 사랑을 어느 한사람과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군대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되었고 꽃피여난 승고한 감정이기때문이요. 해병은 그것을 리해하오. 그건 내가 장담하오.》

너인은 감사에 넘친 표정으로 눈물이 그렇게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해병의 부모들도 동무를 고맙게 생각할거요. 이제 남편의 병이 좀 나으면 같이 한번 찾아가시오. 꼭 찾아가시오. 기다리고있을거요. 갈 때는 그 어머니가 준 천으로 옷을 해입고 가시오. 내말대로 꼭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앓아누웠던 어머니가 죽었던 아들과 머느리가 왔다고 버선발로 달려나올거요. 어머니의 병도 나을거요.》

지훈은 자기의 목소리가 몹시 같리고 떨린다는 것을 알고는 실수할것같아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선생님, 힘되는 말씀을 해주어 정말 고마워요.》

연희 역시 목이 메어 이 말을 가까스레 하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앓고계신가요? 선생님, 중하게 앓습니까?》

마침 안내원이 들어와 온성-평양행열차를 개찰한다고 알려주었다.

《잘 있으라구. 내 진찰을 받아보겠다구 그렇게 기다렸다면데 아무런 도움도 못하고 돌아가자니 동무보기가 죄스럽소.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를 도와줄수 없을 때의 심정이 더 괴로운거요.》

이보라구, 난 우리 장군님을 왜 잘 받들어야 하는지를 연희보다 더 잘 알고있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요. 당원이구. 그런데도 연희보다 훨씬 못하구만. 동무는 전지도 아닌 때에 장군님을 받들어 화구를 막았지만-그럼소, 난 화구를 막았다고 주장하오.-난 그렇지 못하오.

내 소견에 동무의 남편은 수술적응환자요.

수술을 하면 완치될수 있거나 현상태보다 호전될수 있는 환자를 두고 그렇게 말하오. 하지만 지금의 건강상태로는 수술을 받아내지 못하오. 그렇다고 이제 환자의 몸을 추켜세울만한 방도가 나한테 아직 없구만. 이제 헤어지자구. 알겠소. 내 다시 와보지.》

손을 흔들며 따라오던 연희의 모습이 흙의 불광과 함께 사라졌을 때에야 지훈은 자기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맺혀있는것을 알아차렸다.

세번째로 회령에 다녀와서 반년만에 한지훈은 도민병원 수술실에서 김정서를 수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관심하였다.

지훈의 안해도 병원으로 찾아와 수술이 진행되는 3시간 40분동안을 수술장밖에서 초조하게 오락가락하였다.

그때를 회고하여 한지훈은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었다기보다 매우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말하였다.

수술도중에 환자의 맥박이 떨어져 손맥을 다 놓았었는데 일이 되느라고 그랬는지 호흡이 되살아나더라는것과 집도자 자신보다도 자기의 이마에서 견잡을새 없이 흘러내리는 진땀, 식은땀을 닦아주노라 옆에 서있던 초급당비서가 더 혼이 났으며 수술마감무렵에 청수를 압박하고있던 부스러진 뼈 하나를 건드렸는데 그 순간 4년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던 환자의 다리가 감전이 된듯 후들 뛰었다라는것, 그러자 옆에 있던 두사람이 저도 모르게 동시에 《만세!》하고 낮게 웅성했다고 하였다.

수술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데는 퍼그나 오랜시일이 걸렸는데 그 기간은 환자의 몸을 보양하면서 새로운 수술방법을 얻어내기 위한 탐구의 나날이면서도 수술에 결코 응하려 하지 않는 환자를 설

복하는 안타까운 나날이었다.

환자는 이미 받은 수술만 생각해도 몸서리쳐지는 데다 자기를 마감으로 수술해준 의사자신이 앞으로 더는 수술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그 누가 찾아가도 도리를 저었다.

지훈이자신이 사정하고 최연희가 울면서 사정하고 나중에는 앓고있던 지훈의 안해까지 환자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마감날에 가서야 김정서는 자기때문에 과장선생님의 한생의 공적에 흠이 가게 할수는 없으니 제발 1만번째 수술환자를 다른 환자로 택해달라고 사정하였다. 자기도 내용을 다 알고있었다면서...

《그게 동무의 본심이였지... 짐작은 하고있었소.》 한지훈은 하루하루 생의 불꽃이 사그라져가고있는 환자한테서까지 자신보다 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의 말을 듣게 되자 더욱 괴로와 성난듯 툭툭하게 말하였다.

《사람이 죽구살구하는데 1만번째, 2만번째요 하는 그런 인위적인 순서가 뭇때문에 필요하오?》

그리고는 고맙다는 의미로 목소리를 인차 친근하고 부드럽게 바꾸었다.

《동문 1만번째가 아니라 첫번째야. 한생의 총화로그 아니라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숫된 심정으로 동무를 수술하겠소. 무엇이 예수살이 넘은 이 늙은이로 하여금 그런 갱소년할 용기를 주었을까 곰곰히 생각했소. 바로 동무들이고 동무들과 같은 인간의 본보기들을 수없이 탄생시킨 시대가 아닌가 하오. 이제 꿈만 한번 꾸고나면 21세기요.》

새 세기로 들어서는 문전에서 우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었소. 말그대로 설레이는 21세기가 눈앞에 왔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우물대면서 늙은 세기의 문턱안에 그냥 남아있고싶지는 않더라 그 말이요.

정서가 수술에 응해주니 기쁨김에 내 긴말을 한가보오.》

수술대에 눕힌 환자한테 마취제를 주사하고 그가 잠들기 전순간에 다시 몇마디의 짙막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여기서 김정서는 혼몽해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지훈에게 선생님이 누구시라는것을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누군 누구겠나. 오늘부터 김정서의 아버지로 돼주어야 할 늙은이지. 정서도 아들이 돼주어야 하오. 그래서 내 수술을 받는것만큼 마음놓아도 돼. 죽으면 같이 죽자구.》

더 적어서 무엇하랴.

그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어느한 신문에는 《사랑의 령마루》라는 이채로운 제명필에 바야흐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행복한 한 영예군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흡족한 마음으로 그 신문을 받아 읽고있던 그 시

각까지도 한지훈은 이제 다시 몇달후이면 고투리를 단 녀석이 태어날것이고 바로 그 《손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들이 회령에서 청진까지 수백리길을 자전거로 달려오게 된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다.

아직은 실수할가 조심해가며...

1999. 3 어랑에서

상식

고질적인 침묵은 건강에 해롭다

《침묵은 제일 큰 처벌이다.》

이 말은 로씨야작가 레브 톨스토이의 명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 특히 외롭게 지내는 파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언으로 된다.

항상 침묵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묵이 처벌로 된다고보다는 병을 가져다준다는것이 더 적당할것이다.

물론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침묵이 하나의 성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침묵해있고 말하기를 주저하며 무슨 일이든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몸에 해로운것이다.

우선 침묵하면 소침해지고 소극적인 심리가 생겨나며 또 정신적으로 긴장해진다. 그리고 장시간의 《긴장상태》는 뜻밖의 질병을 초래할수 있다.

다음으로 침묵은 침착성이 아니다. 그것은 우울증의 전주곡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우울증환자가 병에 걸리기전에 파묵한 사람이였으며 발병초기에 특별히 침묵하고 주위의 사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속시원히 말도 안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했으며 음악도 즐기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우울해있고 쓸쓸하게 지냈다.

다음으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주 저도 모르게 정신적구속에서 심리적모순에 빠져있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건의 초기에는 얼마간 흥미를 가지지만 그 어떤 저항에 부딪치면 의식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될수록 침묵을 지킨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의 감정은 구속되고 답답한 상태에 처해있게 된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알보는 병태적인 심리가 생기게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성미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성격도 괴벽해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침묵해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마음도 넓게 가지고 생활속에서 웃음꽃을 피워나가야 건강에 좋다.

큰 기쁨

김정호

할아버지의 잔등이 기관차란다

자기 두팔은 차바퀴란다

손자에 몰아가는 《남행열차》

급하구나 웅골차게 울리는 기적소리-

벌써 장벽도 철조망도 넘었다누나

나도야 떠나온 고향이 눈앞에 다가온듯

손자에 태우고서 칙칙폭폭-

좋아라 해죽해죽 밝게 웃는 손자녀석

그에게도 나라의 통일이

기쁨중에 가장 큰 기쁨이구나

로숙한 형상

김홍섭

오래고 풍부한 창작경험을 가진 소설가 백보흠은 무게있는 장편소설을 여러편 창작하였을뿐아니라 품위높은 단편소설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가 이번에 창작발표한 단편소설 《백두산바람》(《조선문학》 주체87년 10호)도 작가의 로숙한 형상기교를 잘 보여주고있다.

형상이 로숙하다는것은 소설형상에 작가의 오랜 경험이 쌓여진것이 알리고 창작기교가 세련된것이 보이고 형상수단과 수법을 능란하게 구사하고있는것을 넘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 작품을 읽고 형상이 로숙하게 그려졌다고 느끼게 되는것은 무엇보다 주인공 문공술의 성격을 진실하게 묘사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과 사건을 설정해놓은 다음에는 그 발전과 정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따라 인내성있게 파고들어가 스스로 결과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단편소설은 생활론리, 성격론리를 따라가면서 성격형상을 인내성있게 파고들어가 스스로 결과에 이르도록 창작할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물론 생활과 성격 론리를 따라 진지하게 파고들어 생활형상, 성격형상이 스스로 안겨오도록 묘사하는것은 장편소설창작에서 응당한 보편적자세로 되여야 한다. 그렇다고 생활의 한 단면을 그리게 되는 단편소설창작에서 생활론리, 성격론리가 도외시되거나 파소평가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성격의 발전과정을 그리게 되는 장편소설인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고 성격의 한 단면을 섬광처럼 밝히는 단편소설창작에서도 그의 론리성은 보장되여야 한다.

단편소설창작에서도 성격묘사의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고있는 작가는 이미 성과작으로 발표한 《천암산》, 《발걸음》에서와 같이 《백두산바람》에서도 비교적 길게 소설을 쓰고있으며 짧은 기간의 성격발전을 그리고있으나 후일담까지 이야기하다보니 전자의 단편소설들처럼 주인공과 중요인물의 한생애 대하여 말하고있다.

단편소설이지만 주인공의 일생이 련상되도록 묘사하고 해설하지 않고 스스로 형상이 무르익도록 그려내며 인간형상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살아나도록 창작하는 기교에 그의 로숙함이 있다.

소설은 작가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문공술이라는 한 청년에게서 받은 《반성문》을 오늘 현실

의 요구에 비추어 공개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반성문의 필자는 문공술이고 그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작품은 편지체 1인칭소설형식이다.

어느 한 공장에서 연공으로 일하고있던 그는 백두산에 삭도권양기를 설치할 파업을 받고 30명 청년돌격대의 한 성원으로 여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로동현장으로 진출하게 된것은 거기서 당원이 되고 영웅이 된 다음에 대학으로 진학하려는데 있었다. 스물한살 청춘기인이 시절에 그의 지정곡은 《나도야 전화의 그날에 청춘기를 맞았다라면 불토하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으리 리수복영웅처럼, 영웅처럼》이였다.

대건설장에 나가야 영웅이 될수 있다는것을 주장해온 그가 백두산에 처음으로 세우는 삭도건설에서 가슴에 번쩍이는 금별의 수훈자가 되기를 꿈꾸는것은 자연스러운 성격론리이다.

그러나 생활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격대의 《기동선수》로 생각하던 그는 취사원으로 임명받았다. 취사원의 임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는 식사를 제대로 보장 못했고 후방사업을 맡아본다는 시중아바이와 함께 건설장에 빵을 날라가다가 도중에 백두산폭풍을 만나 빵배낭을 잃어버리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공장에서 보내온 권양기가 도착하였다. 권양기운반은 걱정말라고 큰소리를 쳤던 그는 정작 권양기가 도착하자 그것을 운반할 아무런 방도도 내놓지 못했다. 시중아바이는 내용없이 흰소리만 친 그를 비판한다. 돌격대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운반안대로 해체한 권양기를 목도로 나르게 된다. 시중아바이는 《...자네하고 나도 한조 무어서 피뢰탑을 들고 가》자고 제기한다. 그때 그는 자기가 용감하지 못한 비겁한 청년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시중아바이와 한조가 되여 피뢰탑대를 맞잡고 비발속을 누려나가는 과정에 벼락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발을 헛디디여 시중아바이의 허리도 상하게 하고 아바이가 소리치는대로 번개불을 마주 쏘아보며 주위의 귀중한 동지들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전진하는 두시간동안에 그는 수십년간과 맞먹는 귀중한 인생체험을 하게 된다.

생활의 흐름따라 변화발전하던 그의 성격은 세찬 백두산바람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연공영웅인 성준대장이 그를 아끼느라고 연공작업이 없을 때에 휴식시키기 위해 취사원을 시킨것을 알게 되고 자기도 연공이였다고 하는 시중아바이가 늘 옆에서 깨우쳐주었기에 문공술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출세욕에 불타던 개인영웅주의는 사라지고 백두산바람의 영향 밑에 대중적영웅주의가 자리잡게 된다. 하여 그는 백두산 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와도 생명을 내대고 기증기우에서 연공작업을 하였다.

연공작업을 끝내고 권양기조립을 마무리하는 순간 그는 작업도중 굴러떨어져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백두산바람은 인생의 최고 전당에서 나를 꾸짖고 가르쳐주고 키워준 엄격한 스승이었다고 이 말속에는 백두산바람속에서 자기를 키워준 박시중아바이에 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이 굵아치고있다.

문공술의 성격발전은 그의 후일담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지고있다. 문공술은 3년후에 입당하고 4년후에는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하여 오늘까지 5년간 묵묵히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메탄가스탱크를 만드는 등 수많은 위훈을 세웠다.

세월은 명실공히 그가 숨은 공로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소설은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이 되겠다던 문공술이 백두산바람을 겪으면서 숨은 공로자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지하게, 인내력있게 형상하였다.

단편소설이 안겨주는 로숙한 형상이라는 강한 인상은 당일군을 로숙하게 잘 형상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당일군의 형상은 당일군이기전에 인간으로 그려져야 하며 개성적으로도 다양하고 생신하게 그려져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작가는 지금까지 우리 소설작품들에 흔히 등장하던 당일군들과는 다르게 당중앙위원회 일군을 특색있게 묘사하였다.

박시중아바이는 당일군이기전에 응심깊은 참된 인간이며 주인공이 백두산바람을 뒹개 맞도록 꾸짖고 키워준 엄격한 스승이다.

박시중이 소설의 지면과 주인공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초상을 보면 《얼핏 보아 선네땃살 뚝뚝한 중늙은이인데 동상을 입었는지 얼굴에 콩알같은 물집들이 수없이 돌아나고 입술이 온통 부르러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나》의 물음에 그는 후방사업을 하면서 두루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무뎠던 투로 말하였다. 시중아바이는 주인공의 성격장성과정에서 본것처럼 문공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이끌어주고 실천적모범으로 깨우쳐주는 로련한 일군이다. 《나》는 시중아바이를 단순히 후방사업을 하는 늙은이로 알면서도 그의 인정과 정통을 찌르는 충고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 저도 모르게 자라나게 된다.

시중아바이는 《나》가 취사원의 첫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달아났을 때는 《자유주의를 하면 못 써!》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폭풍에 넋을 잃고 빵배낭을 잃어버렸을 때는 배낭을 찾아 눈속을 헤집기

도 하고 어깨를 늘어뜨린 《나》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나》가 권양기운반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흰소리만 천것을 알고 시중아바이는 그런 사람이 제일 역겹다고 노기에 떨다가도 인차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른다. 피뢰탑을 함께 들고가자고 고무하던 시중아바이는 버락치자 공포에 떠는 《나》를 보고 《공술아! 눈을 뜨라! 번개불을 마주 쏘보라. 그래야 그놈이 너한테 달려들지 못해...》, 《눈을 감으면 또 넘어지네.》라고 웨치며 죽음을 맞받아나아가는 영웅아바이이다.

피뢰탑을 맞잡고 오르다가 《나》때문에 허리를 다쳐 운신 못하다가 동침을 서너대 맞고 모진 백두산바람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설자들을 찾아다니며 쿡우유도 따라주고 더운물도 공급하며 위훈으로 고무하는 시중아바이, 《나》가 혁신자가 됐다고 아무도 못꺾게 했던 만병초꽃다발을 안겨주는 진정한 《후방일군》, 《나》가 발판에서 떨어졌을 때 백두산에서부터 삼지연군병원까지 안고온 친아버지같은 시중아바이.

소설은 박시중아바이가 당중앙위원회 일군이라는 것을 작품마감에야 독자나 주인공에게 소개함으로써 겸허한 당일군의 성격을 더욱 특색있게 살려내고있다. 《나》뿐아니라 다른 건설자들도 다 시중아바이를 무두봉숙영소의 후방일군으로 알고있었다. 그런 박시중아바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백두산삭도 건설을 지도하기 위하여 내려온 당중앙위원회 일군인 것이었다. 당일군의 형상 창조에서 이런 숨김법의 리용은 전형적성격을 더욱 깊이있게 둔구고있다. 작은 숙영소의 후방일군인 줄만 알았던 시중아바이가 마감에야 당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일군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독자들도 커다란 감동에 휩싸이게 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서의 그의 사업과 생활, 사람됨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

조금도 허물없이 《나》를 대해주며 못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눈보라 울부짖는 산마루나 취사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언제나 배낭을 지고다니는 아바이, 조금도 권세를 부리지 않고 스스로 앞장에서 서서 투신하고 어린 청년들도 친우로, 혈육처럼 대해주는 로숙한 당일군의 형상이 무뎠던 후방일군의 모습을 밀어내면서 독자들앞에 생동하게 부각된다.

작품의 이 마감부분은 감정조직의 폭발점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후방일군으로 느끼게끔 숨김법을 써서 주인공과 독자들의 감정을 축적해오다가 급전시켜 그가 당중앙위원회 일군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쌓였던 감정은 폭발되고만다. 그 강력한 폭발력으로 하여 독자도 주인공도 커다란 감동에 휩싸이게 된다.

소설은 후일담에서 그가 협동농장에 나가 일을 돕다가 논판에서 순직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아까운 당일군은 갔으나 잊을수 없는 그가 지금

도 곁에서 사람들을 교양해주고있는듯한 감을 안겨주고있다.

언어는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이며 창작적개성의 물질적표현수단이다. 작가는 자기식의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있다. 그는 언어를 가지고 잔재간을 피우려 하거나 까다롭게 서툰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 그는 현란한 문장보다 은근하고 속깊은 표현을 좋아하고 기발한 어휘보다 적중한 단어를 고르고 간명한 단순문보다 비교적 풀어 이야기하면서 짙막한 철학적명언을 즐겨쓰고있다. 이런 언어문장구사의

작가적개성은 로숙한 형상창조에 알맞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로숙한 형상을 창조하는 작가적개성이 그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있게, 은근하고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그의 개성적문제가 로숙한 형상을 품위있게 하였을수도 있다.

《백두산바람》이라는 제목도 박시중이라는 이름도 참으로 뜻깊다. 작가는 작품 마지막에 꼭 한번은 백두산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정갈하게 씻어야 한다고 호소하고있다.

가사

적기가는 조선의 행진곡 외 1편

김경기

원췌의 심장에 불지른 노래
노예의 멍에를 불사른 노래
아 적기가는 조선의 행진곡
피바다 헤쳐온 백두의 행진곡

역경을 순경과 바뀌은 노래
죽음을 영생과 바꿔준 노래

아 적기가는 조선의 행진곡
불바다 헤쳐온 승리의 행진곡

한별을 웅위한 자폭의 노래
장군님 보위할 총폭탄노래
아 적기가는 조선의 행진곡
만대에 이어갈 영원한 행진곡

비행사와 종다리

비행을 마친 기쁨에 넘쳐
휘파람 불며 돌아오는 길
어데서 누가 피리부는가
올려다보니 하늘종다리

나나나나나 너는야 봄새 나는야 불새
네 나는곳은 아득한 창공
내 나는곳은 창창한 우주

너의 그 재주 내가 닮았나
나의 이 재주 네가 배웠나
내려오면서 은피리 불고
올라가면서 금피리 부네

나나나나나 너는야 봄새 나는야 불새
네 날개우엔 꽃구름 둥실
내 날개밑엔 금과도 넘실

검은 날개들 얼씬 못하게
내 붉은 날개 높이 펼치리
불고불어라 행복의 피리
날고날아라 구만리 창공

나나나나나 너는야 봄새 나는야 불새
네 하늘길은 봄노래 만리
내 하늘길은 불구름 만리

상식

사람의 견딜성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90일동안 살수 있다.

사람이 갈증을 견디는 날자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16℃~23℃에서 약 10일간,

26℃에서 9일간, 29℃에서 7일간, 33℃에서 5일간, 36℃에서 3일간 살수 있다.

열에 대한 사람의 견딜성은 72℃에서 1시간, 82℃에서 49분간. 93℃에서 33분간, 140℃에서 26분간이다.

고향과 나

최양주

무릇 고향에 대한 말을 시작하면 사람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그려워진다.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 일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속에 애뜻한 정이 그득히 차오르는가 하면 사랑의 속삭임과도 같은 향수가 북받쳐오르며 꿈속에 잠기기라도 한듯 추억의 노를 저어가기도 한다.

10여년만에 고향을 찾아떠난 이번 나의 여행은 류다른 감정을 자아냈다. 차창가에 언뜻언뜻 비쳐드는 모든것이련상의 아름다운 화폭들을 펼쳐보이기도 하고, 가물거리는 신기루너머 어데서인가 철부지시절 남녀소꿉동무들 손에 손을 잡고서 금잔디 푸르른 방천길을 걸으며 즐겨 부르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것 같기도 하고...

그리웁다. 정말 그리워... 이 세상이 온통 기쁨과 웃음으로 꽉 찬것만 같이 안겨오던 유년시절이, 그 시절의 발도장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을듯싶은 고향의 산과 들이...

격세지감이라더니, 뿌듯해진 눈으로 바람결에 나뭇기는 어머니의 흰저고리고름을 자꾸만 돌아보며 조국보위초소로 떠났던 내가 어깨우에 별을 달고 귀향길에 올랐으니 그 심정 무엇이라 말하랴.

렬차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싣고 기세 좋게 달린다.

긴긴 밤 황홀경의 별바다를 펼치었던 검푸른 하늘이 어느덧 선홍빛으로 물들고...

비교적 긴 여행을 함께 하게 된 두 동행자들도 나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좀 수다스러운편인 얼굴이 둥실한 30대초엽의 사람, 오래간만에 집으로 간다는 속도전돌격대제복을 입은 처녀... 렬차안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우연히 만난 그들 두사람은 한고향출신들이었다. 나보다 대여섯 역전전에 내리게 될 산간마을, 그곳이 두 사람의 고향이란다.

해마다 이맘때면 휴양삼아 고향에 다녀오곤한다는 30대의 사나이가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열성스레 말했다. 이를테면 고향사랑이라 하겠다. 표현 또한 어찌나 생동하게 하는지 그 세련된 형상기교앞에 감탄할 정도였다.

봄이면 온 동네가 하얀 배꽃속에 묻힌다는 마을... 송이버섯, 찌리버섯이 많이 난다는 매봉산...

들판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모양이 조막손같다하여 그대로 고장이름이 되었다는곳... 싱그러운 들바람을 맞으며 시오리가랑 술을 건느라면 천령놀이하기 그저그만인 바다가 도래굽이가 나진다는곳...

아마도 사나이는 남달리 고향을 사랑하는것 같았다.

한고향사람이건만 무던히도 얹전해보이는 처녀

는 무릎우에 두손을 올려놓고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었다. 때로는 보조개가 움푹하니 패인 발기우리한 량볼에 웃음을 담을뿐...

사나이의 고향사랑은 나에게 정든 고향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불러 일으켜주었다.

나의 마음은 푸르른 하늘가 저 멀리로 날으는 기러기때마냥 못견디게 그리운곳으로 훨훨 내려쳐간다.

나의 고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들의 위훈을 길이길이 전해가며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어랑천, 그 기슭에 자리잡은 고장이다. 렬사들의 합장묘가 안치된 봉강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커다란 바가지에 조가비들을 퍼담은것 같은 마을, 버들숲 우거진 어랑천기슭에 서서 둘러보면 병풍처럼 늘어선 깎아지른듯한 절벽가에 염소떼, 양떼들이 점점이 널려져있는 풍경... 이제 가면 올사과가 익었을테지, 집집들에선 풋강냉이 삶는 구수한 냄새가 풍길것이고 발가송이아이들이 백설같은 어랑천 모래밭에서 송아지처럼 꺽충꺽충 뛰놀것이고... 고향을 떠난지도 어느덧 십여년, 그동안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정든 고향사람들, 어릴적동무들은 다 잘 있는지. 고향마을도 이제는 몰라보게 변했을테지...

한가지 의문스러운것은 깊은 사색에 잠겨 노상 차창밖을 바라보는 처녀의 모습이었다. 고향이 점점 가까와질수록 이상하리만치 말이 없던 처녀의 얼굴엔 당황해하는것 같기도 하고 초조감과 불안감이 뒤섞인듯싶은 미묘한 표정들이 비끼는것이였다. (왜 저렇가? 몇년만에 고향을 찾아간다면서?...)

렬차는 도중역에 잠깐 멈추어섰다.

내리고 오르는 손님들로 일시 혼잡을 이룬 역구내를 내다보던 처녀가 별안간 소리쳤다.

《아이, 윤희 어머니 아니예요?!》

여행용들가방을 두손으로 맞잡아든 나이지숙한 녀인이 머리를 쳐든다.

《아이구나. 너 옥별이 아니냐!...》

《네. 저예요, 옥별이예요...》

《맞구나! 원, 이런... 내 얼른 올라가마!》

그 다음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때아닌 《소동》을 일으키며 처녀와 녀인이 렬차안에서 뜨겁게 포옹하고... 그들을 위해 자리를 좁혀왔게 된 나의 얼굴엔 스스런 미소가 피여올랐다. 처녀는 줌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천진한 소녀처럼 웃고 떠들며 녀인이 숨 한번 돌릴새 없이 연거퍼 이런저런 질문을 들이댄다. 너무나 열렬한 상봉이여서 한고향사람인 30대의 사나이는 렬차가 떠난지 얼마후에야 한마디 끼여들수 있었다.

《아주머니,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제야 너인이 귀머리를 쓸어올리며 돌아본다.
 《누구신지? 어데서 많이 본것 같긴 한데.》
 《제 영철이 삼촌입니다.》
 《영철이 삼촌이라니... 어느 영철이?》
 《허!-...》 사나이는 난감한 기색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느라 찢찢했다.

듣고보니 너인네와 그리 멀지 않은곳에 사나이네 집이 있었다. 눈이 좀 어두운지 상대방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던 너인이 마침내 삭막해진 기억의 갈피속에서 어느 한 끄트머리를 집어냈다.

《그러니까 임자가 양수기운전공을 하던 박령감의 셋째로구만. 자랄 땐 장난이 세차더니만...》 하고는 별로 흥미가 없는듯 처녀쪽으로 돌아앉았다.

텔레비죤에서 처녀를 여러번 보았다는것이며 그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신문에서 보고 온 동네가 들썩했다는 등... 너인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처녀는 부끄럽게 뭘 자꾸 그리느냐는듯 수줍음을 타며 얼굴을 붉히고... 사나이는 한고향 너인에게서 외면당한것이 어색한지 담배연기만 푹푹 내뿜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 두사람을 대하는 너인의 대조적인 태도, 그것은 어찌 보면 두사람에 대한 고향의 태도가 아닐가.

누구나 고향을 사랑한다고 말들은 쉽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써 하는것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것이다. 고향을 위해,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피와 땀, 소중한 청춘시절 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을 때에야 자기가 진정 고향을 사랑한다고 몇몇이 긍지높이 자부할수 있는것이 아닐가.

나는 어데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돌격대제복차림의 처녀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정든 고향집을 떠난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조국의 드넓은 대지에 청춘의 후더운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리였을 처녀, 비록 고향집과

멀리 떨어져있었어도 향촌마을사람들속에서 영웅처럼 떠받들리우고있는 처녀... 리없이 맑은 두눈, 다정스러운 목소리, 얼굴에 함뻍 어린 웃음... 그 모든것을 한마디로 응축할수 있는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뿐이었다.

사랑에 취한 사람은 순진하다. 더없이 소중한 그것을 위해 땀과 뉘을, 지어 피와 살까지 서슴없이 바치고도 그앞에 마주설 때면 미쳐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것이 참사랑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때문이라. 고향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질수록 처녀의 얼굴에 각이하게 비끼였던 그 당황함, 초조, 불안, 수줍음...

나는 상상해본다. 붉은기 세차게 휘날리는 철길건설장, 발파소리 드높은 언젠건설장, 준공의 테프를 끊는 어느 다리건설장에서 터져오르는 만세의 함성소리... 그속에서 이마에 구슬같이 내뿜은 땀방울을 손등으로 씻으며 조용히 웃음짓는 처녀의 모습!

조국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몇몇이 바쳤기에 바로 그렇게 웃을수 있고 그렇게 말할수 있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수 있으리라!

이제 고향땅에 들어서면 처녀를 맞아줄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떠오른다.

고향사람들이 안겨주는 축복의 꽃다발속에 묻힐 처녀!

그들앞에서 처녀는 몇몇이 말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고향을 사랑한다!》라고.

렬차가 멈춰섰다. 처녀와 나이지숙한 너인, 웬일인지 얼굴색이 변한 사나이도 고향역에 내렸다.

잘 가라, 잘 있으라 손저어 인사를 보내며... 길게 울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우리는 작별했다.

렬차는 달린다. 나의 고향이, 정다운 나의 고향이 가까와진다, 가까와진다!

나는 차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문득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 고향은 이 아들을 어떻게 맞아줄가?

가사

어서 만납시다

리명옥

통일이 하나의 강토이라면
 우리는 그 품에 안겨살 민족
 만나면 순간에 뜻을 합치고
 다시는 헤어못질 민족입니다

대대손손 우리 민족 부강번영은
 통일강국 품안에 다 있습니다

통일은 통일은 하나의 혈맥
 우리는 그 피줄로 살 민족입니다

백두와 한나가 힘을 합치면
 우리 힘 당할자 세상에 없습니다
 민족의 아리랑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 내 나라를 건설합니다

술을 끊은 리생(리생계주)

김재국 작(19세기)

리원희 윤색

수백여년전 한양에 리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있었다. 항상 술만 마시고 잡된 계집을 상관하느라 글 공부도 잘 아니하고 가사도 잘 돌보지 아니하는 리생은 집안의 큰 우환거리로 되었다.

허나 그 형은 사람됨이 단정하여 소년시절에 등과하였으며 그 벼슬이 점점 높아져 참판에 이르렀다가 평안감사를 또 제수받게까지 되었다.

그러니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데 그중에서도 그 동생 리생이 더욱 좋아하나니 그것은 평안감영에 고운 기생이 많고 또 감홍로라 일컫는 맛좋은 소주가 있어 리생이 만일 그곳에 가면 고운 계집 상관키 좋고 좋은 술 잘 먹기 좋겠은즉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 형이 평안도로 떠나는 날 동생인 리생에게 언제 자기 있는대로 오겠느냐고 물으니 리생이 7월 열흘날 가겠노라고 대답을 하였다.

《부디 그날에 오면 기쁘게 서로 만날것이니 조금도 어기지 말라》는 부탁을 남기고 길을 떠난 형은 평안감영에 가서 부임한후 대엿새후에 기생점고를 하고는 그중의 가장 절묘한 기생 하나를 골라내었다.

평안감사는 그 기생에게 은근한 말로 《내가 너를 쓸곳이 있으니 내 말대로 하여 일이 되면 돈 천냥을 상급하리라.》하며 무슨 계교를 가르치며 또 많은 하인중에 민첩한놈 수십명을 골라내어 무슨 계교를 가르치고는 그 동생 리생이 오는곳으로 보내었다.

이때에 리생은 서울 있으면서 평안도로 가기를 바빠하다가 약속한 때가 되매 하늘소를 타고 하인 하나만 데리고 평양길을 재촉하였다.

평안감영을 채 못가서 30리쯤 되는곳에 주막이 있었는데 술과는 계집이 소복을 입고있는것이 보던중 제일이요 주막 또한 정결하고 음식도 매우 조촐하니 어느 하나라도 좋지 않은것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 주색에 능통한 리생의 마음이 어찌 방아간을 지나는 참새와 같지 아니하겠는가.

다시 보니 주모의 얼굴과 태도는 더욱 아름다운지라 리생은 하인에게 하늘소를 잡고있으라 하고는 저 혼자 주막에 들어가 술을 청하며 그 계집과 희롱의 수작을 하기 시작했다.

주막집의 계집 또한 낮익은 사람같이 정답게 대해주니 본시 탕자인 리생이 술을 만취도록 퍼마시며 온갖 추잡한 말로 기롱하는속에 해는 이미 서쪽

에 기울고 어느덧 황혼이 되었다.

리생의 하인이 밖에서 더 기다릴수 없어 빨리 가기를 재촉하니 《네 어찌하여 그렇듯 심히 재촉하느냐. 너는 빨리 한발 먼저 가서 평양 읍내 삼문밖이나 술집에서 나를 기다리다 래일 오시(11시~13시)에 만나되 네 먼저 선화당에 들어가서 내가 온걸 사또께 알리지 말아라.》라고 호령호령하며 쫓다싶이하여 보내었다.

하인이 대답을 하고 물러가자 리생이 이제는 아예 그 계집과 한가지로 마음을 탁 풀어놓고 온갖 음탕한 수작을 하며 좋은 술과 기름진 안주를 랑껏 먹으며 기꺼이 즐기었다.

그 계집이라는데 본래 감사가 보낸 기생이라 감사와의 약조대로 아무토록 리생을 만취케 하려고 술을 자꾸 먹이는것인데 어찌 리생이 그 계교를 다 알수 있겠는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방에 누워 우뢰소리같이 요란하게 코를 골며 세상일을 깨달을수 없게 된 판에 감사가 보낸 수십명 하인들이 주막집에 와서 계집에게서 리생이 취한것을 알고 술이 다 깨서 정신을 차리기전에 감사의 계교대로 일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여러놈이 큰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리생을 쇠사슬로 결박하고는 팔다리를 둘러메고 어데론가 잡아 가는것이였다.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며 풍우같이 몰아가니 이때에 리생은 술이 거의 깨여갈 지경이더니 이 일을 당하여 오히려 술에 다시 취하는듯하였다.

리생이 가만히 눈을 떠보니 그 형상들이 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흉상, 괴상이였다.

어떤놈은 얼굴이 푸른 빛이요 또 어떤놈은 얼굴이 이상하게 붉고 또 다른 어떤놈은 그 얼굴이 먹빛보다 더 검은데 다 각각 이상하고 흉악한 빛갈의 옷들을 입고있었다.

혹 어떤놈은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이상한 칼과 창을 가지고 또 어떤놈은 무쇠로 만든 룡잠(끝에다가 뾰족한 쇠창을 끼운 몽둥이)을 가졌는데 저희끼리 말할 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되 혹 어떠한 때는 리생을 잡아 염라대왕께 가서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적에 술과 계집만 좋아하고 부모처자, 형제에게는 패륜무도하였으니 그 죄로 지옥에 보내기를 판단한다 하는 말이 들려오는지라 리생이 취중에도 제가 죽어서 귀신에게 잡히여가는 모양이라

생각하였다.

그런즉 겁도 나고 무서워 다시 정신이 흐릿해지니 아주 죽지는 아니하였으니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아 모든것이 다 이상히 여겨지었다.

귀가에 휘휘 - 바람소리만 나도록 드바빠 물아가는데 어느 한곳에 이르러 또 눈을 떠보니 불빛이 하늘에 닿은듯하고 산갈기도 하고 구름갈기도 한데서 아주 피이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애고, 애고.》 하는 것이 심히 혹독한 형벌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내지르는 사람의 비명인지라 (내가 참으로 죽어서 지옥에 왔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고, 내가 세상에 있을제 종놈들이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염라대왕이 잡아다가 결단한 후에 죄를 지은 데 따라 형벌을 가한다 하기에 내가 항상 거짓말이라고 하였더니 지금 와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고 비몽사몽간에도 리생은 생각하였다.

혼미한 속에서 이런 덧없는 근심을 할제 잡아가던 귀졸들이 무엇이랴 서로 쭈열쭈열하더니 또 《이 죄인은 큰 죄인이니 지옥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곳을 골라서 가두고 형벌은 죄를 범한 대로 할 것이니 한시각이라도 평안하게 두지 못하리라.》 하고는 달려들어 여러놈이 그 팔과 다리를 들어 이리저리 굴리며 악악대는 것이 마치 죽일 듯하니 리생의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그런 중에 또 잡아가지고 한곳에 가니 정신이 어지러운 중에서도 리생이 눈을 떠본즉 높다란 곳에 임금의 옷을 입은 자가 열명이나 상에 걸터앉았고 그 앞에는 한 관원이 문서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공손하게 서있었다.

《소인들이 인간세상에 나가서 지금 평안감사의 동생 리생의 혼을 잡아왔습니다.》 하고 한 귀졸이 큰소리로 아뢰며 리생을 그들이 앉은 자리 아래에 꿇어앉히었다.

좌우로 늘어선 귀졸들이 누구는 붓을 들고 또 누구는 형벌을 가할 때와 형구를 들고있으니 리생이 더더욱 겁나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있던 관원이 목청을 가다듬어 묻기 시작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세상에 나서 글공부나 다른 좋은 일은 아니하고 다만 술과 계집만 좋아하여 부모와 형을 근심케 하느냐. 또 그것을 제때에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릇짓만 하느냐.

네 죄가 중대하므로 천만년이라도 나가지 못할 가장 흉악한 옥에 가두고 온갖 형벌로 네 죄를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이러며 그 관원은 리생이 세상에 나서 잘못된 것들을 그 책에 다 기록한 것처럼 세세히 읽어가는데 리생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도 틀림이 없고 또 빠진 것도 없는지라 아무리 해도 발명할 길이 없고 속일 수도 없어 그 자리에 폭 어푸러지며 간절히 빌기 시작하였다.

《의신(죄인이 법관앞에서 부르는 자칭대명사)이 과연 달리 아뢰을 말씀이 없사옵나. 하오나 의신이 세상에 있을 때에 혹 어떠한 중에게서 지옥과 염라대왕이라 하는 말을 들었사오나 이렇듯 진짜인 줄은 몰랐삽더니 지금 당하여본즉 진실하고 의심이 없사오니 과연 미련하고 암매한 인생이 주색에 빠져 부모와 형에게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죽는 대도 누구를 원망하오리까.

하오마는 다시 생각컨대 의신이 한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하오되 늙은 부모가 의신이 죽은 후에 밤낮으로 통곡하옵고 또 안해와 형의 서러워하는 모양이 눈앞에 보는 듯 가련키 그치 없으니 어지신 덕택으로 의신을 한번만 다시 혼과 육신을 합하여서 세상에 나가 다시 살게 하옵시오. 그러면 부모의 슬퍼하고 형과 안해의 서러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옵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되어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올 것이오니 제발 살려주소서.》

통곡소리 요란하게 슬피 울며 비는 모양이 애처로운 듯 열명의 왕들이 한동안 아무 소리없이 잠잠하더니 염라대왕이라는 자가 문서책 가진 관원에게 무슨 말을 하니 다시 그 관원이 리생에게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었다.

《네가 이렇듯 이전 죄를 뉘우치고 다시 고쳐 좋은 사람이 되어 부모와 형과 안해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니 그것이 진실이라면 가히 아름다운 일이나니라.

그러나 만일 네 혼과 육신이 다시 합하여 살아난 후에 또 다시 이전 행실을 하게 되면 지금 아니 놓아보냈지만 못한지라 네 말을 어찌 믿으리오. 그러니 네가 지금 한 말을 배반치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수표를 하나 써서 바치면 너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니 그리 알라.》

리생이 이 말에 백배 사례하며 언약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쓰고 이름자를 적어올리니 염라왕이 문서를 받아보고 《너를 마땅히 극형할 것이나 모르는 연고로 죄를 범하였다 하니 이후로는 조심하여 지내거라.》 라고 분부하고는 하인을 시켜 내보내라 하니 귀졸이 달려들더니 처음과 같이 또 팔다리를 맞잡고 휘두르며 풍우같이 달려나갔다.

그러는 중에 큰소리를 연해 지르는데 또 어데선가 흉악한 소리도 들리나니 이는 죄인이 가혹한 형벌에 못견디여 내지르는 소리 같고 혹은 흉악무지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소리 와도 같아서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듣기에도 막 무서운지라 인하여 정신이 어지러워 기운이 또 끊어질 듯하니 어찌 무엇을 분별하며 또 그 주막집으로 오는 줄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아, 가련할사 주색의 능수여.

이 귀졸들이란 곧 평양감사가 보낸 하인배들이거니 이들은 아주 정신이 없어 거의 죽은 듯한 리생을 술집에다 눕히며 기생에게 이렇게 다짐을 두었다.

《이 서방님이 정신이 파히 없으시니 부디 조심하여 구원하고 너도 우리와 한가지로 사또의 분부를 들었은즉 어련하겠지만 이런 말을 리서방님께 조금도 알리지 말라. 정신을 차리면 좋은 말로 위로하는 체하며 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라.》

하인들이 감영으로 돌아간후 리생이 술이 점점 깨여 눈을 슬며시 떠보니 날이 밝지 아니하여 불이 그저 켜있는데 주막집 고운 계집이 자기의 손발을 어루쓸고 눈물을 툇툇 떨구면서 열띤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애고, 이런 기쁜 일도 또 있는가. 서방님이 밤중에 앓지도 앓으시다 졸지에 팔다리에 맥이 빠지면서 서너시간동안이나 죽은 모양이시기로 겁이 더러워서 약을 지어다가 서방님 입에 흘려넣었사온대 지금 살아나시오니 이런 다행한 일이 또 어데 있겠나이까.》

계집이 갖은 아양과 교태를 부리며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어데가 아프시니까. 술만 잡숫고 배가 고프시여 그러시니까. 서방님이 만일 내 집에서 상사나셨더라면 아무라도 나를 의심하여 내가 죽인줄로만 꼭 알터이니 그러면 내 모양이 어떠했을고.》 하며 야살스럽게 구니 리생 또한 정신차려 그 말을 듣고는 간밤에 지낸 일이 툇 꿈만 같기도 하고 취중에 있는 일같이도 여겨졌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실로 죽어서 당한 일 같기도 한중에 또 입맛이 약먹은 맛이요, 약냄새가 아직도 방에 배어있으니 리생은 그 계집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귀족들에게 잡혀가던 일과 그곳에서 흉악한 소리가 나던것 그리고 또 염라대왕앞에서 다시는 주색을 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수표를 쓴 일들은 리생에게 있어서 생각만해도 몸서리치게 무섭고 떨리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리생이 이런 말들은 도무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본래 술을 파하게 먹으면 그런 일이 종종 있는지라 네가 어찌 알겠느냐. 나로 인하여 그사이 매우 걱정도 하고 수고도 하였겠으니 내 마음이 좋지 못하나라.》 하고는 일어나서 하인을 부르나 평양 읍내로 쫓아보낸 하인과 하늘소가 거기에 있을수가 없었다.

계집이 바시시 웃으며 어제저녁에 꾸짖으며 하인을 평양에 보낸 일과 술먹던 일을 자세히 얘기하니 리생은 제가 한 일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렇지령 날이 흰히 밝아오니 계집이 밖에 나가서 고기와 술을 갖가지로 가지고와서 술을 잔에 가득 부어 권하는것이였다.

리생이 그전 같으면 어찌 사양하리오마는 간밤 지낸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선통해지고 뼈가 다 바스러지는듯하여 이제 다시 술마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기에 리생은 술상을 피해 돌아앉으며 《네가

나에게 술 권하는것이 마음에 아주 감사하나 내가 다시는 술을 아니먹기로 맹세하였으니 권하지 말라.》 하고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가로 향하였다.

(술인지 계집인지 그게 다 사람의 자식으로 다시는 가까이 하지 못할 물건이로다.

하마트면 스무살 한창나이에 길거리서 죽은 송장이 되어 몸뚱아리는 까막까치의 밥이 되고 혼백은 지옥에 가서 온갖 혹독한 형벌을 받을번하였고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대문가로 휘적휘적 걸어가던 리생은 주막집계집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꾸짖었다.

《너도 촌에 가서 살면서 농사나 짓는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내나 하나 얻어 네 서방을 삼고 길쌈방적에 힘써서 이런 행실 다 버리고 새사람이 되여라. 다시는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술을 팔면서 남의 젊은 사나이들을 꼬여 결단내지 말고 나처럼 마음을 고쳐 죽은 뒤에 큰 앙화 면하기를 힘써라.》

그리고는 뒤도 아니 돌아보고 바로 평양으로 가다가 하인의 마중을 받아 감영에 와서 그 형인 감사에게 인사를 하였다.

감사가 못내 반가와하며 집안의 안부를 묻고나서 우선 주안상을 차려 먹기를 권하니 리생이 사양하며 먹지 아니하는것이였다.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려 좋은 술을 많이 갖추어 놓았는데 네 무슨 연고로 술을 사양하느냐.》

감사가 놀라는체하며 이렇게 물으니 리생이 《몸이 편치도 않고 또 술먹기가 스스로 싫어졌사오니 다시 권하지 마옵소서.》 하는지라 감사가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두어번 더 권해도 리생은 한사코 응하지 않았다.

술상을 물리고 다른 음식을 권하여 배불리 먹이고 그이후부터 동생의 동정을 여러날째 살펴보다 도무지 술과 계집에는 마음이 아예 없는지라 감사가 크게 기뻐하는중에 하루는 리생이 갑자기 행장을 차리고 하직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네 무슨 일이 바빠서 이렇듯 쉬이 가려하느냐.》

《여러날이나 글공부를 폐하였사온즉 바빠서 글도 읽고 집안일도 돌보려 하옵니다.》

리생의 이 대답에 감사가 크게 기뻐서 《내 오늘에야 네게서 한없이 즐거운 말을 들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좋지 않겠느냐. 너를 위해 항상 근심하였는데 너의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여러해 걱정하던것이 없어졌으니 네 어찌 졸지에 이렇듯 변하여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며 종이며 붓을 많이 주어 보내었다.

그후 리생은 집에 돌아와 이전에 함께 술과 계집을 상관하던 벗들과 인연을 아예 끊고 좋은 선생을 구하여 글공부에 전념하였으니 원체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으므로 공부가 인차 이루어져 5~6년내에 성공하여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

또 대과에 참내하여 으뜸이 되니 근본이 명문거족이라 벼슬이 점점 높아져 리조참판에 이르렀다가 또다시 평양감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 그 형은 이미 정승이 되어 나이도 육순이 훨씬 넘었었다.

동생이 평안감사로 내려감을 당하여 한편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즐거운지라 내려가기 전날밤에 형제가 모여서 평안도 정사를 잘하고 못함을 의론하다가 정승이 하인을 불러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하여 앞에 놓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가 서로 헤어지면 여러해가 될지라 내가 나이도 많으니 그사이의 사생존몰을 어찌 알리오. 그런즉 마음이 비장하기 측량할바 없으니 나와 술이나 뒤잔씩 마시고 리별하는것이 마땅하니 이 술을 사양치 말라.》

형의 이 간곡한 권유에 《옛자오되 이렇듯 하시옵는 뜻을 어찌 저바리겠습니까마는 본래 정한 뜻이 굳사울뿐아니라 또 괴이한 일이 있사와 과연 못 먹겠사오니 청명(명령을 들음)치 못하옵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동생 감사가 거절을 하자 형정승은 다시 간곡한 말로 달래이었다.

《이전에는 나이 적음으로 세상사를 몰라서 주색을 삼가치 아니하였거니와 지금은 노년이라 어찌 그때와 같으리오. 또 그새 수십년동안 그 뜻을 변함이 없이 지켜왔는데 다시 어찌 소년때 일을 시작하며 지금은 한몸에 중임을 띠고 마음도 굳센터이라 더 넘려할것이 없으니 오늘날 형제 리별을 당하여 어찌 뒤잔 술도 나누지 아니할고. 이 형의 간곡한 마음을 저바리지 말기를 바라네.》

그러자 동생은 다시 무릎을 꿇으며 몹시 피로운 표정으로 사양의 말을 아뢰이었다.

《어찌 그러하옵신줄 모르오리까마는 괴이히 되온 일이 있사와 이리하옵니다. 이전에 술을 끊을때 어데 가서 술을 다시는 아니먹기를 중히 맹세하여 뉘게다 수표를 써주었사오니 그 문서를 다시 찾아와 불사르기전에는 술을 감히 먹을수 없는줄 아옵니다.》

《그것을 찾으려 해도 길이 없어 찾지 못하면 관계치 않으려니와 지금이라도 찾을수가 있어 가져올터이면 바빠 찾아 불을 놓으면 무엇이 관계될고.》 하는 형의 말에 감사는 《바빠 찾을수 없습니다. 길도 멀고 그 수표를 가진 이를 볼수도 없사와 매우 어렵사온즉 술은 그만두시고 다른것을 술 대신으로 먹으면 좋을듯하웨다.》 하며 그냥 사양을 하는것이였다.

그러자 형이 웃으며 《그 수표를 내가 찾을수가 있으니 잠간 기다리라. 과연 어려울것도 없는지라.》 하며 자그마한 상자를 열고 무슨 종이 봉한것을 내어놓더니 그 수표한것을 꺼내어 감사더러 보라 하는것이였다.

감사가 놀랍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자세히

본즉 과연 그때 자기가 엽라대왕에게 써준 수표가 분명하였다.

《세상에 이상하고 괴이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끊을 마음이 없더니 형님께서 평안감사로 내려가신후에 그뒤에 뵈오리 가다가 평양 읍내 못미쳐 30리되는 지경에서 술을 과하게 먹어 죽었더랍니다. 그래 제 혼이 엽라대왕께 잡혀가서 온갖 죄를 고하여 형벌받는 옥에 갇히게 되었기로 엽라대왕께 간절히 빌어 다시 살아나올 때에 이 수표를 하여주었사옵는데 형님께서 어떻게 이를 얻어 상사속에 두셨다가 오늘 제게 보이시나이까.》

감사가 그때의 일을 자세히 말하며 한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거늘 정승이 무릎을 탁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그때 엽라대왕은 곧 나오, 앞의 또 여러 사람과 하인들은 다 평안감영의 비장과 아전, 하인들이니라.》

그때 그 계교가 아니었다면 네 어찌 오늘날 평안감사가 되었으랴. 현즉 이젠 이 문서도 쓸데가 없어졌으니 찢어 불사르리로다.》

그러며 등잔불에 수표한것을 태워버리니 감사가 이제야 그 형이 계교를 내어 자기의 주색을 끊게 하였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무릎꿇고 절하며 찬탄의 말을 아뢰이었다.

《형님의 신통하신 지혜와 지극하신 어짐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찌 몸을 보존하였사오며 오늘날 평안감사가 어찌 가당하오리까.》

형제가 이같이 말을 하며 크게 즐기어 술을 부어 서로서로 권하며 화락한 밤을 보내었다.

동생은 이후 감사로 내려가서 술을 아예 금하고 정사를 이룸나게 하였다.

무릇 어진 부모가 있으면 곧 착한 자식이 있고 어진 형이 있으면 또한 량선(어질고 착함)한 동생이 있다 하니 바로 이 두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불교의 엽라대왕의 말이라는것이 과연 헛된것이 나 리생의 형은 헛된것을 가지고 참것을 만들어 그 동생의 행실을 깨우치게 한후에 다시 그 헛된것을 버리고 사람의 참된 마음과 참된 일로 사람의 착한것을 인도하여 능히 그 동생을 좋은 사람이 되게 하였으니 그야말로 진실로 착한 사람인것이다.

지금 부처의 도를 숭상하는자가 다 그 헛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임으로 불교의 그 선이라는것은 선이 아니라 되려 허망한 악이 되니 어찌 참으로 착함이 있겠는가.

그런즉 참선과 거짓선이 바로 그 근본이 참되고 거짓됨에 달린것임을 가히 알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거짓선은 버리고 참선만 지니기를 바라는것이다.

조국통일형제의 노래

문동식

1

북과 남 해외의 통일형제
민족의 뉘이 살아뛰는 이 말은
우리 겨레 어디서나 서로 만나면
반갑고 기뻐서 내미는 손과 손
부들켜 열싸안고 불은 부비며
눈물에 젖는 가슴과 가슴
만나기만 하면 귀에 익은 말소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침없이 쏟아내는 끝없는 회포
부모의 묘소앞에 머리숙여 엎드려
땅을 치며 터치는 후회의 눈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백년 갈라져 살았다 해도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뚝을 넘어넘어 불행의 모든 상처
얼른 쉽게 아무는 기적이라도

2

북과 남 해외의 통일형제
혈육의 뜨거운 정 넘쳐나는 이 말은
서로의 속마음 주고받는 속삭임
고향집 두리반에 빙- 돌러앉아
구수한 토장국에 젖어드는 눈시울
손자손녀 레장감을 펼쳐놓고서

오손도손 의논하는 인생의 기쁨
백두산천지에 한나산 백록담에
서로 손잡고 함께 올라서
웃으며 찍고 울며 찍는 뜻깊은 사진
오해와 불신, 반목과 불화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피어나는 웃음꽃
그 향기 세월의 수레에 실려
영원무궁토록 화목한 한가정
태양민족 크나큰 한식술이라오

3

북과 남 해외의 통일형제
부를수록 형제의리 깊어지는 이 말은
성벽처럼 솟아오른 대단결의 어깨성
외세의 이마뺨이 깨여지는 소리
사대매국 파쑈무리 날바다에 처넣은
통일의 환호성이 진감하는 하늘에
터지는 축포성, 춤을 추는 꽃바다
우리 장군님 지켜주시는 이 나라 금수강산
펼-펼- 나뭇기는 자주독립기치아래
만고절세 해와 별을 어화둥둥 받들어
공존, 공영, 공리에 뿌려가는 구슬땀
부강조국 세워가는 우렁찬 마치소리
아, 통일형제가 기동되어 솟아오른
조선은 강성대국 그 이름 떨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오

건설자의 통일생각 외 1 편

박세일

완공을 앞둔 4층 창가에
내 요즘 버릇처럼 자주 올라가노라
멀리 보일듯한 남녘땅을 향하여
마음의 노를 저어보노라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멋진 일감이 차례지랴
한강이며 락동강 랑기슭에는
《비닐하우스》며 판자촌을 헐어내고
번듯하니 살림집들을 지어야 하리라
미군의 핵발사대들을 해체한 자리엔
덩실하니 공장들도 앉혀야 하리라

영광의 그날에는
평양의 조국해방 개선문같은
력사의 통일문을 세워야 하리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영광하는 남녘의 형제들을 향해
해빛같은 답례를 보내시는
통일광장 주석단도 꾸려야 하리라

내 지금껏 평양을 떠나
서해기슭이라 두만강 북변이라
미장칼 차고 안가본데 있으랴
이제 남은것은 남행길-
갖가지 기공구 일식으로 갖춰들고

더 늙기전에 남행길에 오르고싶노라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으시대며 이동작업을 다니고싶노라

아 통일도 집이나 공장처럼

내 손으로 척척 지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기가 막히랴
아직은 《설계》에 불과한 이 생각
머지 않아 《시공》될 나의 통일생각이여!

통일역에서

통일역, 통일역...
이름마저 가슴치는 평양의 지하철도
들어설적마다 통일생각 북받친다

한지맥 잇닿은 서울시에도
지하철도가 있더니
에라, 이왕이면 이 굴길
직판 서울과 관통됐으면
땅우로는 한치도 갈수 없는 길
땅밑으론 혹시 오갈수 있잖을까

땅속에야 장벽이 없겠지?!
땅속에야 분계선이 없겠지?!
우리 평양 지하철도 통일역이여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네 이름
《모란봉》이라 부를수도 있었다
천리마동상아래 있다고
《천리마》라고도 지을수 있었다

허나 아니였다
이처럼 좋은 이름 다 그만두고
우리는 다만 통일, 통일
겨레의 큰 소원 네 이름에 담았나니

아 그 소원 풀리는 그날
벽화로 굳어졌던 저 사람들까지도
얼싸좋아! 벽화에서 뛰쳐나오리
썩썩! 통일열차 우리 함께 타고가리

뜨거운 말 외 1편

리명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형제처럼
스스럼없는 사이의 옛친구처럼
만나는 순간에 불쑥
서로 함께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

어제 헤어졌다 오늘 만난듯
어디서 그 누구를 만나도
반가운 심정을 앞세운채
첫인사도 그저 같은 말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구나
한동포라는, 한민족이라는

어찌할수 없는 그 진정
숨길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

천만마디 말을 대신해
넘쳐나는 기쁨을 다 담아
통일을 마중해가며
가슴마다 쌓아두었던 그 말을 다 담아

이제 통일의 날이 오면
온 민족이 서로 얼싸안고
심장으로 뜨겁게 말하리라 지금처럼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이 통하는 뜨거운 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싶다

살고싶다
통일된 조국에서-

갈라진 땅에 태어나
나이 선살이 되도록
못가본 내 조국의 절반땅

여기도 백두대산줄기로 이어진 내 나라라고
한그루 나무와도 이야기하며
이제라도 가슴 풀어헤치고
다 걸어보고싶은 그 절반땅

눈 못감고 떠나간

부모의 고향이 그 땅에 있어
오늘도 소원으로 안고있기에는
너무도 가슴저린 이 마음
아, 통일된 조국
그 땅에서 살고싶구나

기다려 저절로 올수 없고
바란다고 누가 가져다줄수 없는
그 소원-통일앞에
네가 서있고 내가 서있고
온 민족이 숨엄히 마주서있다

과연 이 땅에 태를 묻은
우리 민족의 피를 이은 사람이라면
통일이라는 하나의 의무앞에
꼭같은 임무를 안고 나서야 하리

한손의 힘보다
열백손의 힘이 강하듯
열백의 발자국보다
천만의 발걸음이
더 세차게 이 땅을 진감하리니

그렇게 합쳐진 힘으로
부시자 분별의 장벽
짓밟자 원한의 분계선

얼마나 환희로울것인가
부산행렬차와 신의주행렬차가
서로 어기며
정다운 화답의 기적소리 울릴 그날

기다림도 절정
바라는 마음도 최절정
더는 미룰수도 넘겨줄수도 없는
그날앞에 마주선 우리 민족

마중가자 7천만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터전
통일조국이 앞에 있다
바친것 없이 맞을수 없고
바친 사람만이 떳떳이 살수 있는
통일된 조국이며

헤어져 반세기의
그 아픈 마음을
한순간에 다 잊게 될
통일의 그날
후세에 영원히 그렇게만 남아있을
통일조국이며

아, 살고싶다, 살고싶다
통일된 조국에서!
통일된 조국에서-

상식

노여움을 어떻게 다룰것인가

노여움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하는것을 모르면 그것이 극히 파괴적인 감정으로 될수 있다.

의학자들은 노여움이 심장병, 위병, 머리아픔 그리고 암을 일으킬수 있다고 경고하고있다.

노여움은 사람들이 때때로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주 조용하게 논리적으로 노여움을 표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벌컥 성을 내면서 껍떡소리친다. 그러나 노여움을 억제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시기에는 노여움을 억제하는것이 그것을 표현하는것보다 건강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 노여움을 표현하려는 감정을 억제하는것이 노여움의 감정을 중대시시킬뿐이며 그것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노여움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그들은 노여움을 거둬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성을 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노여움을 억제하는것이나 표현하는것이 다같이 위험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노여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장병이 생길수 있으며 노여움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암에 걸릴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결국은 노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우선 자기가 성났다는것을 인정하고 노여움의 진짜 원인을 알아내며 그다음에는 그 원인이 성났만큼 엄중한가를 판정해내야 한다.

노여움을 대하는 좋은 방도는 자기를 노엽게 만든 환경에서 기분을 전환하는것이다. 웃음이 노여움보다는 건강에 훨씬 좋은것이다.

기계다리

김덕철

렬차는 웅글은 소음을, 때로는 기적소리를 어둠 속에 휘뿌려놓으며 쉬임없이 달리고있었다.

객차에 오르자마자 서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던 손님들은 밤이 깊어가자 모두 입을 다물고 잠들어버렸다. 머리를 뒤로 젖혀 의자등받이에 기댔거나 모세비로 기울여 옆사람의 어깨우에 렴치없이 올려놓고 잠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끄덕 끄덕 머리방아를 찢는 사람도 있고 앉은자리에서 그냥 말뚝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차창 곁에 앉아있는 나만은 잠들지 못했다. 어쩌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함흥에서 사는 막내아들네 집에 나들이를 가는 길이었다.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막내아들이 장가를 들어 새살림을 시작한지 5년이 되었으나 나는 그동안 일이 바빠서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전부터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놀게 되어 이렇게 나들이를 떠난것이였다.

나는 객차안이 덥고 답답하여 창문을 열어놓으려다가 잠자는 손님들에게 방해를 줄것 같아서 그만두고 또다시 나를 반갑게 맞아줄 아들며느리와 손자녀석을 그려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은 잇을수 없는 일들을 두서없이 돌이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흐르는 시간과 함께 밀창이 드러나고말았다.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함흥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시간 더 가야 했다.

나는 남들처럼 자보려고 두눈을 감고 의자등받이에 비스듬히 몸을 기댔으나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렬차가 레루이음짹을 넘어설 때마다 내는 단조로운 음향을 듣고있자니 지루감만이 더해졌다.

나는 차창밖이라도 내다보면 갑갑증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여 눈을 떴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었던 몸을 일으켜세우고 창문쪽으로 얼굴을 돌리던 나의 눈길이 창턱에 가서 멎었다. 내 건너편의자에 앉은 손님이 보던 체육신문이 창턱우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까부터 저 체육신문을 보고싶었으나 신문입자가 계속 보는 바람에 볼수 없었다.

(참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구미가 동했던 체육신문을 보면 흥미도 있고 무료한 시간도 보낼수 있을것 같아서 인차 그걸 집어들었다. 재미나는 기사부터 읽으려고 신문은

뒤적이며 제목들부터 훑어보던 나의 눈길이 3면 웅근 한면을 다 차지한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가서 눈길이 멎었다. 제목보다 좀 작은 활자로 《기계다리-허죽산선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목이 찍혀있는것을 보는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인차 반가움과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한없이 설레여졌다.

인생길에서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고도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을 같이 지내고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기계다리-허죽산은 바로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였다.

나는 그와 하루 아니 몇시간밖에 같이 지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을수가 없었다.

나는 신문을 든채 기사를 불념을 하지 않고 기계다리-허죽산에 대한 추억에 잠겼다.

내가 그를 알게 된것은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주체39(1950)년 10월초순 어느날이였다.

조국해방전쟁초기부터 후방총국 운수중대에서 운전사로 복무한 나는 그때 전선에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그날도 나는 탄약을 실은 자동차를 몰고 전선으로 가고있었는데 스물몇살가량 나보이는 중위와 전장을 단 호송군관이 내옆에 앉아있었다. 근육이 잘 발달된 다부진 체구에 하관이 좀 빠를사하게 생긴 그는 날과람있어보였으나 정기가 도는 검실한 두눈과 우뚝한 코는 그가 침착하면서도 완강한 의지의 소유자임을 말해주고있었다.

차가 출발하여 지금까지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시창을 통해 앞만 내려다보았다. 임무의 중요성때문에 그러는것 같았다.

추풍계선을 방어하고있는 전사들한테 우리가 탄약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으면 많은 희생자가 나고 그 계선을 건지못하는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일시후퇴하는 주력부대가 적들한테 포위될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오며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린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여서 무슨 할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호송군관이 무릎우에 올려놓고 두손으로 보듬어 안고있는 홀죽한 배낭을 이따금 곁눈질해보았다. 저 배낭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가 하는 호기심이 커서였다.

우리가 출발하기전에 있던 일이었다.

《운전사동무, 내가 임무를 받고 올동안 이 배낭을 좀 봐주오.》

자동차운전칸 의자우에 배낭을 놓고 지휘부쪽으로 걸어가던 호송군관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로 와서 배낭을 가지고 갔다.

나는 그가 나를 믿지 못하여 그러는것 같아서 불쾌했으나 인차 무슨 사연이 있을것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하고는 그 감정을 가시였다. 그러나 도대체 저 배낭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가 하는 호기심은 한시도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고있었다.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다.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불타고 마사지고 피를 흘리고있지만 자연은 거기에는 관계없이 계절의 물조와 법칙을 지키고있었다. 바야흐로 단풍이 든 나무들은 다양한 가을해별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색깔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였으며 한껏 무르익은 열매들도 자기의 독특한 향기를 바람에 실려보내고있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에 잠시라도 몸을 잠그고 즐기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그럴경황이 없었다.

기복이 심하지 않은 구릉지대를 지난 자동차가 매들령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항공신호를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였다.

나는 나무 한대 없는 구릉지대에서 적기를 만나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차를 으쓱진곳에 인차 대피시켰다.

적기들은 요즘 아군 자동차들이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지 못하게 하려고 거의나 하늘을 비우지 않고 있었다.

우리를 내리운 차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적기를 쳐다보던 호송군관이 자기 무릎우에 있는 배낭아구리를 열고 축구화 한켠레를 꺼내었다. 중간과 가장 자리에 흰줄을 보기 좋게 두른 윤기도는 축구화는 그 당시로서는 어데 가서 구경하기조차 힘든 희귀한것이였다.

저 축구화때문에 그랬을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또 들어있는지?

나는 배낭뒤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천조박지를 꺼내어 축구화를 정성껏 닦는 호송군관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잠시후 호송군관이 반질반질하게 닦은 축구화를 군화와 바꾸어 신고는 배낭안에서 김빠진 축구공을 꺼내어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호기심에 차서 그러나 자못 의아스레 그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호송군관은 모자와 혁띠를 벗어 운전칸의자우에 놓더니 바람을 넣어 제모양을 갖춘 축구공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땅에 내려서자마자 잦은 걸음으로 얼마간 달리기를 하고난 그는 무릎과 허리굽혀펴기, 축구화 앞코숭이를 땅바닥에 대고 발목을 돌리며 간단히 몸풀기를 했다. 그리고는 땅우로 낮게 드리운 어느 한 나무가지에 끈에 매단 축구공을 무릎기장만한 높이로 고정시켜놓고 런속 차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 호송군관이 축구선수 아니면 뽀차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가 공을 앞에 놓고 차지 않고 있다가 몸을 180도로 휘 돌리며 휘돌려차기를 하는것이였다. 한번도 아니고 그 동작을 계속 반복했다.

장난도, 멋을 부리느라고 그러는것 같지도 않았다. 분명 무슨 훈련을 하는것 같았으나 나로서는 그가 하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에 어느 때인데 저런 훈련을 한단 말인가?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준엄한 전쟁마당에서 제정신이 온전해가지고는 저럴것 같지 않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동안 우리 가까이에서 자동차를 대피시키고 적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와서 그가 훈련하는것을 재미나게 구경했다. 호송군관은 그것도 모르고 점점 속도를 높여서 그 동작을 정열적으로 그야말로 미친듯이 해댔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그런데 이때 누구인가 《기체다리다. 기체다리!》하고 환성을 지르다싶이 소리쳤다..

《정말이야?》

《정말 아니면... 난 기체다리가 경기장에서 뽀차는걸 봤어. 뽀을 기체처럼 정확히 잘 차기때문에 기체다리라는 별명이 붙었던 말이야.》

아직 기체다리를 한번도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들은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무렴 저 중위가 기체다리게 뭐야? 잘못봤지...)

내가 구태여 더 그렇게 믿은것은 그처럼 유명한 기체다리가 고작 중위로 호송군관이나 할수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얼마후 항공해제를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호송군관은 나무가지에 고정시켰던 공이 매달린 끈을 재빨리 풀어가지고 자동차로 달려와서 운전칸에 올라탔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그의 얼굴에서 땀이 그냥 비오듯 흘러내렸다.

나는 차에 인차 발동을 걸어가지고 출발했다.

구배가 심한 매들령을 뚫아오르기 시작한 자동차는 힘겨워하며 숨가쁜 소리를 내질렀다.

나는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연신 훔치고있는 호송군관을 자꾸 곁눈질해보았다. 아까와는 달리 이 중위가 혹시 기체다리가 아닐가 하는 생각과 호기심이 생겨서 그랬는지도 모

른다. 실례가 되어도 중위한테 직접 확인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나는 단도직업적으로 물었다.

《저 중위동무가 기계다리라고 하는데 기계다리가 웁습니까?》

호송군관은 대답대신 처음으로 입가에 병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나한테 허죽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네.》

《아니 그럼 중위동무가 진짜 기계다리란 말입니까?》

나는 너무 놀라서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허허... 왜? 믿어지지 않나?》

허죽산은 여전히 웃음어린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난 사람들이 내 이름보다 기계다리라는 별명으로 부르는걸 더 좋아했네. 그건 그 별명이 조국이나에게 준 표창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네.》

《그런걸 난... 중위동무, 그런데 어떻게 되어 그처럼 유명한 기계다리로 되었습니까?》

나는 허죽산이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앞을 보라구. 사고나지 않게. 그 이야기는 후에 하자구.》

허죽산은 입을 꼭 다물고 시창앞을 긴장하게 내다보았다. 그바람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으나 참는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매들령을 넘어서기 바쁘게 어데로 사라졌던 적기들이 다시 나타나서 해살치기 시작했다. 차를 또 대피시켜야 했다. 마침 개울가에 키높이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한그루 서있어서 그아래에 차를 세웠다. 마치 커다란 우산을 펼쳐놓은것 같은 나무우듬지가 자동차를 완전히 가리우고있어서 적기한테 발견될 우려는 없었다.

차에서 내린 허죽산은 맑은 물이 조잘거리며 흐르는 개울가로 가서 아직도 땀에 젖어있는 얼굴을 씻고 돌아왔다. 그는 축구공에서 바람을 뽑아 배낭에 넣고 배낭뒤주머니에서 또 천조박지를 꺼내었다. 축구화를 닦으려는것 같았다.

《중위동무, 약속을 지켜야지요? 어떻게 되어 기계다리로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졸라대자 허죽산은 웃음어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꼭 들어야겠나? 동무가 정 듣고싶다면 저기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구.》

허죽산이 손에 축구화와 천조박지를 든채 먼저 내리고 나도 뒤따라 내려왔다. 우리는 차에서 좀 떨어진 누렇게 말라버린 잔디밭위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잎새와 풀대들을 흔들어놓았다.

허죽산은 축구화를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기계다리로 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이네. 장군님께서 왜놈들한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네.》

허죽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은 동해바다가였네. 그러나 왜놈들의 등살에 못이겨 내가 태어나기전에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갔네.》

난 동북 룡정에서 70리가량 떨어진 자그마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네. 집이 너무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멀건 수수죽이 아니면 수수췌기떡으로 끼니를 에우곤했네.

나는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빨차기를 즐겨했지만 축구화와 축구공이 없어서 짚신을 신고 속에 버짚을 넣고 새끼로 감아서 만든 〈새끼공〉을 차곤했네. 그런데 그 〈새끼공〉을 차면 이틀이 멀다하게 짚신이 거덜이 났네. 당시 우리가 살던곳에서의 농사는 수수, 조, 강냉이, 감자가 위주여서 버짚 한오리가 매우 귀했네. 그래서 신발을 한켠레 삼자고 해도 버짚을 사야 했네.

〈네가 공부하는게 타고난 팔자인줄 아느냐? 온 가족이 너 하나 공부시키자고 죽도록 일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글 한자라도 익혀야지. 신발을 꿰치며 새끼오래기를 차고있어? 이놈, 이 시라소니같은 놈...〉

아버지는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죽치고는 새끼공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곤했네. 나는 그때마다 내가 맞은것보다 아버지가 새끼공을 찢어던지는것이 더 가슴아팠네.

나는 그런 속에서도 장차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꿈을 안고 훈련을 이악하게 했네.

소학교에 다닐 때 나는 매일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십리가 넘는 학교까지 달려갔다 오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여겼네.

그러던 어느날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네. 전날저녁에 수수죽으로 끼니를 에우다나니 일어날 힘이 진했던거네.

하지만 나는 이발을 사려물고 일어나서 찬물을 한사발 마시고는 학교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너무 기운이 없어 벌벌 기여서 집토방을 넘어섰네.

난 그렇게 훈련하여 다른 아이들보다 뿔을 잘 찬데 룡정중학교에 쉽게 입학했네. 룡정중학교에서 자기 학교 명예를 위해 나를 입학시켰던거네.

그러나 집에서 학비를 대주지 못하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네. 학교를 그만두자고 몇번 씩이나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러면 뿔을 차지 못할것 같아서 이발을 사려물고 다녔지만 끝내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학하고말았네. 그후에는 뿔을

찰 업두도 내지 못했네.》

여기서 이야기를 끊은 허죽산은 암담하던 그 시절의 쓰라린 회억으로 하여 가슴이 아픈듯 얼굴을 찌프리고있었다.

그의 머리우에서 배가 하얗고 등이 새파란 이름 모를 새 한마리가 작은 발로 나무가지를 옮겨짚으며 쫓지를 달쭈기러다가 어찌서 말을 중단했느냐고 묻기라도 하는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허죽산은 얼굴표정을 바꾸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해방후 나는 인차 조국으로 돌아와서 내 희망대로 청진방직공장에서 일하며 마음껏 뿔도 찼네.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 안겨 아무 근심걱정없이 훈련을 많이 하니 기술이 자연히 높아졌네.

경기때 내가 낮고 빠른 공중공을 왼발로 단번에 휘둘러차넣기를 하여 꼴을 넣는걸 본 사람들이 그걸 신비하게 여기면서 놀라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거네. 누구든지 나만큼 직심스럽게 그 훈련을 하면 다 그렇게 할수 있네. 솔직히 말해서 난 그 동작을 완성하느라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차넣기동작(아까 내가 훈련하던 동작이네.)을 하루에 500번씩 무조건 했네.

말이 쉽지 그렇게 훈련하고나면 온몸이 땀으로 푹 젖고 무릎에서 피가 흐를 때도 있었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자리에 쭈뼛어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네. 나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난 그때마다 조국을 해방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행복한 세상을 마련해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다시 일어나곤했네. 그러면 힘도 덜 들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온몸에서 샘물처럼 솟아났네...

참, 이 축구화는 우리가 마차르의 수도 부파베슈프에서 진행되는 제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러 갈 때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선물로 보내주신거네.》

《**김일성**장군님께서요?!》

나는 놀라움에 찬 눈길로 허죽산과 그가 정성스레 닦는 축구화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허죽산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아 그래서였구나!

나는 그가 어찌서 축구화를 그처럼 정성껏 닦고 또 닦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배낭을 자기 몸에서 한시도 떼여놓지 않으려고 했는지 지금에야 비로소 이해되였다.

《제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것만 해도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인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축구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좋지 못한

축구화를 신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 축구화를 특별히 구해다주도록 하시였네.

축구화가 좀 못한걸 신었다고 아무렴 뿔을 제대로 차지 못하겠나. 그런데도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족잡힐세라 그런 세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네.

그 축구화를 신고 제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우리는 모두 하늘로 날아갈것만 같았네. 아무리 달리고달려도 힘든줄을 몰랐네. 그래서 우리는 맞다는 강적들을 모두 통쾌하게 이기고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였네.

우리가 1등 시상대우에 오르자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국기게양대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서서히 게양되기 시작했네. 우리는 그 기발을 우러러 바라보며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던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에 높이 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금할수가 없어서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것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 **김일성**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허죽산을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았다.

《이 축구화를 신고 국제경기들에 더 많이 참가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자고 했는데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만...》

허죽산은 분함과 함께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하여 얼굴이 무섭게 이즈러졌다.

이때 항공해제를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놀렸던 용수철이 튕겨날 때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자동차 있는데로 달려갔다.

허죽산이한테서 들은 이야기의 여운으로 하여 차를 운전하고있는 나의 가슴은 사뭇 후터웠다.

차가 어느 한 산등성이를 넘어 내리막길로 달리 고있을 때였다.

《운전사동무, 차를 좀 세우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허죽산을 돌아다보았다.

《저기 나하고 뿔을 같이 차던 친구가 있소. 그런데 저 친구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길가에 차를 멈춰세우자 허죽산은 차에서 훌쩍 뛰어내려 친구가 있는 뒤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나는 후사경으로 뒤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허죽산을 맞받아 달려왔다. 그들 두사람은 상봉의 기쁨에 겨워 서로 붙어잡고 마구 돌아갔다.

그들이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살아서 또 뿔을 차야지 죽긴 왜 죽겠니. 난 네가 호송군관이 되여 이 길로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넌 지금 어디로 가니?》

그다음부터 말소리가 낮아져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분간해 들을수가 없었다.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차를 한바퀴 돌아보는척하며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말이 오가고있었다.

《죽산이, 우린 축구선수야. 그러니 길림으로 가서 룡정팀을 하나 새로 꾸리자구. 난 거기서 뿔을 차다 왔기때문에 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네. 그 팀 주장은 자네가 하라구. 사실 난 혼자 가려다가 자네를 데리고가야 더 빛이 날것 같아서 우정 자네를 만나려고 이 길로 왔네. 그러니 빨리 결심하라구.》

《자네가 겠잖다는 그 길이 그래 반역의 길인줄 모른단 말인가? 돌아서게. 그 길로 가서는 안되네.》

《죽산이, 자기를 혼돈하지 말라구. 자네는 축구선수야. 축구장에서 왕자노릇을 해야 할 자네가 무엇때문에 이 조국해방전쟁마당에서 값없이 목숨을 잃겠어, 응? 시세를 잘 보라구.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미국이 대부대를 보내여 전 전선에 걸쳐서 진격해오고있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군대들도 미군과 합세하여 진격해온다는걸 잊지 말라구.》

《닥쳐라! 해방된 조국에서는 너의 신분도 경력도 따지지 않고 보잘것 없는 그 축구기술을 귀중히 여겨주었다. 그런데 조국이 위협에 처한 오늘 자기만 살겠다고 배신의 길을 걸어? 더럽다! 네가 무슨 의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 인간이냐? 넌 이 조국이 없어도 살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난 조국이 없이는 못산다. 똑똑히 새겨두어라.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걸 큰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갈테면 가라. 난 전선으로 가겠다.》

허죽산은 그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자동차를 향해 힘있게 걸어왔다.

그자리에 못박힌듯이 서서 허죽산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친구가 북으로 그냥 걸어갔다.

후사경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허죽산은 입을 꼭 다물고있아서 근엄한 얼굴로 시창앞을 내다보고있었다. 그가 속으로 흥분을 애써 능치고있는것이 알려졌다.

나는 생각할수록 반역자를 그냥 보낸것이 분하여 한마디 했다.

《중위동무, 그 개같은놈을 왜 무자비하게 썰갈기치 않았습니까?》

《나도 당장 썰갈기고싶었소. 그러나 그가 장차

옳은 길로 들어서기를 바랬고 또 승리한 조국의 모습을 제눈으로 보도록 하고싶어서 참았소.》

그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각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방금전에 있었던 불쾌한 일로 하여 차안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허죽산은 그걸 느꼈는지 얼굴표정을 밝게 지으며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운전사동무, 그런 너절한놈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 좋은 이야기나 하자구. 그래 운전사동무 이제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겠소?》

그바람에 차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말입니까?》

나는 활기를 띠며 반문했다.

《생각한게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구.》

《저... 사실은 일생동안 자동차를 몰려고 했습시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

허죽산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가는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폭격에 파괴되고 불탄 집과 건물들을 보니 앞으로 건축가가 되어 더 많은 집과 건물들을 짓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만. 꼭 그렇게 하라구. 나는 지금 훈련을 많이 해두었다가 전쟁이 끝나는 즉시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 만방에 떨치고 **김일성**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네.》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허죽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은은하게 잔물결치고있었다. 나는 그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사이 목적지를 가까이 한 자동차는 넓은 벌판 한가운데로 곧추 뻗은 신작로로 달리고있었다.

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보려고 가속답판을 힘껏 밟았다. 속도가 높아진 자동차는 질풍같이 내달렸다.

몸뚱이가 금까지처럼 새노란 메뚜기들이 신작로를 가로질러서 날아넘다가 이따금 시창에 부딪쳐 튕겨나군했다.

이때 불의의 정황이 조성되었다.

어데서 날아왔는지 적기 두대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 아찔러운 금속성을 내지르며 급강하하기 시작했던것이다.

이미 적기한테 발견된데다 허허벌판이여서 어디 대피할데도 없었다. 일은 정말 더럽게 되었다.

허죽산은 나를 돌아다보며 말없이 앞으로 턱짓을 했다. 나는 그 뜻을 알고 자동차의 속도를 최대로 높였다. 그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기때문이었다.

가증스러운 적기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련속

꼬리잡이를 하며 자동차를 향해 내리쬐어서는 기총소사를 퍼붓기도 하고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사방에서 불기둥이 치솟아오르며 요란한 폭음이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으나 나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차를 계속 몰아갔다.

그런데 얼마후에 공교롭게도 적기가 떨어진 소이탄이 자동차 적재함에 면바로 명중되어 탄약상자우에 썩은 방수포에 불이 달렸다. 불길은 순식간에 온 적재함을 뒤덮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차를 멈춰세우려고 했다.

《가만! 불은 내가 끌테니 차를 세우지 마오.》

허죽산은 이렇게 말하고 운전칸문을 열더니 민첩하게 적재함으로 올라갔다.

나는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몰면서 운전칸 뒤에 달린 유리창을 통해 적재함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적재함이 온통 화염에 휩싸여있어서 허죽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혼자서 불을 꺼버릴것 같지 못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차를 세우고 나도 올라가서 불을 꺼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던 허죽산의 목소리가 고막을 세차게 때리는 바람에 나는 차를 멈추지 않았지만 속에는 온통 재가 들어앉는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후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허죽산이 나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적재함에서 불을 완전히 꺼버렸던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불을 꺾을가?

나는 처음 너무나도 믿기 어려워 놀랐으나 그가 적재함우에 썩었던 방수포를 벗겨던졌다는것을 인차 알게 되었다.

달리는 자동차우에서 그것도 세찬 불길이 뱀의 혀바닥처럼 날름거리며 생명을 위협하는 속에서 단신으로 방수포를 벗겨던지자니 얼마나 악전고투를 했겠는가?

그의 수고를 생각하니 나는 저도 모르게 목이 짝 메오면서 눈곱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가 무사한지 알아보려고 적재함을 돌아다 보았다. 허죽산은 탄약상자우에 모체비로 쓰러져있었다.

가슴이 섬찝해진 나는 인차 차를 세우고 적재함우로 달려올라갔다.

불에 타고 데고 끄슬리어 온몸이 말이 아닌 허죽산은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있었는데 거기에는 류혈이 량자했다. 불행하게도 적기가 쏘아대는 기

총탄에 치명상을 입은것이였다.

《중위동무! 중위동무!...》

나는 허죽산을 붙어잡고 흔들며 정신없이 소리쳤지만 의식을 잃고있는 그는 죽은듯이 가만히 있었다.

잠시후 의식을 회복한 허죽산은 두눈을 간신히 뜨고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운전사동무, 누가 차를 세우라고 했소? 어서 떠나오! 이진 명령이...》

허죽산은 뒤말을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얼굴을 댁없이 떨어뜨리었다.

《중위동무-》

나는 허죽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목청껏 불렀으나 이미 심장의 고동을 멈춘 그한테서 더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허죽산의 시신을 오래 붙어잡고있을수가 없었다. 그의 마지막소리가 내귀에서 그냥 메아리를 일으켰기때문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분연히 머리를 추켜들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미군놈들에 대한 피타는 증오와 저주가 나의 눈에서 눈물을 말라버리게 했던것이다.

나는 떠나기전에 허죽산의 시신을 다시한번 내려다보았다.

두눈을 감고 탄약상자우에 누워있는 그의 평화로운 얼굴에는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는듯 행복한 미소가 고요히 어려있었다.

나는 그의 원썬을 천백배로 갚는것은 물론 그가 것처럼 사랑하고 귀중히 여겼던 조국을 기어이 지켜내리라 마음속으로 굳게굳게 다짐하며 전선으로 차를 몰아갔다.

탄약을 목적지에 실어다주고 허죽산의 장례식을 한 다음 그의 배낭을 열어보니 축구화와 바람을 뿜은 축구공밖에 없었다...

추억에서 깨어난 나는 깊은 감회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렬차는 여전히 어둠속으로 질풍같이 내달리었고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거리며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잠시후 나는 기계다리-허죽산을 놓고 생각이 깊었다.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으며 별처럼 찬란히 빛을 뿌리는것이다.

렬차는 조국의 대지를 주름잡으며 더욱 힘차게 내달리었다.

고전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에 대하여

변규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19세기에 창작되었으나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고있는 많은 작품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우리 문학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19세기에 창작된 여러편의 작품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봉건말기와 근대사회초시기에 나타났던 문학창작경향들을 해명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 19세기에 창작된 우수한 문학작품유산은 오랜 역사적과정에 인멸되어 얼마 전해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1880년대에 작가로 활동한것으로 인정되는 김재국의 작품집 《조선의 이야기》가 최근에 알려져 우리 나라 근대소설문학발전과정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리용되고있다.

김재국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전해지지 않고있었다. 다만 현존자료를 통하여 그가 봉건말기의 하급관료로서 문학적작품을 창작해온 능력있는 사람이였다는것만을 알수 있다.

김재국의 작품집 《조선의 이야기》에 나오는 고전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는 간신들의 비렬한 행위, 충신과 간신도 정확히 갈라볼줄 모르는 부패무능한 왕과 봉건정부에 대한 야유와 조롱을 의인화의 수법으로 재치있게 보여주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 소설문학에서 동물들을 의인화하는 창작수법을 적용하여온지는 오래되었다.

고구려시기에는 《구토설》이 나왔고 8세기에는 설총의 《화왕계》가, 고려시기에는 일련의 의인전기체산문이 창작되었으며 16세기에는 립제의 《서옥설》이 창작되었다.

그 뒤이어 《두껍전》, 《서대취전》과 같은 소설이 나왔으며 18세기경에는 《토끼전》이 소설로 재창조되었다.

고전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도 앞선 시대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는 여우나 이리와 같은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당시 아침을 일삼던 교활한 인간을 비판하고 경계한 교훈적인 작품이다.

우리 나라에서 19세기후반기는 권력쟁탈에 미쳐 날뛰던 봉건관료배들의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치계를 어지럽히고있던 시기였다.

작품에서는 근대사회가 바야흐로 시작되던 이 시기에 권모술수를 일삼으면서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히고 서로간의 리간을 조성하던자들을 여우와 이리의 형상을 통해 해부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마지막에 작가는 이렇게 쓰고있다.

《이는 남을 해하려고 고의로 아침하는 사람을 정신차리도록 하는 말이니 사람이 남을 해하려 하면 도리어 제가 해를 받을것이니 이 이리가 여우를 죽이려다가 제가 죽는것과 어찌 다르리오.》

이것이 바로 작가의 사상적의도였다.

산중의 짐승들을 등장시켜 어지러운 봉건사회말기의 사회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기지는 소설의 요소마다 재치있게 서술되고있다.

소설은 산중의 왕이라고 하는 《백호》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포수의 총에 맞아 중상을 당하고 앓고있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백호》가 총상으로 앓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중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병문안을 한다. 그런데 여우만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불쾌하여 《백호》는 성난 소리로 《이 사이에 여우는 구경도 못하겠으니 피이한 일이다. 임금과 부모는 한가지라 부모가 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식이 밤과 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음식과 약을 고루 갖춰놓고 권하여야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것이니라. 신하로서 임금을 어떻게 알았으면 내가 병든지 사오일이 되도록 여우놈이 한번도 와서 문병하는 일이 없으니 신하가 되어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어찌 이러하리오.》 하고 말했다.

이때 사납고 시기심 많은 이리는 자기와 사이가 좋지 못한 여우를 산중의 왕인 호랑이가 꾸짖는것을 보고 간사하게 아침하여 말하기를

《여우는 본래 성품이 간사하고 요망하고 아무를 물론하고 속이기를 잘하며 또 음식이 많으나적으나 제 욕심만 채우고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할뿐아니라 때마다 대왕께서 욕심이 많다 하며 자주 비방하오니 그놈은 가히 용서하여 세상에 살려두지 못할놈인가 하나이다. 그러니 이번에 그놈이 들어오거든 엄한 형을 내려 만쪼각에 찢어죽이옵소서.》 라고 한다.

그런데 산중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자기가 살 궁리만 하던 여우는 한 동료여우한테서 《백호》가 성낸 일과 음흉하게 간계를 꾸며낸 이리의 모함을 알게 된다.

여우는 자기를 모함하려는 이리를 보복할 결심을 하고 늦게야 《백호》 앞에 나타난다.

이때 《백호》는 왜 이제야 나타났는가고 하면서 여우를 당장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우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간사한 마음을 가다듬고 남보기에도 가장 믿음이 가도록 다잡으며 말했다.

《소신이 옛글을 보니 군신과 부자가 세상에 으뜸인즉… 대왕의 병세가 급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에 곧 와서 뵈옵고 문안하고싶었으나 그렇게 하오면 대왕을 위하여 급히 약을 구하지 못하겠기로 인하여 약을 구하기 위하여 사면으로 다니다가 이제야 들어왔으니 어찌 죽기를 무서워하여 대왕을 섬기는 도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리까? 죽어도 마땅한 일에 죽으면 충성과 효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것이니 죽이려 하옵서거든 아뢰는 약이야기나 들으신후에 죽이시고 그 약이나 진어(임금이 음식을 먹음)하옵시고 신이 죽은후에라도 병세가 평시로 회복되는것이 신의 지극한 원이오니 깊이 살펴 헤아리옵소서.》

여우는 《백호》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누그러지도록 하고 더욱 간악하고 교활한 목소리로 이리를 해치도록 《백호》의 마음을 부추긴다.

여우는 어떤 명의의 말을 빌어 년로한 《백호》의 치료에는 총상치료도 좋지만 몸의 기운과 피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의원이 말씀하기를 〈…대왕의 병을 잘 고치는 법은 짐승의 고기로 그 배를 부르도록 먹어 기운과 피를 성하게 하고 그 가죽을 상한곳에 붙이는것인데 그렇게 하면 몇날 지나면 병이 아주 낫고 그후에 다시 발할 녀름가 없을것이로다. 그 짐승은 이리라 하니 그 고기와 가죽이 신통한 약이라 급히 구하여 쓰라.〉 하여 알고왔습니다.》고 한다.

《백호》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성내며 이리를 보고 꾸짖어 말하기를 《이놈, 피스럽고 간사한 이놈아, 네가 무슨 연고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수고로이 사면으로 다니며 명의를 찾아서 약을 구하려는 충신을 해하려고 내게 아첨하여 죽이게 하였느냐. 네 말대로 내가 여우를 죽였다라면 내가 바르지 못한 임금이 될번하였노라. 네가 임금을 죽인 죄가 클뿐아니라 또 네 고기와 가죽이 내 병에 신통한 약이 된다 하니 마침이로다. 이러나저러나 너는 죽기를 면치 못할 놈이니 네가 죽어도 나를 원망치 말라.》하고 곧 달려들어 이리를 쇠갈구리같은 손톱으로 움켜잡아 앞에 거꾸로 엮어치고 쇠못같은 이발로 물어뜯어 죽이었다.

작품의 전반내용은 이상과 같다.

고전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짜 충신은 누구이고 간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자는 제가 먼저 죽는다는 생활의 진리를 보여주고있다.

실지로 이 작품의 진짜 충신은 없다.

작가는 소설에서 범과 여우, 이리를 비롯한 짐승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당쟁과 권력다툼만을 일삼던 봉건통치배들의 교활하고 비렬한 행위를 규탄하려고 하였으며 남을 모함하러 하면 자기자신부터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짧은 형식속에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묘사되고있다.

등장인물은 비록 백호, 여우, 이리이지만 봉건사회에서 만연하는 간신들과 부패무능한 왕의 형상이 생동하게 묘사되고있으며 독자들에게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교훈을 남기고있다.

또한 언어형상에서도 무능한 왕과 시기심 많고 음흉한 이리, 교활하고 간사한 여우의 개성적특성이 두드러지고있다.

《백호》가 문명하러 오지 않는 여우를 두고 욕하는것을 보고 시기하여 모함하는 이리와 그 사연을 동료여우에게서 전해듣고 사태를 역전시키는 여우.

《자네가 나를 걱정해주는것은 고맙네만 그렇게 겁내지 말고 내가 대왕에게 가서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고 아첨하던 저 시기많은 이리놈이 죽는것이나 구경하게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슬기가 많은지를 자네도 알것이니 그때에는 자네도 내게 항복하리로다.》

자기의 일신만을 생기하며 돌아치던 여우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교활한 음모는 얼마나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가.

여우와 이리의 성격은 이처럼 짧은 대화속에 집중적으로 묘사되고있다.

소설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을 쓰지 않고 일정하게 언문일치를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지금까지 나온 고전소설들에서 나타났던 한자어휘의 사용을 피하여 근대소설의 특성에 맞게 언문일치를 보장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대화체소설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소설은 복잡한 사건라열이 아니라 간결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있으며 등장인물들도 극히 적고 대화형식으로 매 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형성하면서 필자의 의도를 명백히 나타내고있다.

동물물 의인화한 소설 《백호에게 먹히운 이리》는 신소설이 과급되던 20세기초엽에 나온 《여우와 고양이 문답》,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짐승들의 회의)》과 같은 의인화소설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고향의 노래

최지성

신천의 이른새벽-
 색바랜 별들은 추위에 떨고
 바람도 찬이슬 머금은 어스름 가을새벽

풀덤불 흐트러진 그속에서
 채 피지 못한 달맞이꽃송이들
 누구를 부르는듯 아니면 바라는듯
 애타게 잎사귀를 흔드는 당재언덕...
 그우에 시인은 온몸 뭍이운채 서있었다

이제 몇순간 지나면
 가증스런 원썬들의 총성이 울리고
 새벽녘의 하늘도 어둠속의 넓은 들도
 마지막모습으로 안아보게 된 이 시각

눈빛에 정찬 미소 담고서
 무릎꿇고 앉으며
 꽃송이에 입술을 대여보는 시인
 가슴속 하많은 사연인가
 나직이 내쉬는 더운 숨결에
 작은 꽃잎이 하느적거린다

흐흑-
 모여선 사람들의 흐느낌소리-
 고향 석당리가 낳은 향토시인-
 혈육처럼 귀중한 시인을 구할길 없어
 절망으로 아픈 가슴 쥐어뜯으며
 너나없이 피눈물을 쏟는 그 소리...

그러나 한 소년만은
 눈물을 모르고 서있었다
 돌처럼 굳어진 주먹은 분노에 떨고
 솟불인양 황황 타는 두눈동자는
 시인을 겨누 원썬들의 총대를
 노려보고있었다

열세살 나 어린 그 소년
 삼봉이의 모습이 눈동자에 비꼰을 빼
 봄날처럼 부드러운 웃음짓는 시인
 고문의 아픔에 다르고 튼 입술
 떨리듯 열리며 시구절을 읊조린다
 《저 건너 갈마봉에 노을은 잠들고
 휘영청 가을달은 밝아...》

그것은 시인이 자기의 작품들중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향토시
 그래서 삼봉이도 즐겨 읊어보던 시
 《휘영청 가을달은 밝아》였다

그만에야 썸처럼 솟구쳐
 두볼 적시는 뜨거운 눈물
 봄날같이 밝고 즐거웠던 그때
 웃음속에 랑랑히 읊어보던 시구절이
 지금은 아픈 가슴속에 타끓어오른다

《늦날알 무르익는 향기로 훈훈히 적시며
 청아한 여울물소리
 음악처럼 귀담아듣는 이밤...》

눈물속에 추억도 새로워
 송아지 뛰놀던 당재언덕의 달디단 향기
 석당교 감돌며 청청 맑은 서강의 물소리
 그 정다운 선롤타고 추억은
 네해전 못잊을 그날로 거슬러오른다

1

그날은 삼봉이의 아홉번째 생일날
 해방후 처음되는 생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첫 생일로도 된다면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기뻐하면서
 즐겁게 웃음으로 맞이했던 날

하지만 어머니 차려준 생일상에 오른건
 여느날과 똑같은 보리강낭밥 한그릇에
 늘쌍 보아오던 토장 한종지뿐
 조금 다르다면
 아버지가 잡아온 버들치구이 한접시

중천에 솟은 해님이 싱글벙글 웃으며
 봄날의 랭기를 어루만져주는무렵
 딱친구 레성이가 불쑥 나타났다

《삼봉아 좋잖구나 오늘이 생일이라메?》
 《너 그건 어떻게 알았니?》
 《그저 알았지 뭐 참 너 오늘 아침은
 흰쌀밥 한사발 듬뿍 먹었잖구나》

팔알기미 꼭 박힌 레성의 입귀에
 장난קות은 웃음이 슬쩍 비끼는데

삼봉이는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언뜻 시무룩한 기색이 어리는 얼굴
꼭 붙은 머리칼아래 불만스레 내려뜬 눈

《젓 흰쌀이 어데 있니?
그저 보리강냉이밥이지 뭘》

레성이라도 퇴마루에 벌렁 드러누우며
기운없이 중얼거린다
《하긴 그래 흰쌀이 어데 있니?
우리 마을은 정말 한심해
고작 떼기논에 맨 발들뿐이니말이야
그것두 온통 돌밭이거든》

두 아이는 잠시 아무 말 없었다
딴고미운 왜놈들은 쫓겨가고
악착한 지주놈들 독차지했던 땅이
며칠전 집집마다 꿈같이 나누어진 오늘

해방만 되면 금시에 하얀 쌀밥 생기고
고운 새 옷도 척 안겨질줄 알았는데
생일상에도 예전처럼 보리강냉이
돌많은 고향 석당리의 달구지길엔
누런 황토먼지만 수북수북...

《가만-》
불쑥 자리차고 일어서는 레성이
눈을 깜박이며 바지피춤 뒤적이더니
《자 이걸 받아 연필이야
저... 뭐라드라 오 그래 생일기념!!》

삼봉이 선뜻 받아들지 못한다
어쩔 그렇게도 멋쟁이연필일가
바탕은 고운 풀색, 금빛줄이 감기고
명주실에 대롱대롱 지우개가 달린것
《어제 우리 삼촌이 가져왔어
이제 여기두 학교가 생기구
우리 모두 글공부를 하게 된대
그러면서 연필이랑 공책이랑 주더구나
우리 삼촌은 시인이야》

《시인?!》
더욱더 시무룩해진 삼봉이
연필색처럼 파아란 부러움의 안개속에
상상의 나래 저으며 날아본다
멋진 자동차들 썩썩 달리고
밤이면 대낮같이 불이 밝다는
도회지를 그려본다

그런데 여기는 척박한 산골
예로부터 돌무지가 많았다고

석당이라 부르는곳
길은 길마다 휘우듬한 오솔길
사람은 사람마다 검붉고 여윈 모습
(우리 왜 이런데서 태어났을까?)

그만해야 바싹 감질이 나서
레성이를 든장질하는 삼봉이
《레성아 우리 둘이서 몰래
읍거리에 갈가?》

레성의의 코끝이 오뎅해지며
《거긴 왜? 이십리가 넘는데...》
《젓 이십리가 뭐 먼길이나?
가서 사탕이랑 과자랑 사먹구
기차구경까지 하구 오잔 말이야》

그제야 마음 동한듯 호기심 솟는듯
레성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선다
《까짓거 갈테면 가자꾸나
네 생일을 한번 멋지게 쇠보자꾸나》

그리하여 손에 손을 맞잡고
이십리 먼길을 달려간 두 아이
두눈 번쩍 희한한 구경거리에
두눈 노상 휘둥그레 올려뜨고서
겨우 동전 세잎 주고서 사든
꿀사탕도 흰 과자도 먹는둥 마는둥...

어느덧 저녁해도 발뽕발뽕 기우는 때-
종적없는 두 아이 어디로 갔을가고
온 마을에 벌어진 소동 감감 모른채
지친 다리 타박타박 끄울며
집으로 돌아오는 삼봉이와 레성이

《어때 멋있지? 좋지?》
하면서도 맥빠진 삼봉이의 물음
《그래그래 근데 힘들구나 아-》
길게 하품하는 레성의 대답

잎새 무성한 느리나무 세그루가
의종게 늘어선 마을어구에서
문득 레성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가만 저기 우리 삼촌 아니야?》

옳았다
조용한 옷방 한구석에서
종이장 한가득 시짓고있을줄 알았는데
허름한 바지저고리차림에 질통을 지고
아버지없는 옥봉이네 비탈밭에
진거름 퍼는 일을 돕고있던 시인

반듯이 넘긴 까만머리에
 눈썹과 눈사이가 좁고 턱은 날카로워도
 파스하고 유순하게 눈을 빛내며
 반갑게 맞아준 시인

《어네들 갔잖나 마을에 소동이 났다》
 대뜸 기가 죽고 속이 떨린 두 아이
 떠들떠들 사연을 이야기하는 레성이
 《그래 좋더냐? 생일도 잘 최고?》
 《네... 좋긴... 좋... 았어요》

병글씨 뜻모를 웃음을 짓는 시인
 《좋더라 말이지 읊- 거기를 았거라》
 그리고는 담배를 피워물고서
 삼봉이에게 주는 생일기념이라며
 《시내가에 버들고운 봄이랍니다
 망울처럼 마음부푼 명절이에요
 오늘은 즐거운 날 나의 생일날》
 이렇게 재미난 동요 한수 읊어주고는
 조용조용 이야기를 시작한다

《도회지나 별방도 물론 좋지
 하지만 통강냉이에 된장을 찍어먹어도
 나서자란 고향이 제일인줄 알아라
 해방이 되었다고 모든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질줄 알았느냐
 이제 제 손으로 장군님 주신 땅에
 논도 풀고 벼도 심고
 기름기 넘치게 잘 가꾸면
 그리고 저 푸른 언덕에 소를 기르고
 염소랑 양이랑 떼지어 흐르게 한다면
 흰쌀밥에 고기국 먹으며 잘살수 있다
 그 맛을 어찌 고향을 나무라며 사먹는
 사탕이나 파자맛에 비길수 있겠느냐》

사근사근 부드러운 그 목소리
 하지만 삼봉이의 두눈은 깜빡깜빡
 선생님의 타이름이 옳은 말 같아봐도
 왜 그런지 자꾸만 머리는 기웃기웃
 (그래두 도회지가 더 좋지 뭐
 그러니까 선생님도 거기서 사시겠지
 선생님의 고향도 여기라고 했지
 지금껏 우리처럼 이 돌무지마을에서
 통강냉이를 잡수며 살고계셨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진 못했을거야)

하지만 그것은 아니할 생각-
 삼봉은 썩 후에야 알게 되었다
 해방후 세번째로 맞은 가을날
 모래불 하이얀 서강기슭에서...

그날은 시인이 해주에서 신천으로
 읍도 아닌 여기 석당리로 아주 온 날

예전처럼 며칠씩 현실체험도 아니고
 일가족 모두 거느리고서
 도회지에서 시골로 아주 내려온 날

그날은 한껏 무르익은 가을날이었다
 땀들여 푼 금빛 논벌우엔
 난알내에 취한듯 흰두루미 주억거리고
 밤알이 여무는 뒤통산에선
 즐겨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짜그르르

강변 하얗은 물목에서
 푸파푸파 물장구 치며 놀던 삼봉이
 또 한마리 받아낸 애송아지를
 아기처럼 미역감기던 삼봉이
 레성이가 달려와 하는 그 말을
 선뜻 믿을수 없었다
 삼봉이의 손에서 빠져나온 송아지가
 금빛 털에 함초롬한 물방울을 털며
 강동강동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그래도 그냥 어리둥절 고개 기웃...

안그럴수 없는 일
 그 좋은 도회지생활을 마다하고
 왜 여기 시골로 내려왔을가
 글썄 지금은 논도 풀고 소도 매고
 또 해마다 풍년들어 살기 좋지만
 어떻게 도회지만이야 할가

한식경이나 굳어져 서있는데
 해별에 그을은 구리빛 얼굴에
 밝은 웃음 띄우고 시인이 다가왔다
 고운 송이들에 향기도 그윽한
 손에는 달맞이꽃 한줌 꺾어들고...

방금전의 속마음을 엿볼것만 같애
 삼봉이 주뭇주뭇 인사말 더듬는데
 기쁨에 넘친 시인의 목소리...
 《그래 어떠냐 삼봉아

저건 정말 틀림없는 너희네 송아지구
 저 방쪽너머에 무독한 로적가린
 너의 부모들이 흘린 구슬땀의 열매라지
 이젠 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되었으니
 이 돌무지마을에 정이 폭 들었겠구나》

부끄러이 고개를 숙이는 삼봉이

두해전 봄날 자기의 생일날에
선생님에게 품었던 고까움이 생각나
얼굴화끈 빨갛게 달아올랐다

우물쭈물 하는참에 고맙게도
레성이가 얼른 끼어들었다
《삼촌 삼봉이넌 집도 새로 지었어요
저기 당재기숙에 송아지가 보이지요
그옆에 덩실한 기와집이예요
닭두 얼마나 많이 기르는지
대낮에도 꼬끼요 꼬끼요… 해해》

삼봉이도 활기를 띠며 입을 열었다
《이따가 놀러오세요 꼭 놀러오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
별안간 두눈을 부릅뜨는 시인
《가만 가만 있거라》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이러실까?)
놀라고 의아해서 고개가웃 하는데
시인은 두손 꼭 마주잡고
더운숨 내뿜으며 입을 연다
《송아지 매매 우는 언덕에
터 닭고 새로 지은 기와집…》

그다음 시인은 돌아선다
삼봉이나 레성이는 감감 잊은듯
급한 걸음 옮겨 어디론가 걸어간다

그날저녁 프락구석 샷자리에 누워서
구름속을 헤엄치는 양춘달 바라보며
(아까 선생님이 뭐랬더라?
송아지 우는 집? 새로 지은 집?
해해 그건 바로 우리 집일텐데…)

저혼자 싱글벙글 웃기도 하며
머리발을 땀도는 얼룩강아지를
툭 쥐어박고는 슬쩍 쓸어주면서
삼봉이 이리 덩굴 저리 덩굴 하는데
때마침 시인이 들어섰다

삼봉이 벌떡 뛰어일어나고
아버지도 반겨 맞아들인다
《어서 오시오 기다렸습니다
우리 애가 시인선생이 아주 왔다고
얼마나 기뻐 하는지 몰라요
선생의 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집이나 동리나 큰 경사였으니
왜 안그렇겠습니까》

《전 별로 한일도 없는데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깁듯이 머리숙이는 시인
그 검손에 마주 허리숙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뿌연 술을 보시기에 따르며
어쭈게 하는 말
《우리 집에서 고은 강녕이술이예요
농군들이 〈강태기〉라 부르는 막술인데
시인선생님 구미에 맞겠는지 원…》

《별말씀 다 하십니다
난 맑은 술보다 이게 더 좋더군요
〈강태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써
구수한 향기에 가슴이 더워지거든요》

잠시후 불그레 취기가 오른 시인
홍그런 기분으로 읊조렸다
그것은 아까 시작한 그 시의 매듭
래년농사 종자궤미 줄느린한 방안이며
달빛아래 웃음꽃핀 행복한 이 저녁이
자기가 찾고찾던 그것이라 기뻐하며
《오빠랑 누나랑 모두 모여서
전등밑에 씨앗을 고르면서요
토지개혁 하던 얘기 꽃피웁니다》

제목은
《송아지 매매 우는 언덕에》라며
이 시의 주인공은 바로 삼봉이란단
너무나도 달라진 삼봉이의 모습이
시구절로 엮어진것이란단

그바람에 흥이 난 삼봉이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며
한무릎 바싹 나앉으며 묻는다
그 좋은 도시를 왜 떠나오셨는가

《삼봉아 그게 그렇게 놀라웁냐?》
《남들은 다 도회지가 좋다는데…》

꺄꺄 소리내여 웃는 시인
소담한 버이삭 한톨 집어들고서
검은 눈동자로 이윽도록 들여다보다가
담배 한대 붙여물고 말한다

《해방전 천대받고 못살적엔
이 땅을 버리고서
타향으로 이국으로 떠돌던 내가
잘살게 된 고향으로 다시 왔으니
사실 옥도 된옥을 먹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삼봉아 이게 바로

꿈같은 일이 아니냐?
 피눈물만 흐르던 이 땅에
 웃음이 피어나고 행복이 무르익었으니...
 그래서 난 결심을 한거란다
 천지개벽을 한 고향땅에 이 몸을 두고
 너희들과 함께 웃고 함께 땀흘리고
 그래서 정말로 흙냄새가 습배인
 구수한 난알향기가 폭폭 풍기는
 그런 진짜배기 시를 쓰자고말이다
 그것으로 내 고향을 세상에 자랑하고
 내 고향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바로 그것으로 하늘같은
 우리 장군님 은덕을 노래하고싶었다》

어느덧 시인의 눈굽엔 이슬이 가랑가랑
 삼봉의 맘속엔 감동의 물결 출렁출렁

시인이란 정말정말 훌륭한 사람
 그래서 시란 신비하고 좋은것
 나도 크면 시인이 될가
 만사람의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가

고운 꿈 품어안고 밝은 미래 그려보며
 삼봉의 가슴 마냥 들먹인다
 그리고 쿵쿵 뛸뛰기도 한다
 ...

그후 시인과 함께 지낸 한해반동안
 삼봉의 가슴속에 찍혀진 시인의 모습은
 깨끗하고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증오할줄 아는
 이 나라의 참된 애국자의 모습!

이름모를 한송이 들꽃마저도
 제 집 트랙의 난알포기인듯 소중해하고
 고향사람모두를 자기 집 식구로 여기는
 대바르고 인정깊은 그 마음!

3

바로 지금
 여기 당재언덕우에 서있는 시인이
 그날의 그 시인 레성의 삼촌이다

휘영청 달밝은 고향의 밤들과
 황주목 재령목에 차넘치던
 애국미의 끝없는 대렬을 따르며
 지금껏 그리도 많은 시를 써왔건만

원췌놈들 요구하는 변절의 시
 《새 정권》 찬양하는 반역의 시만은

살아서는 쓸수 없어 죽어도 쓸수 없어
 가슴펴고 사형장에 나섰던것이다
 ...

가을도 다 저물어 10월의 어느날
 채 다 못거둔 벼나락을 밟으며
 저앞 도시락고개를 넘어서 미국놈들이
 삼봉이네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것은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
 집 트랙 갑나무아래에
 레성이와 함께 세운 조선지도판
 거기에 날마다 빨간 기발을 꽂으며
 인민군데 진격로를 함께 걷는 마음으로
 기뻐 웃던 삼봉이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씩 남은 기발
 레성이 너는 부산에 붙이고
 내것은 한나산마루에 휘날리자고
 즐겁게 약속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군화발 들여놓은 그날부터 놈들은
 사람들을 많이도 죽였다
 저기 원암리의 밤나무골에서만도
 한꺼번에 수백명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죽였고

여기 석당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친척마냥 다정했던 이웃들
 학교길 같이 걷던 어린 동무들
 그속엔 삼봉의 제일가는 딱친구인
 레성이 레성이도 들어있었다

꼭 꿈속을 헤매는것만 같았다
 대전이 해방된 날 이른새벽에
 제 먼저 기발을 꽂겠노라
 함께 싱깅이를 부리던 레성이

애지중지 길러온 발같이 누렁황소를
 술안주 하겠노라 끌고가는놈들에게
 돌맹이 틀어쥐고 달려들다가
 그 작은 가슴에 총탄 다섯발 맞고서
 당재기슭에 피흘리며 쓰러진 레성이

그것은 꿈속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했던
 죽음 죽음이
 매일같은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나날
 정녕 원췌놈들은 짐승보다 더한 악귀
 죄없어도 그앞에선 죽어야 했다
 오늘은 또 누가?
 래일은 혹시 삼봉이 내가?

허청간 깊숙이 숨겨왔던 지도판과
못다불인 빨간 기발 두개를 꺼내보니
눈물그득 솟게 하는 동무들생각
심장도 터질듯한 레성이 생각

죽었다고 믿을래야 믿을수 없고
혹 살아있지는 않을까 헛생각 갈마들 뻔
바둑바둑 이가 갈리며
맘속으로 피타게 불려도 본다
레성아 레성아!
그러느라면 애타는 그리움과 기다림
구월산유격대에 들어간
시인선생님과 누나의 모습이 눈에 삼삼

처음 만났을 뻔 마음좋은 선생님
그후엔 친삼촌같이 다정하였고
지금은 친아버지같이 귀중해진 시인

지난 7월
전선원호대원이었던 아버지 어머니가
식량바리 싣고가다 한낱한시에
원쭉놈들 폭격에 희생되었을 때
그래서 누나와 삼봉이 외로이 남았을 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며
자기 집 아래목으로 손잡아온 시인!

(언제면 오실가 언제면 만날가
언제면 레성이의 원쭉을 우리 부모 원쭉을
잡아볼수 있을가)

그러던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불길한 소식 전해졌다
정치공작임무를 받고 내려왔던 시인이
원쭉놈들에게 체포되었다는 무서운 소식!

...임무를 수행하고 떠나려는 순간에
악질치안대놈들에게 발각되자 시인은
함께 온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놈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했던것이다...

그소식 들은 첫순간에
삼봉은 가슴이 무너져내린듯...
다음 순간엔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시인선생님이 언제나 들어있었음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인츰 삼봉이의 귀에도 전해진 소식
놈들이 시인에게 들이댔다는 두가지 요구
-구월산유격대의 위치를 대라

그리고 자유세계가 찾아온
오늘을 찬양하여 시 한편만 잘 쓰라
그것을 사람들앞에서 큰소리로 읊으라
그러면 살려도 줄것이며
바라는것도 다 줄테다
하지만 단마디로 거절해버렸다는 시인!
그것은 죽음도 각오한 마지막선언!

삼봉이는 터질듯한 가슴을
부둥켜안았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선생님은 아마
죽어도 그런 시는 쓰지 않을거야
그러면 놈들은 죽이고야말테지
서강기슭에 노상 물비린내 떠돌듯
줄창 피비린내 풍기는 친천인데-
죄없는 어린이도 죽음을 당하는 여기서
로동당원이며 빨찌산대원인 선생님이야
어떻게 무사할수가 있담!)

선생님은 나와야 해 살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삼봉의 심장은 쿵쿵 놀뛰었다
세상떠난 친부모들을 대신하여
사랑깊고 인정많은 아버지되어
따스히 안아주고 품어준 선생님!

하지만 그보다도
고향의 한줌 흙을 살점같이 사랑했고
한포기 풀잎에도 애지중지 정 쏟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던 시인
삼봉의 철없는 가슴속 깊은곳엔
조국이란 무엇인가 심어준 선생님!

선생님을 구원할테야 꼭 구원할테야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죽음에 부닥친 시인을 생각하면
온몸에 그들먹이 솟구치는 힘!
그러다가 만약 들키면?
이렇게 두려움 갈마들 뻔
등골을 서늘케 하는 소름!

삼봉이는 깊숙이 감추었던
빨간 기발 두개를 다시금 꺼내든다
하나씩 벌췌 숨겨 묻혀버린
레성이가 만든 사연 많은 기발
검은 머리 하얗게 쉼 먼 후날까지
어깨동무 되자고 다짐했던 레성이
그런데 중학교도 못가보고
열세살 어린 나이에 생을 마친 레성이
(레성아 난 선생님을 구원할테야
꼭 구원할테야
그리고 네 원쭉도 잡고말테야)

삼봉이는 이렇게 속다짐하였다

그렇다!

정녕 시인을 구원한다는것은
고향의 자랑 향토시인을 살려낸다는것은
앞날에 태어나 소리높이 불리워질
귀중하고도 수많은 시들을 지켜내는것
그 시가 노래하고 그 시구절에 담겨질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는것

날이 어두웠을 때...

빨간 기발을 품속깊이 간직하니
심장은 더욱 든든해진듯
허리춤엔 장도칼 한자루와 바줄을 차고
부릅뜬 두눈엔 별빛 번뜩이며
삼봉이 집을 나섰다

가을바람 휘휘 부는 야밤삼경이라
총성은 없으나 아직도 매운 연기
그 연기아래 푸석푸석 재밟히는 소리
유리조각 부서지는 소리인듯

딱 내리덮인 무거운 정적속으로
삼봉이는 은밀히 다가간다
전쟁전 현물세를 넣어두던 랑곡창고로
거기서도 제일 복판의 숙직실에
시인이 홀로 갇혀있었다

제세상 만났다고 기고만장한놈들은
술에 취해 끄덕끄덕 졸며 보초서고
허꼬분 소리로 노래가락 넘기면서
엉터리 순찰마져 도는듯 마는듯...

느닷없이 솟구치는 자신심에
마음도 든든해진 삼봉이
눈깜짝할 사이에 바줄을 걸었다
지난 여름 폐성이라 참새를 잡느라
노끈을 걸었던 그 껍쇠에...

그때를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을 허비고드는 폐성이 모습
입술 꼭 옥문 삼봉이
겁도 없이 주저도 없이
날쌔게 다람쥐마냥 바줄타고 올라서
캄캄한 고미다락속에 잤아들었다
이제 남은것은 오래되어 헐겁고 삭아진
만장의 나무판자를 뒤장췌 뜯어내는것...

무서움과 희망으로 터질듯한 심장은
배밀이하는 가슴밑에서 쿵쿵 뛰논다
(선생님은 지금 어쩌고계실까?
무슨 생각을 하고계실까?)

그때 바로 그때 조용조용 울리는 소리
삼봉이는 어렴풋이 들었다
천정아래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담담히 읊조리는 시구절

《다문다문 넓은 풀밭-
우리 소년시절 여기서 잔뼉를 가꿀 때
송아지 매고 풀만 벨줄 알았더니
차곡차곡 들어앉은 새집은 몇채이고...》

아 산다는것이 그리도 즐거운줄 몰랐다고
늘 외우던 선생님
죽음앞둔 이 시각을 아는듯 모르는듯
마음편히 시를 읊는 선생님
어쩌면 그리도 큰 심장 지녔을가

이 세상에 시가 있다는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삼봉이
해방을 맞아 시인선생님을 만나
가슴이 넓어지고 꿈도 커져서
저도 크면 시인이 되겠노라고
지난해부터는 쓰기를 시작했던 삼봉이
하지만 너무나도 알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시란 어떤것일가
정말이지 시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가

뚜벅뚜벅
보초놈의 발소리는 지척에 울리고
한조각 한조각 구멍을 뚫는
그 위험속의 순간순간에도
삼봉이의 귀가엔 은은히 들려온다

지난해 여름날 하루밤사이에
멋진 말마디만 고르고콜라
손쉽게 세편이나 시를 써냈을 때
시란 단순한 글줄이 아니라
진실하고 뜨거운 심장이 뿜어내는
넋의 분출이라고
시인이란 존경이나 받는 멋쟁이가 아니라
가장 사랑할줄 알고 가장 중요할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될수 있다고
절절하게 하시던 그 말소리

그때엔 다 몰랐던 그 말의 참뜻이
삶과 죽음이 함께 맞닿은 이 시각
가슴치며 심장울리며 안겨온다 안겨온다

4

마침내 구멍뚫은 삼봉이
바줄을 드리우고 나타났을 때

시인은 무섭게 놀랬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것은 아닌가
원썬들의 살벌한 경계망을 뚫고
나어린 삼봉이 나타났으니
이게 정말 생시란 말인가

시인은 반가움 누르고 꾸짖었다
《삼봉아 너 정신있느냐?
예가 어디라고 그런 모험을 영?
죽자고 그러느냐? 죽자고...》

그렇듯 성난 시인을 처음 보았으나
삼봉은 시인의 손부터 부여잡았다
《선생님, 빨리 나가자요
놈들은 선생님을 죽일거예요
옥봉이도 레성이도 다...
어서 나가자요 네? 어서요》
《삼봉아!》
시인은 소년을 와락 끌어안았다
사랑과 증오로 쿵쿵 뛴뛰는 두 심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순간-
삼봉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악착한 고문에 무릎뺨가 으깨지고
몽둥이에 짓이겨진 시인의 두다리
참대못에 찢려온 두손도 통통 붓고...

죽음도 각오하고 감방에 들어온 삼봉이
그 마음 끝없이 사랑스럽고
그 마음앞에 운신 못할 자신의 몸을 두고
가슴터지게 피로운 시인의 심정!
《어쩌겠니? 삼봉아 정말 안됐구나
이제 인차 날이 밝겠는데 어서 나가거라
놈들에게 들리면 안된다 자 어서...》
방금전 웃으며 시를 읊던 시인의 눈
거기엔 그렇그렇 눈물이 고였다

《안돼요 선생님 나가야 해요
그렇잖으면 죽어요》
삼봉이 울며불며 애타게 하소연하는데
그의 눈물 닦아주며 웃음짓는 시인!

《아니다 삼봉아
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내 만약 사형장에 나선대도
그 죽음이 땀뻗은 최후로 된다면
가장 귀한것을 생명으로 알고있는
저 추악한 원썬놈들에게
그보다 더 귀중하고 크나큰것을
보여주고 죽는다면

삼봉아 나의 시도 살아있는것이요
나의 생명도 살아있는것이니
삼봉아 네가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대신하여
네가 우리 레성이의 몫까지...》

문득 말을 채 잊지 못하는 시인
너무도 많은 말 비끼인 그 눈빛
간절한 부탁 하많은 기대를 담고
번쩍이는 검은 눈동자
채 못다한 그 말뜻
삼봉은 읽고도 남았다
시인이 못다한 고향의 노래를
자신이 이어서 불러야 함을
그는 너무도 잘 알았다

삼봉은 시인의 가슴에
얼굴묻고 속삭였다
선생님! 꼭 훌륭한 시인이 되겠어요
잘살아도 못살아도
이 땅에 넋을 묻고 사랑을 쏟아붓는
진짜배기 시인이 되겠어요

《삼봉아!》
시인은 뜨거운 가슴에
삼봉이를 품어안았다
...

신천의 가을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원한의 죽음뒤에서
더 억세고 참된 생명이 태어나는
복수의 땅 신천은
이렇게 새날을 불러오고있었다
시인의 당부만을 가슴에 안고
피눈물 쏟으며 돌아온 삼봉이
푸름푸름 동티오는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몸을 떨었다
조금 있으면 새날이 밝아 10월 17일
아 래일은 시인의 생일날이었다

생각하니 또다시 솟구쳐오르는 눈물!
지난해 이날엔 참으로 즐거웠었지
시인의 가족과 삼봉이네 온 집안이
함께 웃고 떠들며 서강에 나가
모래무치 뚝중개를 보쌘가득 잡았었지
늦밤비에 무독히 어죽을 쑤어놓고
어른들은 《강태기》를 달게 마시고
녀자들과 아이들은 아니아니 하면서도
시고 단 탁배기를 잘도 마셨었지

삼봉의 눈앞엔 방불히 떠올랐다
우리 고향의 술은 착하고 순해서

별써 한병이나 마셨지만 별일 없노라며
 물이 하도 좋아 술맛도 감미로워
 서양나라 명술에도 비길수 없노라며
 붉은 얼굴에 환하던 그 웃음!

삼봉이는 마음먹었다
 래일밤 선생님의 생일날엔
 꼭 부어드리리라
 선생님이 즐기던 구수한 《강태기》를
 내 손으로 정히 부어드리리라

허나 이루지 못한 그 마지막소원
 새날이 거의 밝아올무렵
 별들도 사위여가는 이른새벽에
 아 가슴찢기고 뼈를 에이는
 아픔의 시각이 닥쳐왔거니
 시인은 그때 사형장에 서있었다

5

사람에게 있어 생일날이란
 생명을 받아안고 세상에 태어난 날
 첫 삶이 시작된 소중한 추억속에
 깊이깊이 간직되어 잊히지 않는 날
 바로 그날에 생을 마친 사람이
 사형장에 나선 사람이 있었던가고
 물으면 누구든 대답할수 없으리라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는가
 놀라움에 치를 떨게 되리라

그러나 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강철같이 억센 시인의 의지
 고문과 회유로는 굽힐수 없어
 그가 태어난 날 이른새벽에
 죽음이란 두 글자로 꺾으려는놈들

삼봉이는 생각해본다
 아홉번째로 맞았던 생일날 아침에
 시무룩히 불부었던 자기의 마음
 이제 겨우 서른세번째 생일날에
 최후를 맞이한 시인선생님
 그 두 마음의 아득한 차이를...

...

《강선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새 세상이 도래한 오늘을
 천지개벽을 한 오늘을 노래하셔야지요
 죽은 정승 산 개보담 못하다잖습니까》

놈들의 지껄임에
 시인은 쓴 웃음 지었다
 《가련한놈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세상리치도 모르는놈들
 뭐? <새 세상> 이 도래했다구? 흥-
 그것은 애당초 세상인것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그것도 <삼일천하> 의...》

잠시 침묵 원썩들은 마침내
 마지막수단을 꺼내놓았다
 그야말로 가장 아프고 피로운것이리라
 지레짐작을 앞세우며 떠벌인다
 《오늘이 생일이라는걸 잊은건 아닌가
 도대체 그럴수가 있는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에 죽다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날이야
 순간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살수 있어
 자 살아서 새날을 보아야지
 가슴아픈 죽음은 우리도 싫단 말이야》

《괜한 걱정들 하는군
 난 오히려 가장 뜻깊게
 생일을 쇠고있는데...》
 시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
 정다운 시선 따뜻한 눈빛으로
 삼봉이를 바라보며 다시 잇는 말
 마치도 그에게 이야기하듯

《나에겐 세상에 태어난 날은 있어도
 세상을 떠나간 날은 없다
 푹푹히 들어두거라!
 자기 조국과 인민 앞에 충직한 삶은
 끝나지 않음을 그리고 영원하다는것을
 네놈들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목숨이 가장 귀중한줄로 아는놈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을 더 사랑하는
 이 땅의 수천수만의 아들딸들!
 그래 맞설 상대가 되는가!》

그다음 시인은 동쪽으로 돌아선다
 비록 찬바람에 시들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준 달맞이꽃
 새 봄이 오면 수백수천으로 다시 피여날
 달맞이꽃 그러보며 시를 읊는다
 《한많은 이 땅에 복이 찾아와
 잠속에도 웃고 즐거움을 맛보며
 고마움의 눈물짓던 우리들이거니
 사람들이여 물어보라 심장에
 목숨의 값보다 더 귀한것 무엇인가》

그 순간에 삼봉이는
 심장으로 깨달았다 조국임을
 조국이란 그리도 귀중한것이어서

조국없이 산 목숨은 죽은 목숨!
조국 지켜 바친 목숨은 살아있는 생명!
그런 죽음이 있어 사랑이 있어
이제 다시 송아지 매매 우는 언덕에
날알향기 구수한 그날이 오리라
그날 오면 승리와 해방의 진격로에
다시 휘날릴 빨간 기발 붉은 기발을
삼봉이는 힘껏 틀어쥐었다

《사격준비!》
사람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으며
격발기 우는 소리

그러나 시는 계속 울린다
《조국이여 어머니시여
그대의 번영에 나의 삶도 함께 있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라도 영원히...》

바로 그 순간에 총소리 울리고-
시인은 흠칫 몸을 떨었다
두눈 부릅뜨고 시구절 이으려고-
허나 이을수가 없었다
그 순간 시인의 눈동자속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비끼고
고향의 모든것이 다 담겨졌다
먼동이 떠오르는 하늘아래 억세게 선
우리의 삼봉이도 들어있었다

시인은 마지막 온몸의 힘을 모아
부르짖는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조국인
김일성장군님 만세!》

아- 선생님
삼봉의 마음속에 터지는 부르짖음
들어온 두주먹은 으스러질듯
원췌를 노려보는 눈동자엔 불길이 일듯
흐르는 눈물은 증오에 번뜩이고
악물어 피흐르는 입술엔
복수의 맹세가 비끼었다

아 값비싼 죽음으로 더욱 큰 삶을 이룬
우리의 시인은 죽지 않았다고-
시인이 웨친 부르짖음은 삼봉의 심장속에
우렁찬 목소리로 간직되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조국인
김일성장군님 만세!》

정녕 그 순간은
바람세찬 새벽의 대지에
한없는 뜨거움이 떠오르는 순간!

가장 깨끗하고 억센 심장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 안기는 순간!

×

날이 희뵤하니 밝았을 때...
멀리 구월산이 바라보이는
당재언덕의 제일 높은곳에
자그마한 봉분이 생겨났다

잘 여문 날알 고르고골라
봄날엔 즐거웁게 씨앗을 묻었고
여름 가을 기쁘게 구슬땀 뿌려왔던
아, 푸근한 고향의 흙!
바로 시인의 생일날아침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 흙속에
선생님을 정히 묻은 삼봉이

그 흙으로 쌓아올린 봉분우에
붓지 못한 생일술을 다 쏟아부으며
지금껏 단 한번도 더놓은적 없었던
맘속에만 간직된 다정한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속삭일 때
눈물은 한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의 삼봉이는 벌써
열세살 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철부지의 어리광 응석과 투정으로
돌무지마울이라 고향을 탔하던
그 작은 가슴속 한복판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안겨준 고향
세상에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
웃으며 생을 마친 우리의 시인
그의것과 똑같이 불타는 심장이
억세게 힘차게 뚫고있었다

날이 밝아 해가 떠올랐을 때...
또다시 울리는 원췌들의 총소리
엄마찾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으며
불연기 타래치는 고향마을 뒤에 두고
두주먹 무쇠같이 들어온 삼봉이
눈동자속에 푸른 불빛 담고서
걸음걸음에 억센 힘을 기울여
누나를 찾아 빨찌산을 찾아
구월산 령길을 오르고있었다

사랑하는 고향아 나의 고향아!
복수의 총을 안고 내 다시 오리라
그날을 그날을 기다려다오
정다운 나의 고향아!

채만식의 풍자작품과 사회비판의 예리성

한중모

1

해방전 진보적문학은 우리 나라 근대 및 현대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시기의 작품들을 발굴하여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우리 문학 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전의 진보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여 인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널리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장구한 력사적로정을 거쳐온 우리 나라 민족문학은 20세기에 와서 그 발전의 새로운 고비에 들어섰다. 특히 1920~30년대는 근대문학의 본격적인 발전과 현대문학의 시발로 특징지어지는 중요한 시기로서 우수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진보적인 문학유산을 풍부히 남겨놓았다.

채만식(1902~1950년)은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로 망국의 비운이 조국강토우에 무겁게 드리워있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모순에 찬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악착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발표하여 해방전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작가의 한사람이다.

채만식의 처녀작으로 알려지고있는것은 주체 12(1923)년에 창작된 중편소설 《파도기》인데 이 작품은 일제의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하고 묻혀있다가 8.15후 작가가 사망한 다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중편소설 《파도기》는 그의 첫 작품인것만큼 묘사가 세련되지 못하고 구성조직이 산만하며 군더더기가 많은 미숙성이 있으나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비판적태도와 반일의식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채만식이 문학활동의 첫걸음부터 사회비판적경향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관심을 돌렸다는것을 보여준다.

작가로서의 채만식의 이름이 출판물에 나타난것은 단편소설 《세 길로》(1924년)와 《불효자식》(1925년)이 잡지 《조선문단》에 추천작품으로 발표되면서부터였다. 그는 이 작품들에 이어 주체 15(1926)년에 회곡 《가죽버선》을 창작하였고 주체 16(1927)년에 단편소설 《생명의 유희》를 집필하였으나 이것들도 오래동안 파묻혀있다가 8.15후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후 채만식은 단편소설 《산적》, 《그뒤로》 등을 창작발표하였으나 이 작품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채만식은 1920년대에는 우리 나라 문단에서 뚜렷

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채만식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정력적인 창작활동으로 많은 작품들을 련속 창작발표함으로써 자기의 작가적면모와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나타내었으며 1930년대 중엽이후 당시의 진보적문학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채만식은 《카프》에 직접 가맹하지는 않았지만 프로레타리아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무산계급적경향성이 두드러진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문학발전과 관련되는 평론활동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당시 채만식은 《카프》의 《동반자》로 인정을 받았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채만식은 《부춘》(1932년), 《레디메이드인생》(1934년), 《소망》(1936년), 《치숙》(1937년)을 비롯한 단편소설들과 《인테리와 빈대떡》(1934년), 《흘러간 고향》(1937년) 등 회곡들 그리고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년), 《탁류》(1937~1938년), 《태평천하》(《천하태평춘》)(1938년)와 같은 장편소설들을 포함하여 많은 작품들을 련이어 창작발표함으로써 해방전 진보적문학의 발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다.

채만식의 문학작품들은 일제통치말에 있는 식민지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을 여러모로 폭로비판하면서 민족의식과 반일사상, 무산민중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리념에 대한 동조를 표현하였다.

채만식은 다양한 주제와 여러 형태의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지만 그의 작가적풍격과 창작적개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문학적특징은 풍자적수법의 다양한 구사를 통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악덕과 병폐를 신랄하고 예리하게 폭로비판한것이다.

우리 나라의 해방전 진보적문학에는 풍자작품들이 적지 않게 있으나 채만식과 같이 인간과 생활에 대한 풍자해학적묘사를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빚어낸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날카롭게 폭로비판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많이 써낸 작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묘사에서 풍자해학적수법을 독특하게 활용하는 채만식의 창작적개성은 이미부터 나타났지만 1930년대 중엽이후에 써낸 작품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체 23(1934)년에 채만식은 고등교육을 받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식민지식인의 구차한 생활모습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식민지사회의 모순의 일단을 보여준 단막회곡 《인테리와 빈대

떡》을 써낸데 이어 식민지식인문제를 예술적으로 더욱 심화시켜 취급한 단편소설 《레디메이드인생》을 창작발표하고 그후 계속하여 《소망》, 《치숙》과 같은 특색있는 단편소설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당시의 문단에서 풍자작가로서의 면모와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단편소설 《레디메이드인생》에서 주인공의 궁핍한 생활과 사회현실에 대한 불평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나약한 소부르조아인테리의 불우한 운명에 대한 쓰디쓴 자조와 함께 일제의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채만식의 풍자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수법을 광범히 활용하고있는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묘사는 한두 표현이나 문장, 생활세부에 국한되지 않고 웅근 인물형상 나아가서는 작품형상전반을 포괄하여 적용된 경우가 많다. 그의 풍자작품들에서는 비난과 공박을 받는 인물이 비판대상, 부정인물인것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 긍정인물로 성격화되거나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흔히 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작품의 제목자체가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표현으로 된것도 있다. 채만식의 풍자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희곡 《인테리와 빈대떡》에도 나타나있지만 그후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 《치숙》과 《소망》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것은 채만식의 창작적양이 후기에 와서 더욱 원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것이다.

단편소설 《치숙》은 채만식의 풍자적묘사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은 《치숙》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나》가 머저리로 꺾이는 오촌고모부의 어리석음을 공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저로서는 잘난체하는 조카가 친일근성이 골수에 박힌 왜놈의 주구이며 머저리라고 하는 아저씨는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앓고있는 진보적인물이라는데 이 작품의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묘사의 특성이 있으며 민족반역자, 친일파에 대한 풍자적비판의 예리성과 신랄성이 있다.

소설에서 이야기의 흐름새는 조카가 아저씨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아저씨가 방어하고 변론하는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뺨는 침이 제얼굴에 떨어진다는 격으로 아저씨에 대한 조카의 조소비난과 자화자찬은 자기의 부정적인 성격적특징에 대한 자체폭로로 되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풍자적형상의 묘미가 있다.

일본인의 상점에 심부름군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 《반포》(점원책임자)까지 되고 《앞길이 환히 트인》 조카는 대학을 졸업한 아저씨가 괜히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해서 자기 신세만 망친것이 아니라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다이쇼》(일본인주인) 밑에서 10년동안 더 일하여 한밑천 얻어가지고 환갑이 될 때까지 장사를 하여 10만원을 모으며 가정을 꾸리는데서도 일본색시에게 장가를 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며 먹고입고 쓰고사는것도 일본사람처럼 하겠다고 으쓱거린다. 이에 대하여 아저씨는 그에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관과 생활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소설은 일제가 조선에서 《동조동근》과 《내선일체》를 떠벌이면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던 때에 독특한 형상수법으로 민족반역자의 추악한 친일근성과 배주행위를 날카롭게 풍자조소하면서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사회주의리념을 긍정적인 점에서 이채를 띤다.

단편소설 《소망》은 극도로 희화화된 특이한 형상을 통하여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일제통치에 대한 반항심과 항거를 표현하였다.

소설은 의사를 하는 착실한 남편과 함께 안락하게 살아가는 언니를 찾아간 동생이 도수가 넘은 신경쇠약환자처럼 처신하고 행동하는 자기 남편을 걱정하여 늘어놓는 사설로 되어있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자매의 화제에 오른 문제의 인물인 동생의 남편은 의사를 하는 언니의 남편에 대하여 세상이 곧두서고 사람이 돼지처럼 된것도 감각 못하고 환자들의 돈을 굶어모아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사는것밖에 모르는 《하등동물》이라고 멸시하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때까지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집안에만 묻혀있는 괴이한 사람이다. 그는 삼복더위에도 한증가마속같은 건넌방에 들어박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 무더운 말복날에 시꺼먼 겨울양복을 차려입은 데다가 겨울모자를 눌러쓰고 검정구두를 신은 차림새로 서울 종로네거리에 나가 뺨치고 서서 통쾌감을 느낀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두라고 타이르는 안해를 《속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싸움이라고 한다. 《더위가 나를 북으니까 누가 못견디나 보자구 맞겨루는 싸움이야 싸움!》 여기서 《삼복더위》는 조선인민을 괴롭히는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 대한상징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 묘사되고있는 풍자해학적형상의 특성은 비판의 화살이 그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정신병자와 같은 괴상한 행동을 연출하게 한 일제통치하의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식민지사회현실에로 돌려지고있다는데 있다.

채만식은 《치숙》, 《소망》 등 단편소설들을 창작발표한 주체26(1937)년부터 두번째 장편소설 《탁류》를 집필하여 신문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탁류》는 채만식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의 하

나로서 다양한 인물형상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일제통치말에 있는 식민지사회현실의 모순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하였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희극적 양상의 풍자작품은 아니다. 소설에서 몰락한 양반의 후예로서 언제나 초췌한 물골로 다니는 정주사, 침탈된 말로 얼렁뚱땅해서 살아가는 박제호, 겉과 속이 다 악마처럼 흉칙한 장형보 등은 일정하게 회화화되어 묘사되었지만 많은 인간 성격과 생활이 현실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졌으며 주인공의 처절한 생활과 기구한 운명에 대한 묘사에서는 비극적인 색깔이 진하게 내비치고있다.

채만식은 주체27(1938)년에 세번째 장편소설 《천하태평춘》을 창작하여 《조광》에 연재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후 단행본으로 출판할 때 《태평천하》라고 제목을 고치었다. 채만식은 장편소설 《태평천하》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는 작가적력량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채만식은 장편소설 《태평천하》를 써낸 다음에도 8.15해방직전에 이르기까지 여러편의 장중편소설들과 많은 단편소설들을 집필하여 발표하였으나 사상에술적수준과 사회비판의 예리성에 있어서 앞의 작품들을 능가하는것을 내놓지 못하였다.

2

장편소설 《태평천하》는 채만식의 작가적면모와 개성적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풍자작품이다. 《태평천하》에는 《카프》의 《동반자》이며 풍자의 능수인 채만식의 창작적개성과 그의 문학의 사상예술특성이 집약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 소설의 풍자적성격은 《태평천하》라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고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류레없는 파썸적폭압과 경제적수탈을 감행함으로써 온 강토를 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 조선인민들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일제통치말에 있는 식민지 조선의 악착한 사회현실을 두고 《태평천하》라고 이름한것이야말로 얼마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인가. 외세가 지배하는 식민지사회현실을 《태평천하》로 여기고 더없는 만족을 느끼는 여기에서 백만장자이며 친일파이며 민족반역자인 소설의 주인공 윤직원령감의 반동적본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구한국말년에 농민봉기군에게 목숨을 잃은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은 윤직원령감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말에서 그것을 밑천으로 30여년동안 가산을 늘여 백만장자가 되었다. 윤직원이 젊었을 때(일제가 조선을 감점하기전)에는 어수룩한 농민들을 착취하여 가산을 늘이는데는 좋았지만 봉건지방관료들의 토색질과 농민봉기군에게 재물을 빼앗겼을뿐아

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는 재부를 불꾸는데 아무런 저애도 받지 않고 목숨을 빼앗길 걱정이 없어졌을뿐아니라 부귀와 향락을 마음대로 누리게 되었으니 그는 저으기 안심이 되고 만족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것이었다.

소설은 1930년대중엽 9월 어느날 일주야사이애 윤직원령감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면서 주인공의 우람차고 의젓한 외모와 린색하고 추잡한 처신간의 모순, 그의 가정의 외견상의 평온과 시기질투와 싸움으로 일관된 집안내막의 불일치, 인물들의 기형적인 생김새와 괴벽한 행동에 대한 과장된 묘사 등을 통하여 윤직원의 반동성과 추악성, 그의 가문의 파국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여주었다.

윤직원령감의 성격형상에서 먼저 풍자적비판의 화살을 돌린것은 그의 착취자적본성과 수전노적근성이다. 윤직원령감은 돈을 굶어모으는데서는 자못 지독하고 악착하지만 매사에 린색하기 그지없다. 그는 빠스를 타고는 차값을 내는것이 아까와서 잔돈이 없다고 하면서 10원짜리 지폐를 내놓았다가 도루 거두어넣어 무임승차를 하는가 하면 인력거를 타고 샅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1원을 내라고 하는 인력거군에게 깎고 또 깎아내려서 25전을 주어 보낸다. 또 극장에 가서는 제일 낮은 50전짜리 하등표를 사가지고 값이 세배나 되는 상등석에 앉아서 구경을 하며 노래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허술한 라디오를 옆에 두고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를 듣는것으로 위안을 받는다.

소설에서는 2미터 가까운 키와 100키로그램이 훨씬 넘는 체중에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품위있는 옷차림을 한 윤직원령감이 그 풍채와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좁은 속통을 가지고 각쟁이노릇을 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폭소를 터뜨리게 하고있다.

윤직원령감에게 있어서 이러한 린색은 그의 끝모르는 탐욕에서 나오는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것은 돈이다. 그는 대문을 열어놓으면 집안것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에서 대문을 꽁꽁 닫아 건 집안에 들어앉아서 작인들에게서 소작료를 더 많이 받아내며 수형장사를 하여 돈을 굶어모으는데 여념이 없다.

윤직원령감의 성격형상에서 다음으로 풍자적비판의 예봉을 집중시킨것은 호색한으로서의 부패성과 추잡성이다. 윤직원은 악착한 착취자, 지독한 수전노인 동시에 더없이 추악한 호색한이다.

소설에서는 나어린 동기인 춘심이와 윤직원령감의 회한한 《애정행각》을 회화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부패타락상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윤직원령감은 시골에서 음탕한짓을 한것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후의 10년동안만 하여도 기생첩

이요, 너학생첩이요, 솃치너첩이요 하면서 갈아댄 첩들이 10여명이나 되었으며 올봄부터는 동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여섯번째가 춘심이었다. 그가 동기 춘심을 《애인》으로 택한것은 돈이 덜 들뿐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소설은 우람찬 체구와 점잖은 풍채를 가진 72살의 로인과 15살짜리 동기와의 기이한 《련애》에 대한 회극적형상을 통하여 그의 추악성을 신랄하게 조소비판하였다. 소설에서는 윤직원의 만아들인 윤주사, 말손주 종수 등 자손들도 주색에 빠져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성격파산자로 형상함으로써 윤씨가문의 부패타락상을 풍자적으로 부각시켰다.. 윤씨가문의 부패타락과 패덕패륜은 동기 춘심을 둘러싸고 70고령의 윤직원령감과 나어린 증손자사이에 벌어진 기괴망측한 삼각련애에서 최절정에 이르고있다.

윤직원령감의 성격형상에서 풍자적포화가 가해지고있는 기본목표는 그의 친일적이며 민족반역적인 성격적특징이다. 윤직원령감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친일배족적인 본성이다. 그의 친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성격적특징은 일본이 국력을 강화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영원히 지속하고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나아가서 그 당시의 쏘련까지도 제압할것을 바라고 힘쓰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윤직원령감은 빈민들에 대한 자선금, 리재민을 도와주는 구제금, 민간교육을 위한 기부금 등은 한푼도 내는 일이 없지만 경찰서의 《무도장》 건설과 보통학교의 학급증설 등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곧잘 내놓는다. 그의 친일적이며 반동적인 본질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미화분식하고 찬양하며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꾀방을 늘어놓던 나머지 조선까지 사회주의가 되면 자기가 구한국말년처럼 경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런놈들을 말끔히 잡아죽여야 한다고 광기를 부리는데서 극도에 이르고있다.

식민지조선의 사회현실을 《태평천하》라고 하면서 더없이 만족해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보장하며 비호해주는 일본상전을 할애비처럼 떠받드는 친일적이며 배족적인 백만장자로서의 윤직원령감이 반동적인 사회계급적본질은 자손들가운데서 권세 있고 실속있는 군수와 경찰서장을 내놓으려고 애쓰는데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재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권세를 떨치고 가문을 빛내이려는것은 그의 뿌리깊고 끈질긴 욕망이었다. 그는 재산을 축적하고 일신의 안락이 보장된 다음에는 문벌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문을 빛내이는데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족보에 도금을 하여 조상들을 무슨 《정승》, 무슨 《판서로》만 들고 《효자》와 《렬녀》로 꾸며내었으며 그 다음에는 돈의 힘으로 지방 향교의 직원이라는 벼슬이

를 하나 얻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가 윤두섭이라는 본명과 윤뚜꺼비라는 별명대신에 윤직원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이때부터였다. 윤직원령감이 집안을 닦기 위하여 다음으로 취한 조치는 량반가문과 혼인을 맺는것이였다. 50살이 가까운 만아들 창식이 즉 윤주사는 시골에 있을 때 이미 아전집과 혼인을 했지만 손자손녀들은 모두 량반집으로 장가를 들게 하고 시집을 보내였다. 가문을 빛내이기 위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가장 요긴한 방도가 두 손자를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권세를 떨치게 하자는것이였다. 사실 《태평천하》에서 백만장자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있는 윤씨일가가 앞으로 더욱 번성하는가 못하는가하는것은 종수, 종학이 두 손주가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되는가 못되는가하는데 달려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윤직원령감은 여기에 많은 돈을 밀어넣고 여러모로 힘을 기울이고있었다.

소설은 윤직원령감과 그 가족들의 회극적인 형상을 통하여 그의 성격의 반동적인 사회계급적본질과 가족들의 부패타락상을 발가내여 야유조소하면서 사건을 이끌어나가다가 가문을 더욱 빛내이고 권세를 떨치려는 욕망이 좌절되는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그의 운명의 파탄을 보여주었다.

윤직원령감의 아들 윤주사는 50살이 되도록 철이 들지 않아서 세상일이 밤이 되는지 죽이 되는지 모르고 술한 돈을 축내면서 첩들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마작을 하며 유람으로 세월을 보내는것이 업이었다. 그래서 윤직원령감은 아들은 썸에 넣지도 않고 윤씨가문을 빛내이는 《큰 사업의 제일선용사》로 두 손자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있는것이였다. 그런데 말손주인 종수는 제애비를 닮아 야무지지 못하고 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에 세번이나 락제를 한데다가 군수운동을 한하면서 주색에 빠져 돌아치는것이 일쑤였다. 그러나 둘째손주 종학이는 자기 형과 달리 우수한 성적으로 고보를 마치고 도표에 가서 대학공부를 하고있었다. 하여 윤직원령감도 그놈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종수를 혼계할 때에도 종학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삼사년만 쯤들어나면 경찰서장이 될것이니 너도 정신을 차리고 어서 군수가 되라고 타이르곤하였다.

이러한 윤씨집안에 천만뜻밖에도 도표에서 종학이가 사회주의운동에 관계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전보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윤직원령감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복통할 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소설은 윤직원령감이 것처럼 철저하게 믿던 손주 종학이가 경찰에 체포되었을뿐아니라 더구나 사회주의운동에 관계하였다가것이 분하고 무서워서 노발대발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신랄한 풍자회극적묘사로 야유조소하였다. 작품에는 진보적인 사회력량을 대표하는 긍정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윤직원령감을 비롯한 여러 부정인물들의 다양한 성

격형상과 그들의 호상관계, 사건줄거리의 전개와 결속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오직 자기일신의 부귀와 안락, 권세와 명예만을 추구하며 패덕적이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친일적이며 민족반역적인 부유층의 죄악과 부패성을 풍자적으로 폭로비판하고 그 운명의 파멸을 암시하였다.

소설에서는 성격형상과 생활묘사에서 과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부정적인것에 대한 풍자적조소의 신랄성과 비판의 예리성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주인공 윤직원령감을 비롯한 부정인물들의 초상묘사에서 특히 모나게 쓰였다. 《얼굴은 얹디얹은 납작바닥에 주근깨가 다닥다닥하고》 《잡아뽑은듯이 우아래입술이 뜬우하게》 나와있는 둘째손주며느리 조씨의 얼굴모습, 《가날된 목우에 감짝 놀라게 큰 머리가 올라앉은게 콩나물형국》인 윤직원령감의 막내아들 태식이와 《북쪽송아지같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대가리가 어찌면 그렇게 큰지 남의것》 같은데다가 《눈은 사팔이여서 얼굴은 모로 돌려야 똑바로 보이고 코는 비가 오면 고개를 숙여야》하는 상노 상남이의 기형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는 그러한 실례이다. 소설은 언어구사에서 표현의 정확성과 묘사의 세련도가

부족하며 구성조직이 엉성한 결함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풍자적비판이 매우 신랄하고 예리하며 목표에 적중하고있다.

장편소설 《태평천하》는 그 주제사상과 예술형상적특성으로 하여 채만식의 작품계열에서뿐아니라 우리 나라 해방전 진보적문학에서 우수한 풍자소설의 하나로 된다.

채만식은 장편소설 《태평천하》를 비롯한 풍자물을 포함하여 일제통치밑에 있던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하고 민족의식과 반일사상을 표현한 다양한 주제와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자기의 작가적면모와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해방전진보적문학의 발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다.

채만식은 8.15후에도 미제침략자들의 강점과 식민지에속화정책으로 인한 남조선사회의 혼란상과 부패성을 풍자적으로 폭로비판하고 괴뢰도당의 죄행을 고발단죄한 작품들을 집필발표하여 진보적인 작가정신과 사실주의적인 창작태도를 고수하고 견지하였다.

채만식의 풍자작품을 비롯한 사실주의작품들은 그 사상에술적가치로 하여 우리 나라의 해방전 진보적문학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일화

목숨과 바꾼 시

16세기말~17세기초에 활동한 시인 권필은 당시 봉건관료사회와 당파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정의의 붓을 들어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는 날카로운 시들을 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시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시인이다.

권필은 당파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시창작을 하면서 살아온 아버지 권벽의 영향을 받아 소년시기에 시 《달구지군》을 창작하여 당시 이름있던 시인들과 친구들 속에서 명성이 높았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23살의 열혈청년 권필은 일개 서생으로 전장에 나가 싸우면서 체험한 현실에 기초하여 《말우에서 읊는다》, 《적이 물러간후 서울에 들어가면서》, 《군사의 안해》를 비롯한 애국적열정과 적개심을 담은 많은 시들을 썼다.

특히 그는 당시의 현실을 민감하게 감수하고 그 필봉을 지배계급을 증오하고 풍자조소하는데로 돌려 《충주돌》, 《싸우는 개》, 《력사를 보고 읊노라》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와 비판의 기백이 강렬한 시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의 대표작

이 《궁중의 버들》이다.

그는 바로 이 시를 쓴것으로 하여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국왕 광해군은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면서 간신들을 가까이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잔인하고 포악하였다.

이러한 왕의 횡포한 처사로 궁중에는 무질서가 조성되고 이를 통하여 외척들이 왕비를 등대고 정사에 간섭하면서 모든 일을 제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어느날 저녁 친구 임숙영이 그의 집에 불쑥 나타났다.

여느때같으면 호방한 그 성격에 우스개소리를 하며 온 집안이 들쭉하게 주인내외를 즐겁게 해주던 숙영이었으나 이날저녁만은 웬일인지 일언반구도 없이 컴컴한 얼굴로 방안에 털썩 주저앉아 가쁜숨을 쉰다.

《임형, 오늘은 웬일이요. 신색이 좋지 않네그려?》

권필의 이 말에도 숙영은 여전히 씩씩 숨만 내쉴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임형, 정말 함구무언할셈이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하구려. 그래 술을 덥혀오라오?》

두사람이 다 술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우울한 숙영의 심정을 달래려고 권필은 안방에 있는 안해에게 주안상을 차리라고 말하였다.

《뭐 술? 흥, 이젠 그 술은 그 미친놈들이나 마시라구 해. 술은 그만두고 랭수나 한동이 주우다.》

《뭐? 랭수 한동이를? 임형, 정말 실성을 했소그려.》

《그래 나도 실성을 하고 그놈들도 실성을 했지.》

안해가 차려온 주안상을 치워놓고 랭수를 벌컥벌컥 두사발이나 마신 임숙영은 그제서야 《후》하고 숨을 내쉬더니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권형, 내 과거시험은 실패했다오.》

《아니? 실패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엇그제만해도 장원은 문제없다던 임형이 실패라니?》

《이놈의 세상에선 장원은 고사하고 과거장에 들어간 내가 미친놈이지, 흥.》

원래 대바르고 강직한 임숙영은 궁궐안에서 왕비의 오라비 류희분과 그 일파들이 노는 꼴을 항상 아니꼽게 여기고있었다. 그러던차 이번 과거장에서 그자들의 비행을 폭로하는 시를 써내었다. 이것을 본 왕비와 류희분은 성이 독같이 나서 아첨군인 황원을 급제시키고 임숙영을 삭파시켰던것이다. 이들의 패썹한 처사에 분격한 임숙영은 궁궐안에서 왕비와 류희분 그리고 외척들이 전횡을 부리고 정사에 제멋대로 끼여드는데 대한 항의문을 써서 왕에게 올렸다.

항의문을 본 광해군은 자기의 비위를 거슬리고 왕비의 외척들을 비난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를 잡아가두라는 령을 내렸다는것이다.

《임형, 그래 이제는 어쩔셈이요?》

《뭐 어쩔게 있나요. 이제는 다 그른 판인데 부친이 있는 고향에 내려가 권형처럼 살려오.》

《아니, 그래도 과거야 임형이 그토록 바라던것이 아닌가요.》

《뭐? 과거? 흥! 이 어지러운 세상에선 과거고 무엇이고 아무 소용 없지요.》

임숙영은 더 앓았다 가라는 권필과 안해 김씨의 권고도 마다하고 대문을 나섰다.

멀어져가는 임숙영을 측은한 눈길로 바래고 올라오는 울기를 참는 권필의 마음은 왕과 류희분일파에 대한 증오로 끓어올랐다.

한참동안 끓어오르는 분기를 묵새기던 그는 서재로 가서 시 한편을 썼다.

그 시가 바로 《임무숙이 삭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인데 그것이 후에 유명한 《궁중의 버들》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궁중에 버들이 류달리 푸르기에
피꼬리 얇밋게 란장을 치누나
향락만 탐내는 부자집 자식들
그런걸 봄경치라 아첨을 하네

조정에선 《태평세월》 되었다고
신하들이 치하하기 바빠하건만
나라를 걱정하는 진실한 목소리
선비의 입에서 터질줄 어이 알았으리

이 시에서 권필은 버들 류자를 써가지고 궁중의 버들은 왕비 류씨로, 피꼬리는 그의 오라비 류희분을 비유하여 광해군과 그를 등대고 궁중에서 날뛰는 왕비와 류희분 그리고 그 외척들을 규탄하고 그에 아첨하는 탐관오리들을 날카롭게 풍자조소하였다.

임자 3월, 무옥사건때 조수륜의 집서고에서 권필의 시를 발견한 광해군은 그를 잡아들이고 직접 신문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그후 대신 리항복이 광해군에게 간하여 사형을 면하게 되었으나 그는 경원(오늘의 새별군)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그를 배태면서 그에게 술을 권하였다.

그는 그 술을 다 마시면서 그들과 작별하였는데 귀양길에서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그만 운명하고 말았다.

이처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많은 시들을 써 당대 사회와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고 풍자조소한 시재 권필은 유명한 시 《궁중의 버들》을 지었다는 《죄》로 1612년(광해군 4년)에 44살을 일기로 한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후 계해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사헌부 지평벼슬을 추증하였다.

권필은 비록 비명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높은 정신세계와 문학적재능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널리 알려져 그의 사람됨과 예술적재능을 더 깊이 알고 추억하게 되는것이다.

강경순

미국에 부치노라

김창근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
아침이면 조용히 일을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즐기는 한가정의 세대주-
직무를 가진 외교관도 아니고
이 나라의 한 평범한 공민이
미국에 감히 이 글을 부친다고
놀라지 말라 미국이여
그리고 부디 새겨들으라-

내 오늘도 버릇처럼
귀기울여 방송을 듣고
눈여겨 신문의 글줄을 더듬는다
우리와 무슨 《회담》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도 한다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얼굴에는 미소짓고...
병주고 약주는 소리 걸어치우라
눈에 든 가시같은 우리를
아예 힘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그 검은 칼을 빼드는것이
차라리 훨씬 미국답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이여
우리 기꺼이 서슴지 않고 응하리니
자, 이제는 결판을 짓자!

하늘가에 은하수 흐르는 밤이건만
지금 내 마음은 고요하지 못하다
고요하지 못한 마음
이밤에
내 누구에게라 없이 묻는다
남행열차 북행열차 즐거운 기적소리는
어이하여 반백년이 넘도록 울리지 못하는가

어이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때로는 옷장속에 나들이옷 걸어두고
전투복에 위장망 없고 달려야 하며
우리의 산과 들 바다는 풍요하고
땅속에 금은보화 가득하건만
어이하여 아직은 우리의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것인가

누구인가 대답한다-
-그건 죄다 미국놈때문이다
누구의 목소리나
어른들도 아이들도 말한다
거리에서도 마을에서도 울려오는 목소리다
-미국놈이 원쑤다, 미국놈이...
이번에는 또 다른 목소리-
-그놈들을 더는 그냥둘수 없어!
-이제는 한바탕 해야 돼!
듣느냐 미국이여
정녕 모든것이 미국때문일진대
조선의 원한이 너무도 커서
그 어디 다른 길이야 없지 않은가!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
먼저 낳은 딸은 딸애여서 곱고-
다음에 낳은 아들은 아들이어서 대견하다
그애들이 밖에서 뛰놀다가
손끝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아플세라 피날세라 조심히 뽑아주고
호호 입김으로 불어준다
이제 전쟁이 터져올라
귀여운 내 자식이 다친다면
아마도 갑자기 나에게
눈앞이 보여오지 않을것이다

내 그래서 정갈한 이 거리의
 유리 한장 깨지지 않기를 바라건만
 미국이여 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나날이 우리 인민에게 화만 끼치고
 함부로 우리 조국을 모욕하고있으니
 형제가 도적한테 화를 입는데
 못본척 외면할 혈육이 있으며
 부모가 원수한테 욕을 당하는데
 무서워 몸을 떨며 피하는 자식 있으랴
 들으라, 미국이여
 너희들이 그리도 불을 즐겨한다면
 우리 어찌 마다하랴
 분노한 우리의 불은 무섭게 터지리라!

미국의 힘을 우리는 안다
 더듬으면 이제는 여러 백년전
 그때부터 인디안의 무덤우에 솟아나
 남의 피를 즐기며 비대해진 미국-
 심장약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두려워한다
 그 힘으로 미국은
 웨이셀을 짓밟고
 그레네이더를 덮치고
 제 비위에 거슬리면
 남의 나라 대통령궁전도
 야밤삼경에 폭격하고
 대낮에 꺼리낌없이 수색도 하겠단다
 하지만 미국이여, 내 오늘
 너 《힘의 왕국》에 소리쳐 묻노니-
 백층짜리 높은 집도 있다는 너희들의 워싱턴과
 뉴욕복판에
 우리의 먼거리 포탄은 날아가지 못한다더냐

내 아직 한번도 본적은 없건만
 그리도 무섭다는 우리의 폭탄이 거기서는 터지지
 않는다더냐
 전쟁력사상 아직 한번도 총탄 한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통쾌하게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면 안된다더냐
 그렇다
 우리와 미국이 싸움을 할 때
 아무 일도 없는듯 아메리카는 조용하고
 삼천리금수강산 내 나라만
 불에 타고 뒤번저질수야 없지 않는가
 대답하라, 미국이여

자, 미국이여 어서 나서라
 아무래도 너와 나는 웃으며 다정히
 한하늘아래 손잡고 살수 없는 처지거늘
 숨죽이고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서라 미국이여
 이제는 너와 나 결판을 내야 한다!
 부언컨대 미국이여
 내 오늘은
 우리와 미국의 힘(포탄, 폭탄...)을 두고
 몇마디 이야기했을뿐
 다 말하지 않았노라
 우리의 위대한 령장의 슬기와 담력
 하나가 된 우리의
 혼연일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있기에...)
 그렇다, 그것은 미국이여
 싸움판에서 우리와 맞붙어보면
 그 진짜맛을 보게 되리라!